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는 濟州經濟의 對應

— 濟州經濟發展세미나 —

○ 日時 : 1994年 7月 29日 (金) 13 : 30

○ 場所 : 濟 州 商 工 會 議 所

主 題 發 表

□ 順 序

□ 主題發表者 및 指定討論者

○ 第1部 : 開放化時代의 濟州農業의 發展方向

□ 主題1 : UR妥結에 따른 農産物 市場開放이 濟州農業에 미치는 影響
高 南 旭(濟州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 主題2 : 開放化時代에 濟州農業의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金 璟 宅(濟州大學校 農業經濟學科 助敎授)

○ 第2部 : 國際化·開放化時代의 서비스産業의 發展方向

□ 主題1 : 濟州觀光産業의 競爭力 強化 方案
許 香 珍(濟州大學校 觀光經營學科 副敎授)

□ 主題2 : 서비스産業의 市場開放과 競爭力 向上方案
— 濟州道를 中心으로 —
金 泰 保(濟州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 第3部 : 綜合討論

순 서

13 : 30 : - 개회식

13 : 50 : - 제1부 : 개방화시대의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 제 1, 2 주제발표 및 토론

15 : 50 : - 휴 식

16 : 00 : - 제2부 :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

○ 제 1, 2 주제발표 및 토론

18 : 00 : - 제3부 : 종합토론

18 : 30 : - 폐 회

주제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주제발표자

- 고남욱(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경택(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 김태보(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허향진(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좌장(진행)

- 안석교(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승희(KDI 선임 연구위원)

□ 지정토론자

- 강동일(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강원호(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장)
- 김한욱(제주도 관광문화국장) - 김회상(한라농수산(주) 대표이사)
- 문홍익((유)제주물산 대표이사) -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부장)
- 양승홍(천일목재사 대표) - 이광언(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이지순(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 임혁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지부 사무국장)
- 장성수(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전문배(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혜삼(제주도 감귤품질과장)

※ 가나다순

◎ 제 1 부

— 제 1 주제 발표 —

UR妥結에 따른 農産物 市場開放이 濟州農業에 미치는 影響

高 南 旭

濟州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Ⅰ. 서 론
Ⅱ. UR농산물협상과 시장개방
1. 협상타결 내용
2. 농산물시장 개방의 주요내용
Ⅲ. UR농산물협상의 파급효과
1. 농산물자급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2. 농산물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전반적 파급효과
4. 주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별 피해
Ⅳ. 농산물 시장개방이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오렌지 및 감귤류 2. 감자
3. 고구마 4. 쇠고기
5. 돼지고기 6. 닭고기
7. 마늘 8. 양파
9. 맥주맥 10. 콩
11. 참깨
12. 제주지역 농축산물의 품목·연도별 개방피해

Ⅰ. 서 론

제주도 지역경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1991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지역총생산(GRP)은 20,882억원이며, 그중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3차 산업이 58.5%, 그리고 2차 산업이 5.6%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지역특성상 앞으로의 제주지역 경제성장 또한 2차 산업보다는 1차, 3차 산업 두 부문의 성장여부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의 많은 부분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농업소득이 제주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수입원이 됨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농업소득중에서 특히 감귤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로 이것이 제주지역총생산에서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감귤은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비중의 수입원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대표적 작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곧 다자간무역협상이 지난해 12월 15일 7년여에 걸친 협상끝에 타결되었다. 이제 세계무역질서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구조에까지 엄청난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 제주지역경제의 기반인 감귤 등 15개 NTC 품목의 개방도 예정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개방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그 압력으로 생산위축과 탈농현상이 가속화되리라는 우려는 제주지역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개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액은 1995－2001 기간중 총 7조 7천 9백 3십 8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피해액중 감귤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7천 9백 49억원으로, 비율로 따질때 전체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감귤은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고, 단일 품목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어떤 품목과도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 이렇게 볼때 제주지역의 감귤농업은 그야 말로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러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개방으로 인하여 제주농업이 입을 피해액을 예측함으로써 그 대처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제안된다.

II. UR農産物協商과 市場開放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GATT 구조하에서도 각국이 농업부문은 각종 예외 규정을 기본적으로 인정 받아 왔다. 이것은 농업부문이 고용·국토보존·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NTC (Non Trade Concerns)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증가일로에 있는 무역적자의 해소 방안으로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UR에서 농산물 분야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보장,국내보조금의 감축, 수출보조금의 감축 등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이루어진 농산물 협정의 세가지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 UR 농산물협상타결의 주요 내용을 알아 본후, 농산물시장 개방의 파급 영향을 살펴 본다.

1. 협상타결 내용

1)시장접근(Market Access)의 내용

UR농산물협상 최종협정문에는 관세화를 전제로 기준년도(1986~88)의 관세상당치 (Tariff Equivalent, TE)를 설정하고, 향후 10년(1995~2004)간 24%를 감축(최저 감축폭은 10%)함과 동시에 기준연도 동안의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의 3%이상인 품목의 경우는 기준기간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인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CMA)을 보장하고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은 초기년도에 국내소비의 3%에서 최종년도의 5%까지 확대토록 되어 있다.〈표1 참조〉

〈표 1〉 시장접근의 보장

구 분	기 준	이행시간	증 량 폭	이 행 방 법
현행시장접근	1986~88평균	1995~2004	기존수입량	과거의 실제
(CMA)	수입량		유지 혹은 확대	수입량 보장
최소시장접근	1986~88평균	1995~2004	초기년도 3%에서	저세율에 의한
(MMA)	소비량		최종년도 5%까지	관세할당 방법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 1.

2) 정부보조금의 협상타결 내용

(1) 수출보조 분야의 협상타결 내용

UR 농산물협정이 한국의 농산물수출에 입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농산물 수출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곡물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해서 잉여농산물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채소류, 화훼류,과실류 등은 신선도의 유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근접지역으로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다.

수출보조금의 감축문제 또한 UR농산물협상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수출보조는 1986~9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1995~2000년의 이행기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를 연도별로 감축하고, 물량기준으로 21%를 연도별로 감축한다.〈표2 참조〉 단,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이행기간은 1995~2004년인 10년간이며, 재정지출기준으로 24%,물량기준으로 14%를 연도별로 감축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정책중 수출 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축대상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감축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수출보조감축

구 분	일반원칙(선진국)	개 도 국 우 대
기 준 년 도	1986-1990년 5개년 평균	1986-1990 5개년 평균
감 축 목 표	금액 : 36%, 물량 : 21%	금액 : 24%, 물량 : 14%
김축이행시간	6년간(1995-2000)	10년간(1995-2004)
감 축 방 법	연도별 균등감축	연도별 균등감축

(2) 국내보조 분야의 협상타결 내용

UR농산물협상 타결이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번째 영향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다. 두번째 영향은 각종 농축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조치와 관세상당액의 감축에 따른 시장개방과 수입농산물의 내수시장으로의 유입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협정에서는 국내보조와 관련된 정책을 일정기준에 따라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감축대상 보조정책은 정부수매 등 시장가격지지와 감축대상 직접지불,기타 감축대상 보조로 나누어진다.

〈표 3〉 UR 농업협정에서의 국내 보조정책의 분류

감 축 대 상 정 책		Ⅰ. 시장가격지기 Ⅱ. 감추대상 직접지불 Ⅲ. 기타 감축대상 보조
허 용 대 상 정 책	정부서비스	Ⅰ. 일반 서비스 : 연구 방제, 방역 등 병해충예방 교육 및 훈련 지도, 홍보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Ⅱ. 국내 식량구호 Ⅲ.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허용대상 직접지불	Ⅰ. 생산 중립적 소득지지 Ⅱ.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화시책 Ⅲ. 재해복구 및 구호 Ⅳ. 은퇴 및 탈농지원 Ⅴ. 휴경보상 Ⅵ.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Ⅶ. 환경보존 관련 지원 Ⅷ. 낙후지역개발 지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분석, 1993. 12

현재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농산물에 지원하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은 1조7,186억원이다.〈표4 참조〉 이 감축대상보조금은 10년에 걸쳐 13.3% 만큼 줄여 2004년에는 1조 4,900억원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표 4〉 품목별 감축대상보조금 현황

구 분	쌀	보 리	콩	옥수수	유 채	합 계
보 조 액	15,684	523	729	226	24	17,186
총생산액대비비중	24.8%	17.4%	34.1%	79.9%	53.3%	

자료 : 경제기획원, 대의협력위원회 보도자료, 1994.2.15

한편 허용대상정책은 일반서비스 등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 Program, GSP)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s to Producers, DP)로 나뉘어 진다. 허용대상으로 분류된 정책들이 갖추어야 할 두가지 일반적 기준은 1)소비자로부터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정에 의한 보조이어야 하고, 2)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구사업,병해충방제,교육훈련, 하부구조의 개선, 영세민에 대한 식량지원 등이다.또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는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의 보장, 재해구호, 탈농보상, 휴경지원 등이다. 다시말하면, 일정 기준하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직접지불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중곡가제에 의한 시장가격지지도 허용대상정책이 아니므로 감축대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농산물시장 개방의 주요내용

UR농산물협정에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축산물, 임산물이며, 수산물은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상품목은 1,305개이며 이 중 1,067개 품목은 이미 수입자유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38개 품목만이 UR협상결과에 따라

개방되어야 할 대상품목이다.

NTC 15개 품목의 개방과 관련하여 우선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에 대한 특별대우가 농산물 협정문의 부속서에 반영되었다. 이것에 의하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재협상한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도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그 물량은 1995년에 1%(39만석)를 시작으로 1999년에 2%까지 매년 0.25%씩 증량시키고,2000년도 부터 2004년까지는 2%에서 4%(158만석)로 매년 0.5%씩 증량시키게 되어 있다.

쇠고기는 쿼타제에 의해 수입되는데 1994년부터 년간 2만톤씩 쿼타량을 늘려 2000년에는 현재 소비량보다 많은 22만 5천톤을 수입해야 한다. 또한 2001년 부터는 41.2%의 관세율로 수입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 수입시 징수하여 축산진흥기금으로 납입되는 부과금(Mark-up)은 2000년에는 완전 철폐되도록 그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되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997년 7월부터 각각 33.4%, 30.5%의 관세율로 수입개방 되고 있다. 유제품 중 치즈, 조제분유 및 유장분말은 1995년부터 개방되고, 버터류와 기타 유제품은 1997년 7월부터 관세하에 수입하도록 되었다.

제주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선오렌지는 1997년 6월까지는 의무수입량만 수입하고, 1997년 7월이후는 완전 개방된다. 특히 신선오렌지는 1997년 이후에도 쿼타량을 매년 12.5%씩 증가시키도록 되었다.

보리, 대두,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의 품목은 1988~1990년의 관세상당치를 기준으로 10% 감축해 양허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관심품목이 아닌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아직 양허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NTC 15개 품목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한 주요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이행계획서 내용

구 분	관세양허(%)		최소시장접근 약속물량(톤) 및 관세율		
	기준세율	양허세율	초기연도	최종연도	이행기간
쌀			51,307(5%) 102,614(5%)	102,614(5%) 205,228)(5%)	1995~1999 2000~2004
보리 (쌀보리)	333(또는 401원/kg	299.7(또는 956원/kg	14,150 (20%)	23,582 (20%)	1995~2004
대두	541(또는 1,062원/kg	487(또는 956원/kg	1,032,152 (5%)	1,032,152 (5%)	〃 〃
옥수수 (사료용)	365	328	6,102,100 (3%)	6,102,100 (1.8%)	〃 〃
감자	338(또는 348원/kg	304(또는 346원/kg	11,286 (30%)	18,810 (30%)	〃 〃
고구마	428(또는 375원/kg	385(또는 338원/kg	11,121 (20%)	18,535 (20%)	〃 〃
쇠고기	44.5	40	123,000 (43.6%)	225,000 (41.6%)	1995~2000
돼지고기 (냉동)	37	25	21,930 (25%)	18,275 (25%)	1995~1997.6
닭고기	35	20	7,700 (20%)	6,500 (20%)	〃 〃
유제품 (탈지분유)	220	176	621 (20%)	1,034 (20%)	1995~2004
고추	300(또는 6,900원/kg	270(또는 6,210원/kg	4,311 (50%)	7,185 (20%)	〃 〃
마늘	400(또는 2,000원/kg	360(또는 1,800원/kg	8,680 (50%)	14,467 (50%)	〃 〃
양파	150(또는 200원/kg	135(또는 180원/kg	12,369 (50%)	20,645 (50%)	〃 〃
오렌지	99(또는 1,015원/kg	50(또는 513원/kg	15,000 (50%)	57,017 (50%)	〃 〃
참깨	700(또는 7,400원/kg	630(또는 6,660원/kg	6,731 (40%)	6,731 (40%)	〃 〃

자료 : 경제기획원, 국별 이행계획서 의결, 1994. 2. 15

III. UR 농산물협상의 파급효과

국내 시장에서 UR농산물협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와 최소시장접근의 보장, 관세 및 관세 상당액의 감소이다 (한국경제신문사, 1994).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 국내보조정책에 의해 자국농업을 보호해온 반면에 한국의 농업 보호는 선진국의 보조정책에 비해 손쉽고 비용이 들지않는 수입제한조치등 국경조치에 더욱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예외없는 관세화 조치로 인한 타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각종특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없었다.〈표6 참조〉 그러나 UR에 의한 최소시장의 접근보장차원에서 3~5%까지 허용해야 한다.

관세와 관세상당액의 감축약속 측면에서는 수입농산물의 CIF가격과 국산품의 가격차이를 이루는 관세를 포함한 관세상당액을 품목별로는 최저 15%,단순평균으로는 36%를 1995~2000년(6년간)까지 감축 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발대상국 적용을 받게 되어서 1995~2004년(10년간)의 이행기간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0%, 전체평균으로는 24%를 감축시키게 되었다.

〈표 6〉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 농산물

관 련 법 규	주 요 품 목
양 곡 관 리 법	쌀, 보리, 대두, 팥, 녹두, 맥주맥, 메밀, 귀리, 조, 수수
사 료 관 리 법	고구마, 감자, 옥수수, 전분류
주요농작물종자법	땅콩, 참깨유박, 골분, 단비사료, 등 71개 품목
종 묘 관 리 법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귤나무, 채소종자
잠 업 법	잠종, 뽕나무
축 산 물 법	종우(3), 종돈, 종계(2), 조란, 소정액, 동물의 정액, 동물의 수정란
인 삼 사 업 법	인삼(14), 인삼잎과 줄기, 인삼종자, 인삼차, 인삼 조제품(기타)
담 배 사 업 법	연초종자, 잎담배(8), 잎담배 부산물(3)
수 산 업 법	어류(6), 연체동물(2), 기타 수생동물, 미역, 톳, 기타 해조류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 법률하 수입제한품목 수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1993.

1. 농산물자급률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러한 시장접근의 보장과 관세상당액의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국내시장에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경쟁은 치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무역수지적자는 확대될 것이며, 국내 농산물의 자급률 또한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옥수수, 콩, 쇠고기, 참깨등 현재의 수입량 비중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1992년에 10개 주요 품목별 자급률은 83~104%수준에 있는데 수입개방으로 인해 2000년에 41~99%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자급률의 하락이 특별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쇠고기, 감귤이며, 닭고기와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류는 96%의 자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7 참조〉

〈표 7〉 수입자유화에따른 자급률 하락

품목 연도	1992	1995	2001
쌀	97.5	98.9	97.1
보리	83.3	81.1	72.1
맥주맥	65.8	62.3	41.6
옥수수	1.5	1.7	1.2
콩	12.2	9.0	2.7
감자	96.2	83.4	69.5
고구마	95.7	49.5	40.5
쇠고기	43.9	47.3	24.3
돼지고기	102.8	97.3	93.1
닭고기	100.0	96.7	98.7
감귤	100.0	96.7	98.7
고추	100.0	97.4	96.0
마늘	103.7	98.3	97.9
양파	102.9	98.2	97.9
참깨	47.7	34.7	11.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1.

2. 농산물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유입은 단기적으로 내수시장의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소비자에게는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생산기반의 무력화로 이어져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해외농산물의 시장가격변동이 국내시장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어 국내시장에서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수입개방 첫해인 1995년에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하락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쇠고기의 가격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95~2001년 기간중에 개방폭이 큰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개방폭이 작은 쌀과 관세상당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닭고기 및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의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표8 참조〉

〈표 8〉 수입자유화에따른 가격변화 예측(1990년 불변가격)

품목 연도	1992	1995	2001
쌀(원/80kg)	86,400	84,900	86,800
보리(원/76.5kg)	55,300	31,600	30,100
맥주맥(원/40kg)	21,000	20,400	19,400
옥수수(원/40kg)	18,000	14,300	13,600
콩(원/kg)	1,010	880	840
감자(원/3.75kg)	1,470	1,320	1,280
고구마(원/3.75kg)	940	810	770
쇠고기(원/kg)	11,200	9,900	6,600
돼지고기(원/kg)	3,900	3,700	3,100
닭고기(원/kg)	1,940	1,850	1,900
감귤(원/15kg)	7,000	8,200	5,400
고추(원/600g)	3,036	1,930	1,770
마늘(원/3kg)	4,151	4,500	5,200
양파(원/kg)	96	170	200
참깨(원/4kg)	23,366	22,600	21,300

주 : 2001년까지의 가격변화 예측은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동이 없음을 가정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1.

3. 전반적 파급효과

UR농산물 협정 타결로 인한 국내시장 개방이 농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로 살펴보면, 1992년 현재 총 GNP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7.8%인데,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에서 2001년에는 7.9%로 반감될 것이며,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에서 2001년 5.1%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992년 42.6억 달러이던 것이 2001년에 130.3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다.농업성장률은 수입자유화가 시작되는 1995년에 전년대비 −1.1%의 성장이 예상되고, 1995~2001년 기간중에 연평균 0.1%의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9 참조〉

〈표 9〉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림수산업 총량지표 변화

품목 연도	1992	1995	2001
농림수산업 비중(%)	7.8	5.5	2.8
농림수산업 취업자(만명)	302.5	268.8	194.8
(비중, %)	(16.0)	(13.1)	(7.9)
농가인구(만명)	570.7	478.7	242.3
(비중, %)	(13.1)	(10.7)	(5.1)
농림수산업 무역적자(억불)	42.6	64.3	13.3
농림수산업 성장율*(%)	1.2	−0.9	0.2
농업 성장율*(%)	1.5	−1.1	0.1

* 成長率의 적용년도는 實測値(1992)의 경우 1988 92 평균 증가율이고, 豫測値의 경우 1995년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고, 2001년은 1995~2001 평균 증가율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1.

4. 주요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별 피해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UR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5개 NTC품목의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1995~2001 기간중 총7조8천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가격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방초기년도 보다 후기로 갈수록 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1995년 약 7천3백억원에서 2001년 약 1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UR농산물협상 타결로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의 순이다.

〈표 10〉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생산자잉여 감소분 예측

단위 : 억원(1990년 불변가격)

품 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쌀	529	655	779	899	1,018	1,007	1,247	6,129
보 리	582	603	632	663	689	711	730	4,610
맥 주 맥	315	363	420	483	546	616	690	3,433
옥 수 수	125	145	168	192	217	241	266	1,354
콩	171	166	157	146	131	113	92	976
감 자	347	411	476	546	614	687	762	3,842
고 구 마	455	430	403	374	348	322	295	2,626
쇠 고 기	1,732	2,484	2,500	2,926	3,618	3,565	4,256	21,081
돼지고기	1,092	1,384	1,671	3,611	3,537	3,435	3,306	18,036
닭 고 기	226	309	393	0	0	66	138	1,132
감 귤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7,949
고 추	199	263	256	299	294	350	356	2,017
마 늘	609	159	592	500	601	424	631	3,516
양 파	47	29	42	41	46	49	53	307
참 깨	162	157	149	138	125	109	89	929
계	1,337	8,128	10,436	11,484	13,530	12,264	14,759	77,938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방향, 1994.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지역별 입지배치가 상이하고,지역별 농업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별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UR농산물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의 피해액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예를들어, 감귤의 경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품목들 중의 하나이다.왜냐하면 감귤은 기후적 특성상 제주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농업총조수입 중 감귤 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의 경우 무려67%나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지역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전국단위의 품목별 대책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단위의 별도 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표 11〉 생산자 잉여감소로 인한 시·도별 피해액－1995년예측액(1990년 불변 가격)

순위	지역(도)	지역피해액(단위 : 억원)	순위	지역(도)	농가당피해액(단위 : 만원)
1	전남	1387.6	1	제주	249.7
2	제주	1002.3	2	강원	49.1
3	경남	990.3	3	전남	46.6
4	경북	986.9	4	경남	41.6
5	경기	816.4	5	경기	40.3
6	충남	738.5	6	인천	33.6
7	강원	494.7	7	충남	32.8
8	전북	483.9	8	경북	32.1
9	충북	333.2	9	충북	28.8
10	광주	22.6	10	대구	27.7
11	대구	22.8	11	전북	25.7
12	대전	19.1	12	대전	20.5
13	인천	18.4	13	광주	17.1
14	부산	14.0	14	부산	16.5
15	서울	2.4	15	서울	6.9
합계		7337			
평균		489.1			41.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작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방향, 1994

〈표11〉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액을 NTC 15개 품목을 중심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지역별로 볼때 전남지역의 피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제주도의 순이다. 1995년에 농가당 피해액은 제주지역이 1990년 불변가격으로 250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 전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품목별 피해액 상위5개 지역

품목 / 순위	쌀	보 리	맥주맥	옥수수	콩	감 자	고구마	쇠고기
1	김 제	밀 양	북제주	횡 성	북제주	평창군	해남군	공주군
2	당 진	해 남	해 남	정 선	무안군	명주군	여천군	안성군
3	화 성	보 성	고 흥	홍 천	신안군	남제주	북제주	홍성군
4	익 산	경주군	남제주	영 월	남제주	홍천군	남제주	합 천
5	해 남	함 평	여 천	평 창	고흥군	정선군	완도	당진군

품목 / 순위	돼지고기	닭고기	감 귤	고 추	마 늘	양 파	참 깨	전 체
1	용인군	포천군	남제주	안동군	무안군	무안군	안동군	남제주
2	홍성군	용인군	서귀포시	의성군	남해군	청녕군	북제주	북제주
3	당진군	화성군	북제주	청송군	해남군	영천군	예천군	서귀포
4	포천군	이천	제주시	영양군	신안군	함평군	해남군	해남군
5	김해군	김포군	통영군	정읍군	의성군	북제주	의성군	무안군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그 대책방향, 1994.

〈표12〉는 품목별로 피해가 높은 상위 5개 시·군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 생산이 감귤은 제주지역, 맥주맥은 제주와 전남, 양파는 전남, 옥수수는 강원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5개 시군에 이들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수입개방이 특정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품목별 피해액이 가장 큰 시·군은 제주도가 3개 시·군(남제주군, 북제주군,

서귀포시)이고, 전남(해남군, 무안군)이 2개 군이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별 피해 대책은 전국단위의 품목별 대책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단위로 접근할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전국 단위에서 품목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역별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Ⅳ. 농산물 시장개방이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UR협상 타결로 95년 1월 1일부터 농산물의 전면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UR에 따른 제주지역 농산물의 품목별 피해를 파악하고 품목별로 효율성 있는 농업경영체를 다양하게 육성, 지원함으로써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을 위주로 자세한 수입개방 내용과 피해액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오렌지 및 감귤류

1) UR협상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다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감귤에 주로 영향을 미칠 품목은 오렌지와 오렌지쥬스 이다. 이들 품목은 '97년 7월부터 높은 관세를 물리지만 수입은 자유화 된다.

오렌지는 '95년 1월 부터 '97년 6월까지 현재 관세율인 50%의 관세를 물려서 '95년에 정해진 수입쿼타량 한도 내에서 수입하기로 했다.〈표13 참조〉 1998~2004년까지 쿼타량 증가율은 年間 12.5%이다.

그러나 '97년 7월 부터는 자유화가 되면서 수입쿼타물량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 단, 자유화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98년의 경우 '97년 수입하기로 한

쿼타량 2만5천톤의 12.5%인 3천1백25톤을 추가해 모두 2만8천1백25톤을 50%의 관세율로 수입하고, 쿼타량이상의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대략 84%의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즉, 수입자유화 이후 쿼타량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95년을 기준으로 99퍼센트의 관세율을 부과하고,2004년까지 관세율을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생산자 단체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입권을 갖는 무역)을 통해 수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다.

만다린등 기타 감귤류의 수입개방 내용을 보면 쿼타량에 의해서 '95년 1,258톤을 시작으로 2004년에 2,097톤을 수입해야 한다. 쿼타량에 대한 관세율은 50%이다. 쿼타 초과량은 '95년기준 16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04년까지 144%가 되도록 매년 감축시켜야 한다.

〈표 13〉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개방 내용

구 분	쿼 터 량 (톤)			쿼터량관세(%)	초과관세(%)	
	'95	'97	2004	'95.1~'97.6	'95	2004
오 렌 지	15,000	25,000	57,017	50	99	50
감 귤 류	1,258	1,444	2,097	50	160	144
오렌지쥬스	50,000	30,000*		50		

* '97년 6월말까지 쿼타량이고, '97년 7월이후는 완전히 개방된다.

한편 오렌지쥬스는 '95년에 5만톤,'96년에 5만5천톤,그리고 '97년 1월~6월까지 3만톤의 쿼타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97년 7월이후 부터는 60퍼센트의 관세율로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 된다. 그런데 국내산 감귤쥬스의 생산원가는 미국 및 브라질 산 오렌지 쥬스의 국내수입가격에 비해 두배이상 비싼 수준이다. 따라서 오렌지쥬스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부터 쥬스 생산용 농축액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오렌지, 감귤, 오렌지쥬스가 수입자유화 되면 우리의 감귤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97년 6월 수입자유화 이전까지는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시기를 국내산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절할 경우 국내 생산농가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 수입이 자유화 되면 아무리 관세가 높다해도 바나나 수입개방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물량이 초기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차츰 관세가 줄어들면 수입량이 늘어나 제주 감귤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감귤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1995년 746억원에서 2001년 1,853억원으로 증가한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 피해액은 7,949억원으로서 단일 지역에서 입는 피해액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

수입개방 초기년도인 '95년에 오렌지 수입물량은 1만 5천톤에 불과하지만, 2001년에는 그 13배 이상이나 되는 20만 1천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량으로 제주 감귤의 자급률은 '95년의 98%에서 2001년에 74%로 급격히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4〉 감귤의 개방피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량(천톤)	564	628	592	639	574	615	552
소비량(천톤)							
생과용	471	538	574	61	627	655	683
가공용	103	103	76	69	59	63	65
수출량(천톤)	5	6	6	6	6	6	6
수입량(천톤)	15	20	64	38	118	110	201
자급률(%)	98	98	91	95	84	86	74
생산자잉여감소액(억원)	746	570	1798	666	1646	570	1853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3. 12.

2. 감자

1) UR협상결과

신선감자는 1988~90년도의 국내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95년도는 3%에 해당하는 11,286톤을 수입 허용하고, 2004년에는 5%에 해당하는 18,810톤을 수입자유화 하도록 협상이 타결 되었다. 그리고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쿼타량에 한해서 현행 관세인 30%로 수입이 허용되고, 초과수입물량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국내외 가격 차만큼의 높은 관세율인 338%을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4%씩 감축하여 2004년도에는 30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생감자는 부피가 크고 부패의 염려가 있어 운반수송상의 문제점이 많아 신선감자 상태로의 국제무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 미국, 네델란드 등 주요수출 예상국들의 경우 암종병, 황화 위축병, 씨스트선종 등 우리나라 식물 방역법상 수입금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농촌진흥원, 1994.6).

그러나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수입 쿼타량만큼을 수입해야 할 때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으로 수입창구를 제한하고,수입시기로 농가의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감자의 경우 수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에서는 국내 감자 생산농가의 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현재 재배수준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감귤의 경우는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지만 감자는 전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제주지역만의 피해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전국적인 비중을 1988년에서 1992년까지 5년동안 구한후 이것들의 평균비중을 계산하였다. 5년간 제주지역 감자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의 평균 비율만큼 제주지역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피해를 계산하였다.

예를들어, 5년간 제주지역 감자생산이 전국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율들의 평균은 10.3%이다. 따라서 전국 감자 생산 농가가 입을 피해의 10.3%가 제주도의 몫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물론 전국적인 피해액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피해액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15〉 감자의 개방피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35.7	42.3	49	56.2	63.2	70.8	78.5

* 피해액 계산시 1988~1991년 4년간의 평균비율을 사용함. 왜냐하면 1992년의 비율이 다른해에 비해서 워낙 높아서 평균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1992년은 제외시킴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35억 7천 만원이고, 2001년에는 78억 5천만원으로 예측된다. 1995~2001년 7개년 동안의 총피해액은 395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3. 고구마

1) UR협상결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용도는 생식용,전분용, 주정용으로 나뉘어 진다. 총 농가의 23%가량이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산지는 전남, 경남, 제주등이다. 이중 제주는 전분용 고구마 생산으로 특화되어 있다.

생고구마는 현재까지 수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자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의 양을 수입하기로 했다. 우선 '95년 부터 최소시장접근에 의해 1988~90년도의 국내 평균소비량의 3%인 11,121톤을 수입하고, 2004년에는 국내평균소비량의 5%인 18,535

톤을 수입자유화 하게 되었다. 또한 관세부과는 쿼타량에 대해 현행관세율인 30%를 부과하지만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종가세로 428%를 부과하고, 2004년도에 가서는 10%가 감축된 38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2) 개방의 파급영향

제주지방에서 생산되는 고구마의 피해액도 감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95년에 제주지역 고구마 생산농가가 입을 피해는 약 79억 6천만원이고, 2001년에는 51억 6천만원이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 피해액은 459억 5천만원이다.

〈표 16〉 고구마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79.6	75.2	70.5	65.4	61	56.2	51.6

4. 쇠고기

1) UR협상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쇠고기는 2000년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쿼타에 의한 수입제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수입쿼타는 매년 차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는 현재의 20%에서 43.6%로 2배이상 높게 물릴 수 있게 하였으나, 2004년까지 40%로 감축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2001년이후는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 하기로 하였다. 또한 쇠고기 수입때 관세와는 별도로 내도록 한 부과금(Mark-up)을 차츰 줄여 2000년에는 없애기로 합의 했다.

이러한 협상 결과로 부터 앞으로 쇠고기 수입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한편 관세 및 부과금등으로 우리 쇠고기 가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의 가격도 점차 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한우 쇠고기의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이 자유화되는 2001년에는 41.2%의 관세만을 부과하여 수입이 자유화되므로, 그때의 수입 쇠고기의 국내 도매시장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 쇠고기 생산비가 국제가격의 3배수준임을 고려할때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생산비를 대폭 절감해야만 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우고기의 맛과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비절감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17〉 연도별 쇠고기 수입량과 수입조건

항목 년도	1993	1995	1997	2000	2001	2004
수 입 량	99천톤	123천톤	167천톤	225천톤	-	-
관 세	20%	43.6%	42.8%	41.6%	41.2%	40%
부과금 상한선	100%	70%	40%	0	0	0

2) 개방의 파급영향

UR타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쇠고기이다. 제주지역에서 축산농가가 입을 피해 역시 감자의 경우처럼 1988~92년 5개년간 평균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개방초기연도인 '95년도에 수입물량의 증가로 인해 쇠고기 가격은 현재보다 약간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는 38억 1천만원으로 예측된다.

〈표 18〉 쇠고기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38.1	54.6	55	64.4	79.6	78.4	93.6

수입이 자유화되는 2001년 부터는 외국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우육의

가격은 대폭 하락할 것이다. 2001년에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생산자잉여 감소는 93억 6천만원이다. 1995~2001년 7개년간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총 463억 7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

5. 돼지고기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돼지고기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과 같이 25%의 양허관세로 쿼타 물량을 수입하게 되었다. 수입쿼타는 정육기준으로 '95년 17,544톤, '96년 23,392톤, '97년 6월 30일까지 14,620톤이다.그러나 '97년 7월 이후에는 현행 25%의 관세율은 33.4%로 인상하면서 수입을 자유화 하게 되며, 인상된 관세율은 2004년까지 25%로 감축시켜야 한다.

'97년 6월까지는 수입물량이 제한되 있어서 우리 농가의 피해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내 양돈농가의 불안심리요인 등으로 양돈산업의 위축 및 영세농가의 탈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에는 수입이 자유화 되므로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지 않으면 개방으로 인한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 파급영향

감자 등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제주지역 양돈농가의 개방피해는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되었다.

〈표 19〉 돼지고기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25.1	31.8	38.4	83	81.3	79	76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쇠고기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그러나 돼지고기 생산자잉여 감소액이 쇠고기 생산자 잉여 감소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쇠고기 생산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소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대규모 양돈농가나 양돈단지에 비해 생산비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 초기연도에 제주지역의 피해액은 25억 1천만원이고,2001년에는 76억으로 예측된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피해액은 414억 6천만원이다.

6. 닭고기

1) UR협상 결과

UR 협상결과 냉동 닭고기는 '95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현행 20퍼센트로 되어 있는 관세율로 정해진 쿼타량 한도내에서 수입하도록 되었다. 즉 수입쿼타는 '95년 7,7000톤, '96년 10,400톤, '97년 6월까지 6,500톤이다. 그러나 '97년 7월부터는 관세율을 30.5퍼센트로 인상한후 자유화하여 2004년까지 20%로 감축하게 되었다.

닭고기 또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97년 6월 30일까지는 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화 이후에 수입 닭고기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양계농가는 고품질, 저생산비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일 때 국내 닭고기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개방의 파급영향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닭고기 수입개방의 피해는 생산비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규모 양계농가에 집중될 것이다.

개방초기연도인 '95년에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2억 3천만원이고, 2001년에는 1억 4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 7개년간 총 11억 5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돼지고기의 피해액은 양파, 참깨,콩 등과 함께 금액면에서 단순 비교할 때 타 품목에 비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표 20〉 닭고기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2.3	3.1	4	0	0	0.7	1.4

7. 마늘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마늘은 '95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되, 총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물량을 현재의 50%관세율로 수입하고, 2004년에는 쿼타량을 국내소비량의 5%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쿼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즉, 관세기준은 '195년에 400%(또는 2,000원/kg)이고, 2004년에는 360%(또는 1,800원/kg)로 줄이도록 합의 하였다.

수입개방이 될 경우 중국산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관세율로 인해 쿼타량이외의 수입물량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2) 개방의 파급영향

세계의 주요 마늘 생산국은 한국, 중국, 인도, 태국, 스페인이며,이들 국가에서 세계생산량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마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에서 10.2%, 생산량에서 1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개방시 예상되는 수입국은 중국이며, 기후, 수송거리, 인건비 등을 고려할때 중국에서 생산되는 마늘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다.

〈표 21〉 마늘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21	5.5	20.6	17.4	20.9	14.7	21.9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간 총 122억원으로 예측되었다. 개방초기연도인 1995년에 마늘 생산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21억원이고,2001년에는 21억 9천만원이다.

8. 양파

1) UR협상결과

UR 협상결과 양파는 고추와 마찬가지로 '95년부터 현재의 50% 관세율로 국내 총소비량의 3%를 수입하고, 10년동안 차츰 늘려서 2004년에는 총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을 쿼타로 수입해야 한다. '95년의 쿼타량은 12,369톤이고, 2004년은 20,645톤이다.

그러나 쿼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 했다.

양파는 중국, 대만, 뉴질랜드, 네델란드, 호주 등으로 부터 신선상태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쿼타량이상의 수입은 국내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 그러나 쿼타량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양파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가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의 파급영향

〈표 22〉 양파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1.9	1.2	1.7	1.6	1.8	2	2.1

개방초기년도인 1995년에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억 9천만원이고, 2001년에는 2억 1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감소액은 1995~2001년간 총 12억 3천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양파의 시장개방으로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NTC 품목과 비교할때 제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양파의 자급률이 현재 100%의 완전 자급수준이고, 쿼타량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 150%의 고관세율을 부과하므로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MA물량이 현행 50%의 관세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양파의 경우 저장성이 약하고, 저온저장시설의 저장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양파의 경우 국내산 양파에 비해 신선도등 품질 면에서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MMA물량 이상의 수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9. 맥주맥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맥주맥은 1995 2004년의 10년간 CMA를 허용하고, TE의 10%이상을 매년 감축하도록 되었다. 쿼타량은 '95년에 3만톤, 2004년에 3만톤으로 합의 되었다. 쿼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570%, 2004년도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맥주맥은 수급계획량 범위내에서 농가생산량을 모두 수매한 후 부족되는 물량에 한해 수입이 허용될 것이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의 파급영향

〈표 23〉 맥주맥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43.7	50.4	58.4	67.1	75.9	85.6	95.9

국내산 맥주맥 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맥주회사측은 수입 맥주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등으로 부터 점차 맥주맥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저하되고 있다.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이행 초기연도인 1995년에 43억 7천만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이행 7년후인 2001년에 95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제주지역 맥주맥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1995~2001년간 총 477억원으로 계측되었다.

10. 콩

1) UR협상결과

UR협상결과 콩은 1995-2004년의 10년간 CMA를 허용하고, TE의 10%이상을 매년

감축하도록 타결되었다. 초기년도인 '95년도에 5%의 관세로 1,032,152톤을 그리고 최종년도인 2004년에도 동일한 물량과 관세로 시장을 접근하도록 합의 되었다. 그러나 시장접근 약속물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541%의 관세를 그리고 2004년도에는 487%로 점차 줄여 나가도록 되었다.

콩은 현재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수입개방이 될경우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여 생산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표 24〉 콩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10.9	10.6	10	9.3	8.4	7.2	5.9

콩 시장은 현재로 자급률이 12.2%로 낮지만, 개방초기연도인 1995년에 9%, 이행기간 7년차인 2001년에는 2.9%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행 초기연도인 1995년의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0억 9천만원으로 예측되었고, 이행기간 7년차인 2001년에는 5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장개방에 의한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1995~2001년간 총 62억 3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11. 참깨

1) UR협상결과

UR에서 참깨의 개방조건은 양념류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가격차 수준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자유화하는 것이다. 수입 쿼타로 MMA물량을 1995년에서 2004년까지 매년 6,731톤으로 하고, 관세율을 현행수준인 40%로 하기로 하였다.

쿼타량 이상의 수입에 대해 초기년도의 관세율은 700%이고, 2004년까지 670%로 감축하도록 되었다. 단, 종량세로 할 경우 '95년도에 kg당 7,400원으로 하고, 2004년

도까지 kg당 6,700원까지 감축시키도록 되었다. 국내산 참깨 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1986－91년 6개년간 평균가격의 약 12배 정도로, 시장개방이후 외국산과는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참깨의 자급률은 1995년의 34.7%에서 2001년의 11.6%로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방 파급영향

1995～2001년 7개년간 제주지역 참깨 생산농가가 입을 총 피해액은 41억 8천 만원으로 계측된다. 특히 개방 초기연도인 1995년에 피해액은 7억 3천만원으로 가장 크고, 2001년에 피해액은 4억원으로 하락할 것이 예측된다.

〈표 25〉 참깨의 개방피해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자잉여감소(억원)	7.3	7.1	6.7	6.2	5.6	4.9	4

12. 제주지역 농축산물의 품목·연도별 개방피해

19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의 11개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1995～2001년 7개년간 총 1조 409억 4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표26 참조〉 생산자잉여 감소폭이 정규적으로 증감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감귤의 해걸이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해걸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표11〉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 시·도별 피해액을 보여 주었다. 이 표에서 1995년 제주도의 개방피해는 1,002억 3천만원이었다. 이 피해액은 5년간의 평균비율을 이용하여 예측한 피해액 1,011억 6천만원과 근접하게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계산한 피해액이 예측방법상의 특성 때문에 파급영향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표 26〉 품목 · 연도별 개방피해

생산자잉여감소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計
오렌지 및 감귤류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7949
감자	35.7	42.3	49	56.2	63.2	70.8	78.5	395.7
고구마	79.6	75.2	70.5	65.4	61	56.2	51.6	459.5
쇠고기	38.1	54.6	55	64.4	79.6	78.4	93.6	463.7
돼지고기	25.1	31.8	38.4	83	81.3	79	76	414.6
닭고기	2.3	3.1	4	0	0	0.7	1.4	11.5
마늘	21	5.5	20.6	17.4	20.9	14.7	21.9	122
양파	1.9	1.2	1.7	1.6	1.8	2	2.1	12.3
맥주맥	43.7	50.4	58.4	67.1	75.9	85.6	95.9	477
콩	10.9	10.6	10	9.3	8.4	7.2	5.9	62.3
참깨	7.3	7.1	6.7	6.2	5.6	4.9	4	41.8
計	1011.6	851.8	2112.3	1036.6	2143.7	969.5	2283.9	10409.4

◎ 제 1 부

— 제 2 주제 발표 —

開放化時代에 濟州農業의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金 璟 宅

濟州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敎授

Ⅰ. 서 론

Ⅱ. 감귤 수입개방대책 수립

1. 국제경쟁력 비교
2. 2001년의 발전지표
3. 감귤유통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4. 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Ⅲ. 농수산물 수출증대 방안

1. 현 황
2. 농산물 수출촉진전략

Ⅳ. 농외소득 증대 사업

1. 농외소득 현황
2. 2차산업과 관련된 농외소득사업
3. 관광과 관련된 도·농통합 농외소득사업

Ⅴ. 결 론

Ⅰ. 서 론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종결을 선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출범을 위한 UR최종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시작했던 UR협상이 7년 여만에 종지부를 찍는 것과 동시에 전후 47년동안 국제무역질서를 다스려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체제가 내년 1월 신설되는 WTO체제로 대체되게 됐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이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물론 산업구조까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UR이 타결됨으로써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의 주요한 농작물인 감귤 등 15개 NTC 품목이 개방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방으로 인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의한 생산위축과 탈농현상의 가속화로 제주지역의 농업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수입개방의 첫해인 1995년에서 2001년까지 7개년 동안 제주지역 농축산물 생산 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총 1조 4백 8억 4천만원으로 예측 되었다.

값싼 외국농산물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제주지역 농업의 금후 육성방향은 첫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비의 대폭적인 감축과 둘째, 고품질·고선도 상품의 생산 셋째, 전업농의 육성 넷째, 수출농업의 육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UR에 따른 국내외적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감귤수입개방대책, 일본시장을 겨냥한 농축산물 수출증대방안,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의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증대방안 등에 관해 살펴 보려고 한다.

Ⅱ. 감귤 수입개방대책 수립

감귤은 제주지역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감귤산업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고, 농업조수입의 67%이다. 그러면 수입개방이 될 경우 감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후에,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해 제안해 본다. 또한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살리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촉진전략을 살펴 보겠다.

1. 국제경쟁력 비교

현재 우리나라는 Orange류를 일부 수입하고 있으나 그래이프후르트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래이프후르트 수입인 경우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지만 오렌지수입가격에 관한 자료는 분석의 편의상 일본 것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서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일본의 오렌지 수입가격(CIF가격)을 한국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본다.

〈표 1〉 한국의 경락가격과 그래이프후르트 및 오렌지의 수입가격 비교

년도	경 락 가 격	그래이프후르트수입가격	오렌지수입가격(日本)
'89	402	590	NA
'90	895	767	767
'91	1,010	776	1,366
'92	513	765	722

자료 : 경락가격 : 농협중앙회 제주도 도지회,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1994
그래이프후르트 수입가격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4
오렌지수입가격(일본) : 日本青果物輸入安全推進協會, 1992年度 輸入青果物統計資料

1991년 그래이프후르트 kg당 수입단가는 776원이고, 오렌지는 767원이다. 이것은 물론 CIF가격이며, 여기에 현재 정해져 있는 오렌지 수입관세를 50% 추가시킨다면

각각 1,164원, 1,151원이 된다. 그런데 제주감귤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991년인 경우 최근들어 가장 값이 좋았던 1,014원이었다.〈표1 참조〉 그러므로 제주감귤은 생산비 면에서는 미국, 브라질과 비교할때 상당히 열세에 있지만, 가격면에서는 수입오렌지류와 비교해볼때는 열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생산비는 미국, 브라질에 비해 훨씬 비싼데 경락가격이 수입가격과 비교해 싸다는 얘기는 제주감귤농가가 출혈을 감수하면서 출하시키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수입가격이 경락가격보다 비싼 이유중의 하나는 운임, 보험료등 제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감귤농가의 출혈에 의한 경락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가 수입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1989년인 경우 가격면에서는 수입 그레이프후르트와 비교할때 제주감귤이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1989년의 경우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감한 총수익은 10a당 24,256원이 적자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입개방으로 인해 물량이 늘어나 1989년 가격수준이하로 떨어진다면 그 피해액은 엄청나리라고 생각된다.

2. 2001년의 발전지표

정부는 1994~2001년까지 8개년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을 위해 총 7조 3,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2조 2,403억원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감귤수입개방대책의 수립을 위해 1994~2001년 8개년 총 9,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 투자가 완료되는 2001년에 감귤산업이 지향하는 발전지표를 살펴보겠다.

1) 적정생산 : 650천톤 이내

- 원지정비 및 부적지정비를 시행하면서 재배면적 20천 *ha*를 유지한다.

2) 품질향상 : 당도 12BX°, 산도 1.0% 이하

- 품종갱신(5,000*ha*), 간벌(10,000*ha*), 시설재배(1,200*ha*)
- 품종체계조정(극조생 10%, 조생 65%, 보통 20%, 만감 5%)

- 토양 및 수체영양진단사업의 추진 : 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토양 조건과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분석과 잎분석을 전수 실시하여 토양관리 및 시비기준을 설정하고 처방하므로써 품질의 향상과 경비를 절감한다.

3) 생산비 절감 : 22%(기계화 촉진)

- 약재 살포작업 기계화 : 스프링쿨러 10,000*ha*, 고성능방제기 500대
- 과원내 운반시설 설치 : 경사지나 출입이 어려운 감귤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생산자재 및 과실운반을 생력화 시켜 경비를 절감한다.

4) 유통기반 시설의 확충

- 저장시설(222천평→360천평)
- 선과시설의 대형자동화(34개소)
- 예조시설(400천평) : 감귤원내 간이 예조시설 설치로 상품성을 높이고 저장능력을 향상시킨다.

5) 수요확대

- 군납(3,000㎏ 이상), 대도시 직판장(10개소)

6) 수출시장개척 : 20천㎏ 이상

- 수출시장다변화(캐나다→미국, 동남아, 동구권, EC등)
- 수출단지조성(6개소)

7) 관련산업육성

- 유기배합비료공장(6개소)
- 감귤박 처리 공장(5개소)
- 포장상자공장 시설개선(1개소)
- 가공제품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3. 감귤유통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 생과용 감귤의 시기별, 소비지역별 출하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귤은 성출하기인 10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집중출하가 됨으로써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통처리 역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지역별 감귤출하의 과잉, 과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2) 가공용 감귤은 수급조절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파치=가공용 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농가에서 생산만하면 파치든 뭐든 가공용으로 수매될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감귤의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을 하여서는 우리 감귤농가 전부가 공멸하는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 부터 적과를 철저히 하여 가공물량을 축소시키고, 가공용은 불량품의 처리수단이 아니라 수급조절과 부가차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3) 유통기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대형선과기의 도입(유통비용의 절감과 공동출하의 유도를 위해 필요),

(2) 저온저장고시설의 확보

(3) 상온저장고시설의 확충

4) 감귤 또는 농산물 출하조절센터를 소비지시장에 설치한다.

이 시설은 국내에 출하하는 감귤물량의 조절과 만약 도난 생산자단체에서 수입권을 갖는 경우 수입물량에 대한 판매조절기능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다.

5) 수송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수송기술의 혁신 : 수송도중에 취급상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부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테이너를 이용한 수송 등 수송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2) 수송차량 및 선박의 확보

(3) 항만시설의 확충(실지로, 콘테이너 수송전용선의 부두접안시설이 미비하여 운송비용을 절감 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제주도에서 부산항까지 직송체제 구축) 등

4. 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우리가 미국으로 온주밀감을 수출 할 때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kg당 2.2센트(약 18원)로 종량세가 부과된다. 이것을 관세율로 바꿔서 말한다면 약 2.5% 정도인 저율관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로서 우리나라 보다는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들 국가로의 수출전망은 밝다고 본다. 여기서는 미국시장의 개척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수출시장 확대방안에 대해 논해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상품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시장으로서 미국에서 팔리는 상품은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촉진활동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도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품목별로 다각적인 해외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해외무역청에 의하면 미국과일 수출증가의 원인을 고급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감한 수출 촉진활동, 기술 개발 및 수송개선, 수입국의 수입제한 축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 촉진활동임은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출 잠재성이 큰 미국시장의 공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 및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1차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소비자 계층은 한국 교포 이외에 중국계 등 동양계 이민사회이고, 2차적인 대상은 히스페닉, 흑인 그리고 서양계 미국인 들이다. 이들 소비자계층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기호와 경쟁관계 등을 검토하여 시장

전망 또는 시장확대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전시회에 제주산 감귤을 출품하고,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에서 청과업을 경영하는 재미 한국 교포들을 초청하여 제주산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감귤을 시식하는 코너 등을 이용한다. 또한 수출되는 제주산 감귤은 「한국 감귤(Korean Citrus)」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물량 생산공급을 위한 대책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출단지의 조성을 서둘러서 완료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원읍 의귀리에 55*ha* 규모로 1개 단지가 조성중에 있는데 여기서 약 1,65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격 사이즈를 선별해서 수출하려고 할때, 그 물량은 약 1,000톤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001년까지 총 6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적어도 오렌지 완전히 수입개방이 되는 97년 7월 까지는 단지 조성을 앞 당겨서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 시켜야 한다. 현재 캐나다로의 감귤수출은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한 업체에게만 수입권을 줌으로써 수출가격 및 수출물량 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출은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수요·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생산자 단체는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해 주는 역활만 담당한다. 다시말하면, 수출창구는 일원화 시키되 수입선은 다변화 시켜서 한 업체에게만 수입권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출 전용선박의 구입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 수출 전용선박을 구입함으로써 수송비용의 절감, 농업용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전용 선박의 구입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항만시설의 확충이다. 현재 수출콘테이너 전용 부두접안시설이 미비하여 검역은 제주검역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부산세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

정이다. 즉, 제주세관을 통한 통관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지만 항만시설의 미비로 제주항에서의 직수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수출전용선박의 구입과 함께 검역, 통관 등 수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제주지역에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산 감귤의 약용효과를 홍보한다. 미국인들은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가 그 어느나라보다 높은바, 제주산 감귤의 성분을 약리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약용효과가 있음을 집중홍보하면 수요창출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미시장 개척자금 및 수출보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과실류 시장개척자금을 운용하여 제주산 감귤의 대미시장 개척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손실 보전기금은 감귤의 수급불안으로 국내가격이 수출가격을 일정수준이상 상회 할 경우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주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감귤산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생존전략으로서 수출확대 방안에 관해 알아 보았다. 현재는 위기에 처한 제주 감귤산업을 살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모두 지혜를 모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시장개척에 눈을 돌려야 할 귀중한 시점이다. 따라서 94년 한해는 95년 부터 시작되는 수입개방을 보다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를 갖추는 첫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II. 농수산물 수출증대 방안

'95년부터 시작되는 수입개방의 파고는 품목에 따라서는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예를들어 수입개방이 되는 1995~2001년 7개년간 감귤 생산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7,949억원이다. 이것은 단일품목이 단일지역에서 입는 피해로는 전국 최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은 우리 제주농업이 장·단기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한 방향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의 농업여건이나 농수산물 유통구조 특성에 견주어 수출농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유통단계에서도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포장기술 또한 저급한 실정에서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이 쉬운 과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세계 최대의 농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을 바로 옆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을 92년도에 약 554억 6,900만 달러의 농림수산물을 수입하였고, 93년도에는 약 600억 달러를 수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본인의 구미에 맞는 품종을 재배하고 규격화만 이루어낸다면 수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을 필두로 미국시장으로의 유망 농산품 수출전략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현황

1) 전국 수출현황

○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공업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힘입어 1970년 8억불에서 1993년 824억불로 23년간 103배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표2 참조〉

○ 그러나 성장전략에서 소외되어온 농림수산업은 1970년 2억불에서 1993년 31억불로 약 15.5배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 총 수출에서 농림수산업의 수출비용은 1970년 32%에서 1980년 10%, 1993년 3.8%로 급격히 감소하여 농림수산업이 수출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극히 낮아지고 있다.

〈표 2〉 농림수산물 수출의 변화

(단위 : 백만$)

구 분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연평균 증가율(%)
전체수출(A)	34,714	60,696	65,016	71,870	76,632	82,400	12.5
농림수산물(B)	2,044	3,157	2,920	2,986	2,888	3,100	4.8
농축산물	429	705	795	756	800	–	10.2
채소류	12	14	10	18	15	–	2.3
과실류	12	46	43	34	36	–	13.6
축산물	23	77	68	59	84	–	18.6
조제식품	76	178	192	214	245	–	21.3
기호식품	281	368	448	386	362	–	4.7
임산물	333	541	610	587	570	–	7.8
목재류	97	116	126	104	90	–	– 3.0
수산물	1,282	1,911	1,515	1,643	1,518	–	1.7
원양어획물	465	289	295	310	322	–	– 9.4
활선어	254	601	428	472	301	–	4.4
수산가공식품	72	362	326	321	243	–	27.6
B/A(%)	5.9	5.2	4.5	4.2	3.8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개방화·국제화로 농림수산물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출은 정체되어 있어서 농림수산물무역수지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현재 약 43억불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 농림수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전체 무역수지적자 51억불의 83%를 차지하는데 이것으로 볼때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을 농림수산물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 $)

구 분		1985	1990	1991	1992	증가율(%)
수 출	전 체	30,283	65,016	71,870	76,632	6.6
	농 림 수 산 물	1,543	2,920	2,986	2,888	−3.3
수 입	전 체	31,136	69,844	81,557	81,775	0.3
	농 림 수 산 물	2,511	5,789	6,931	7,147	3.2
무역수지 적 자	전 체(A)	853	4,828	9,687	5,124	
	농림수산물(B)	968	2,869	3,945	4,258	
	B/A	1.13	0.59	0.41	0.83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림수산물 수출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다. 특히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약 60~70%로서 제일높고, 미국에 대한 비중이 약 7~10%, EU지역 비중이 6~7%, 기타지역 비중이 약 15~20%이다.

○ 농림수산물 수출의 대일 편중 현상이 심한 이유는 지리적 이점이 클 뿐만 아니라 일본이 농림수산물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 태국, 대만등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수출 증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의 농림수산물 수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4〉 농림수산물 수출시장의 변화추이

(단위 : 백만 $, %)

구 분	1986	1988	1990	1991	1992	연평균증가율
일 본	1,261 (61.7)	1,997 (63.3)	1,923 (65.8)	1,944 (65.1)	1,937 (67.0)	6.1
미 국	255 (12.5)	328 (10.4)	230 (7.9)	210 (7.0)	189 (6.5)	- 8.9
E C	NA	188 (6.0)	210 (7.2)	201 (6.7)	183 (6.3)	- 0.7
대 만	31 (1.5)	91 (2.9)	97 (3.3)	98 (3.3)	81 (2.8)	14.9
태 국	6 (0.3)	28 (0.9)	39 (1.3)	45 (1.5)	60 (2.1)	42.3
싱 가 폴	17 (0.8)	34 (1.1)	34 (1.1)	23 (0.8)	28 (0.9)	2.1
카 나 다	16 (0.8)	26 (0.8)	22 (0.8)	24 (0.8)	25 (0.8)	9.6
호 주	15 (0.7)	24 (0.8)	17 (0.6)	17 (0.6)	18 (0.6)	1.2
사 우 디	26 (1.3)	14 (0.4)	7 (0.2)	17 (0.6)	22 (0.7)	- 3.6
농림수산물합계	2,044	3,157	2,920	2,986	2,888	4.8

주 : 1. (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연평균 증가율은 1986/87년에서 1991/92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전국 수출액의 점유율

○ 전국 수출액에 대한 본도의 '93 점유율은 전체적으로는 0.09%,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0.90%에 불과한 실정이다.〈표5 참조〉

○ 본도의 '94 수출증가율은 10.7%로서 전국 수출증가율(9.2%)을 상회 할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매년 감소 추세임에 비하여 본도는 급증하고 있어 '94 점유율이 1.10%로 증가될 것이 전망된다.

〈표 5〉 전국대 제주도의 수출액 점유율

(단위 : 백만$)

구 분		'93 실적	증 가 율	'94 전망	증 가 율
전 국	전 체	82,444	증 7.4%	90,000	증 9.2%
	농수산물	3,100	△ 4.5	3,000	△ 3.2
제 주	전 체	75	증 87.5	83	증 10.7
	농수산물	28	증 27.3	33	증 16.4
점 유 율	전 체	0.09%	-	0.09%	-
	농수산물	0.90%	-	1.10%	-

자료 : 제주도

3) 제주농수산물의 수출현황

○ 한국의 농산물은 과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 수출액의 1% 수준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출기반이 미비한데다 자금지원 및 해외시장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출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농수산물의 수출현황은 〈표6〉과 같다. 1993년 구성비율을 보면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5%, 그리고 수산물 수출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연 평균 성장율을 보면 농산물이 75%로서 수산물 1%에 비해 높다.

○ 농·수산물등 1차 산품의 수출은 '90~'92까지 본도 전체 수출액의 65%를 점하고 있었으나, '93에는 38%를 나타내고 있음(이것은 엔고 현상으로 인한 공산품 내국수출 비중의 증가 때문임)

○ 전체 수출은 '90년이후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농·수산물은 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 천$)

구 분		'90	비 중	'91	비 중	'92	비 중	'93	비 중	연평균 증가율%
전 체		36,098	100%	37,895	100%	40,265	100%	75,246	100%	28%
1차산업	소 계	25,587	71%	25,389	67%	22,937	57%	28,345	38%	4%
	농산물	673	2%	2,287	6%	4,374	11%	3,538	5%	75%
	수산물	24,446	68%	22,642	60%	17,956	44%	23,472	31%	1%
	축산물			—		—		565	1%	
	임산물	468	1%	460	1%	607	2%	770	1%	8%
공산품*		10,511	29%	12,506	33%	17,328	43%	46,901	62%	76%

* 공산품의 경우 도내 면세품점 또는 토산품점에서의 내국수출에 불과함.

자료 : 제주도

○ 현재 농산물의 수출은 건조채소류가 주를 이루고, 그 시장은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시장의 규모에 비교해 볼때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수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시장에의 수출확대는 전망이 밝다고 본다.

○ 수산물의 수출은 넙치, 소라, 전복이 주를 이루고 잇으며, 그 시장또한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4) 국가별 수출동향

○ 농·수산물의 수출대상국가는 일본, 캐나다, 러시아, 대만등 4개국이나

○ 농수산물의 전체 수출액중 95%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

• 캐나다, 러시아 : 감귤 수출

• 대 만 : 감귤과립쥬스 수출

〈표 7〉 대일본 수출실적

(단위 : 천 $)

구 분	수 출								
	전 체(A)			대 일 본(B)			A : B		
	'91	'92	'93	'91	'92	'93	'91	'92	'93
계	25,389	22,937	28,345	24,929	21,513	26,984	98	94	95
농 산 물	2,287	4,374	3,538	2,287	2,955	2,177	100	68	62
수 산 물	22,642	17,956	23,472	22,642	17,956	23,472	100	100	100
축 산 물	–	–	565	–	–	565	–	–	100
임 산 물	460	607	770	–	607	770	–	100	100

자료 : 제주도

5)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현황

○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92 일본전체수입액(233,021백만$)중에서 농·수산물 수입액(55,952백만$)이 24%를 차지할 정도이다.

○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액 기준으로 볼때, 한국에서는 3.5%가 수출되고 있으며, 본도는 한국전체 수출규모중에서도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8〉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구 분	일 본 수 입 액('92)			비 율	
	계	대한국(B)	대제주(C)	A : B	B : C
계	55,952	1,970	22	3.5	1.1
농·축산물	31,830	345	3	1.1	0.9
수 산 물	13,255	1,149	18	8.7	1.6
임 산 물	10,867	447	1	4.4	0.2

자료 : 제주도

○ 일본시장에서의 1차산품 주요수출 경쟁국가는 중국, 뉴질랜드, 네델란드, 대만 등이다. 위 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산품은 〈표9〉와 같다.

〈표 9〉 주요 수출경쟁국가 및 품목

경 쟁 국 가	품 목
중 국	버섯류, 건채류, 수산물
뉴 질 랜 드	토마토, 파리고추, 밤호박
네 델 란 드	화 훼 류
대 만	돼지고기

○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은 주로 미국으로 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92년 현재 순위는 9위이며 수출액수로는 18억달러(3%)이다.

〈표 10〉 주요국별 농림수산물 수입실적('92 상위10개국 기준)

순위	국 명	1990		1991		1992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전년비
1	미 국	165	32.9%	156	31.4%	177	31.7%	107.1%
2	중 국	29	5.8%	35	6.6%	39	6.9%	110.3%
3	캐 나 다	35	6.9%	34	6.4%	37	6.7%	111.0%
4	호 주	35	7.1%	36	6.8%	36	6.4%	100.0%
5	대 만	25	5.0%	29	5.7%	33	5.8%	109.0%
6	태 국	21	4.2%	25	4.8%	28	5.0%	110.1%
7	인도네시아	22	4.4%	23	4.3%	24	4.2%	103.1%
8	말레이지아	22	4.3%	22	4.2%	23	4.2%	107.2%
9	한 국	17	3.3%	17	3.3%	18	3.1%	101.2%
10	프 랑 스	11	2.1%	12	2.3%	12	2.2%	99.3%

자료 : 제주도 농촌진흥원

6) 제주산 농산물과 일본산과의 비교

○ 〈표11〉에서 비교한 11개 품목중 닭고기를 제외한 10개 품목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2년 엔화환율이 아니라 '94년 현재의 엔화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일본농산물의 평균가격은 한국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 제주 주요작목의 일본산과의 평균가격 비교('92)

구 분	한 국	일 본	구 분	한 국	일 본
	원/kg	엔/kg		원/본	엔/본
1. 감 귤	895	358 (358) 〔2,757〕	7. 백 합	360	153 (964) 〔1,177〕
2. 마 늘	1,316	1,579 (9,948) 〔12,158〕	8. 거 베 라	200	67 (422) 〔516〕
3. 양 파	225	64 (403) 〔493〕		원/kg	엔/kg
4. 양 배 추	198	95 (599) 〔732〕	9. 쇠 고 기	9,304	2,032 (12,802) 〔15,646〕
5. 당 근	735	184 (1,159) 〔1,417〕	10. 돼지고기	2,738	523 (3,295) 〔4,027〕
6. 감 자	580	136 (857) 〔1,047〕	11. 닭 고 기	1,771	239 (1,506) 〔1,804〕

※ 한국 : 전국도매가격(과실·채소류 : 중품)-'92. 농수산물가격동향

가락동도매가(축산물 : 상품)-'92. 농축수산물가격동향

※ 일본 : 도쿄 오다시장경락가(화훼 : 최고 · 최저 평균가격, 채소 · 과실류 : 중간가격)-일본농업신문

동경지역 지육가격(축산물 : 최고 · 최저 평균가격)-일본농업신문

( )는 일본평균가격 * 6.3('92. 환율평균)=원화 환산한 금액임(단위 : 원)

〔 〕는 일본 평균가격 * 7.7('94. 4 현재 환율)=원화 환산한 금액임(단위 : 원)

자료 : 제주도농촌진흥원

7) 제주농수산물의 수출여건

○ 최근의 엔고현상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제반 수출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여건은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다.

○ 그러나 각종 생산품의 다양성 결여 및 일본에 편중한 수출형태를 띄고 있어서 일본 수출시장에 문제가 생겼을때 농 · 수산물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입힐 것이다. 즉, 수출지역의 편중이 해당 수입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다.

8) 제주농산물의 수출전망

○ UR이 타결됨으로써 한국농산물의 적극적인 수출이 요망되고 있으며, 제주의 주요농산물의 과채류인 점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제주 농산물의 수출전망은 매우 밝은 실정이다.

○ 특히 농산물수입개방에 의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농산물시장은 제주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는 최적지이며, 특히 일본의 채소류 수입시장에 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제주의 입지조건과 농업생산구조면에서 일본시장에의 적극적인 진출은 제주농산물의 국외시장 수요창출이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 최근 일본의 채소류수입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양파, 딸기(신선 및 냉동), 수박,

양배추, 배추, 당근 및 일부 채소류 품목은 현재로서도 수출이 가능하며, 브로컬리, 생식용 꽃, 국화 등 일부절화류의 상품개발 역시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직접수출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수출품목 수송 등 물류비용의 과다부담
-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격차 발생시 수출물량확보의 곤란
- 제품의 품질유지 곤란 : 선별의 미숙과 인식부족으로 규격화 등급화 곤란
- 포장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
- 수출규격품 생산의 기술부족
- 수입국의 기호 및 소비형태에 적합한 품종재배에 대한 불안
- 수입국의 통관, 검역, 시장등에 관한 정보 및 제도적지원의 부족
- 단순한 가격경쟁만을 갖는 저품질농산품의 경우 중국과 경쟁하기 힘든 요인의 존재

○ 그러므로 거대 농산물수입국인 일본시장의 개척은 입지적 자연적 조건으로 보아 매우 우리하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리한 입지조건과 생산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시장에 신선채소, 화훼 등의 고급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계획을 추진한다.

2. 농산물 수출촉진전략

앞에서 살펴본것처럼 농림수산물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져 그 중요성이 희석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위기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농림수산물 수출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출촉진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수출농산물생산단계

○ 수출단지의 조성 및 시설기반 조성지원

- 품목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수출촉진단지를 우수농가를 중심으로 형성한다.
- 생산기반의 정비, 시설투자를 추진하는데 있어 각종 융자, 조세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한다.

○ 수출품목의 개발 연구 및 기술지도

- 새로운 품종의 도입, 재배기술시험을 도진흥원,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한 후 그에 대한 기술보급을 단지내 농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 수출작물용 우수종묘를 지원한다.
- 통관 및 검역에 관계되는 약제방제에 관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2) 상품성제고를 위한 시설 및 기술지원

○ 수출용 농산물의 가공, 선별, 포장, 저장을 위한 시설지원

○ 단계적인추진 계획에 의해 수출전용 가공, 포장, 저장시설을 설치

3) 수출위험부담의 해소

○ 초기에는 수출손실보전을 시행하고, 점차 자체 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

4) 수출전담조직에 의한 단계적인 수출 촉진사업 추진

○ 시장개척 : 수입국시장의 정보수집 및 분석, 수출품목의 선정, 수입국과의 계약추진

○ 생산관리 : 수출주산단지의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생산자단체의 품질관리

○ 시험수출 : 규격, 물량, 품질보장으로 신용의 확보

○ 단계적인 수출확대 : 수출물량확대, 신품목 개발

5) 행정상의 지원

○ 수출전담조직에서의 각종 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수립

6) 대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위생검사 면제를 정부차원에서 추진

○ 1992년 10월 국내,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 국내의 공식기관으로 부터 발급하는 수출위생검사 결과를 첨부하면 일본 통관시 각종 위생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타결되었다.

○ 이를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의하도록 요구한다.

○ 즉,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주의 국립식물검역소로 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 통관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간 교섭을 추진토록 요구한다.

7) 품목별지원

○ 공통부문

- 수출지원전담조직에 의한 제반 전문업무지원
- 수출작목의 개발과 생산단지화, 생산자조직화
-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해외시장분석 및 시장개척
- 수출품 유통개선 : 저온 및 냉동창고,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 해외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확대 : 수출전진기지로 확보하여 장기적인 수출기반의 구축
- 수출전략품목개발 : 국내생산여력이 충분한 품목으로서 국제적인 교역신장 전망, 정책지원을 했을 때의 수출신장 가능성, 농가소득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

○ 화훼류

- 국화 등 일부 절화류, 분화류의 대일시장 개척
- 수입대체작목으로 육성한 구근의 수출개척
- 소품목 계약재배의 고급화훼의 수출 : 생식용 꽃등
- 시험수출과 품질향상을 통한 판로 개척

- 선인장은 국내기술로 신품종, 개량품종 육성가능하며 세계적 우수성 인정으로 수출확대 가능

○ 채소류

- 입지조건을 고려한 대일시장의 집중적 개척
- 대일시장의 수출가능 작목의 선정과 시험수출을 통한 단계적 수출확대
-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 제주항에서의 직수출 등을 통한 수출비용의 절감
- 대외 수출 신용도 증진 및 수출업체간의 과다경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체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농협, 가칭 "제주무역"이 이 역할을 담당)
- 생산자 단체중심의 수출품 품질관리 지도
- 대일시장분석을 통한 소형채소류의 재배기술보급 : 채소류의 소형화 고급화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기술지도사업 추진
- 가공채소류의 수출확대 : 완전가공, 반가공 등 가공을 통한 수출을 증대하며, 가공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도록 지원한다.

○ 축산물

- 양돈수출단지 조성
- 양돈계열화사업의 추진 : 사료제조업체, 육가공업체 등 전문경영주체로 하여금 농가와 계약하여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을 통합경영

○ 수산물

- 일본수산물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규모는 2001년에 약 3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수출공급기반의 확대 : 양식업, 원양어업, 수산물 가공산업 등
- 수출구조의 고도화 : 수출주도상품의 지속적 창출

8) 수출입업무전담 주식회사의 설립

○ 가칭 "제주무역"

○ 지방정부,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 농축수산물 수출관련 중소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수출입대행업체를 설립한다.

○ 제주농산물의 수출업무의 효율성 증대, 수출시장개척, 감귤수입대행 등 농축산물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감협은 오렌지 수입권과 판매권을 갖고 "제주무역"은 수입대행만 하게 되므로, 오렌지 수입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렌지수입으로 인한 제주 감귤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감귤수입으로 인한 이익금이 적합한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익금 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협은 감귤수입개방에의한 제주지역 농가의 피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익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Ⅳ. 농외소득 증대 사업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다른 지역의 산업구조와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지리적·자연적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특수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성장은 다른 지역에 상당히 뒤져 있으나 농업부문의 성장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이 높은 감귤과 특용작물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제주도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에 들어서면서 감귤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감귤농업은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더욱 지난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카시 각료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UR협정문에 최종서명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의 문이 '95년부터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물론 산업구조까지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지역 농민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한채 좌절감과 불안감속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농업문제는 단지 농업내부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관련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으로 인한 농어업소득의 일부 손실을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1. 농외소득 현황

○ 1988년말 현재 시·군별 호당 농외소득을 보면 제주시 2,277천원, 서귀포시 1,593천원, 남제주군 1,179천원, 그리고 북제주군 1,118천원 순으로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높다. 이것은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농외취업활동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 동 기간 중 시·군별 농가소득에 대한 농외소득 비율은 제주시 35.5%, 북제주군 21.8%, 남제주군 18.0%, 그리고 서귀포시 15.3%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농외소득이 군지역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이 감귤류를 비롯한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생산에 의한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 그러나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소득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농외소득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한다.

○ 1988년말 현재 제주도의 농가소득에 대한 농외소득의 비율은 21%이다. 이것은 동년도에 전국의 39.6%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로서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전국과 비교할 때 높음을 나타낸다.

○ 겸업소득의 경우 북제주군이 276천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가장 많다. 이는 농외취업활동의 기회가 적어 원시물취득에 의한 겸업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 시·군별 지역별로 보면 해안지역이 중산간지역보다 호당 평균 농외소득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중산간지역의 경우 해안지역보다 농외취업활동의 기회가 적은데 기인한다.

○ 1993년말 현재 제주도의 농가소득에 대한 농외소득의 비율은 34.2%이다. 이것은 동년도에 전국의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로서 여전히 제주도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타지방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 지난해 도내 농가의 호당 평균소득 2천 1백 12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 되었다. 이렇게 농가소득이 높은 이유는 제주도의 농업소득이 타지방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의 농가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의 비율은 65.%인 반면에 전국의 경우 49.8%밖에 안된다.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소득의 성장률이 농외소득의 성장률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표12 참조). 제주도의 경우 농외소득에 관한 연도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1·3차산업의 연계화 등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국의 증가추세를 좇을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 전국의 경우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부터 1993년까지 24년동안 24.2%에서 50.2%까지 상승하였다.

○ 따라서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농외소득의 증대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 한국과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의 농가소득대 농외소득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들 두 국가도 한국의 경우처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본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1년동안 그 비율이 63.4%수준에서 82.4%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동 연도에 한국의 43.2%에 비해서 1.9배나 높은 수준이다.
- 대만의 경우는 그 비율이 동 기간동안 51.3%수준에서 64.8%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비교할 때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표 12〉 우리나라 농외소득의 성장추이 (단위 : 천원, %)

연 도	농외소득(A)	농업소득	농외소득(B)	B/A
1970	356	194	62	24.2
1975	873	715	158	18.1
1980	2,693	1,755	938	34.8
1981	3,688	2,476	1,211	32.8
1982	4,465	3,031	1,434	32.1
1983	5,128	3,331	1,797	35.0
1984	5,549	3,699	1,850	33.3
1985	5,736	3,699	2,037	35.5
1986	5,995	3,677	2,318	38.7
1987	6,535	4,016	2,519	38.5
1988	8,130	4,912	3,218	39.6
1989	9,437	5,616	3,821	40.5
1990	11,026	6,264	4,762	43.2
1991	13,105	7,035	6,070	46.3
1992	14,505	7,356	7,149	49.3
1993	16,928	8,427	8,501	50.2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4. 6.

2. 2차산업과 관련된 농외소득사업

1) 농외소득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농공단지

□ 현황

○ 제주도는 1988년 9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지정면적 20,000평에 총 사업비 1,792백만원을 투자하여 구좌읍 행원리에 농공지구 19,816평을 조성하였다. 농공지구 입주업체는 9개업체이며, 이 중 2개업체만이 농·수산물 가공업체이다.

○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9개이며, 이들 입주업체의 고용인원을 보면 고용계획 인원 439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4명이다. 입주업체 중 한국남견과 삼다농수산만이 고용계획 인원을 초과했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계획인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 새로 조성된 대정읍 일과리의 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3,681백만원을 투자하여 34,870평을 조성하였다. 1992년 10월 현재 입주예정 17개 업체중 16개 업체만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업체는 선정중에 있다. 이들 16개 업체 중 7개 업체만이 농·수산물 가공업체이다. 이들 입주업체들의 고용인원은 210명이다.

○ 한림읍 금릉리에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농공지구 35,000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1993년 2월 현재 32개 희망 입주업체 중 14개업체만이 입주적합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14개 업체중 농수산물가공업체는 6개이고, 공산품제조업체는 8개이다. 총 입주계획업체의 수는 17개이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문제점

○ 행원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업체 중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2개뿐이다.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처리 기반을 확충함으로서 이것의 처리를 원활히 하려는 것이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은 농·축·수산품 가공단지라기 보다는 공산품단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현지 기능인력의 부족이다. 이것은 현지주민 고용률이 50% 내외인 것으로 미루어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동업체의 고용규모와 현지주민 고용률과는 역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계획인원을 전부 고용하려고 할 때는 현지주민들의 고용률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대부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공예품을 생산했던 태양무역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 농촌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이다. 제주지역 농공지구의 경우 현재 2개의 단지만이 조성되어 있고 가동률도 낮아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지구조성이 완료되고 완전가동이 될 경우,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해 농·수산물 수확과 어획고의 감소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나. 농어촌특산단지

□ 현황

○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사업은 1967년에 착수되어 1986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1,560개 사업장을 지정하였고 이 중에서 약 1,000여개의 부업단지가 지정취소되어 1986년말 현재 559개의 단지만이 남게 되었다.

○ 따라서 농어촌특산단지는 1990년에 기존의 농어촌부업단지를 획기

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지정·육성되어 왔다.

○ 농어촌특산단지 조성기준을 보면 대상지역은 농어촌지역이고, 단지당 참여호수는 10호이상이며, 참여는 출자, 임가공, 자가생산, 취업의 형태이다. 자금지원을 시설자금의 경우 연 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은 연 8%에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다. 대상업종은 민속공예품, 식료품, 섬유직물,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등이다.

○ 제주도의 경우 1992년 신규 지정된 1개 단지를 포함하여 현재 총 16개 단지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북제주군에 11개소, 제주시 3개소, 남제주군에 2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북제주군 지역에 단지가 몰려 있는 이유는 타 시·군에 비해 농업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농외취업 및 겸업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 16개 단지의 총참여농가호수는 339호이다. 품목별로는 민속공예품 9개와 식료품 4개이다(표13 참조).

○ 1990년도 이전에 지정된 9개 단지의 1989년도 호당 평균소득은 147만원이며, 단지별로 보면 먹구슬제품, 목각제품이 각각 340만원, 25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무우말랭이 특산단지는 각각 98만원, 50만원으로 농가간에 격차가 심한 편이다.

□ 문제점

○ 참여하는 농가들이 영세농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

○ 단지의 영세로 인한 기술의 낙후

○ 고유상품의 개발과 홍보노력의 미흡

○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력확보의 어려움

○ 저조한 가동률과 낮은 수익률

○ 야산채취원료를 이용하는 부업단지의 경우 재료확보의 어려움

○ 대부분의 부업단지에서 생산제품을 중간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중간상인들의 마진은 큰 반면에 생산농가들의 이윤이 적음

○ 민예품 등 값싼 중국산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생산의욕 저하

○ 농가부업형태로 소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어서 판매에 어려움

〈표 13〉 농촌 부업단지 일반현황

구 분	업종별	품목명	조성년도	참여호수
제주시	민속공예	수수비	'70	77
	민속공예	죽세품	'82	55
	민속공예	넝쿨제품	'83	15
북제주군	식료품	무우말랭이	'69	20
	민속공예	정동제품	'83	32
	민속공예	띠제품	'84	14
	민속공예	목각제품	'85	12
	민속공예	먹구슬제품	'86	16
	민속공예	돌하르방	'90	12
	민속공예	목각제품	'90	13
	식료품	수산가공	'90	10
	식료품	도라지·더덕절임	'91	11
	식료품	육가공	'91	10
	민속공예	패각제품	'92	10
남제주군	식료품	무우말랭이	'86	22
	민속공예	돌하르방	'91	10

자료 : 제주도청, 농어촌개발과, 1992.

다. 농·축·수산물 가공공장

□ 현황

○ 1990년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음식료 제조업체의 수는 80개소에 26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 제주도내 감귤가공업체의 수는 6개(해태, 롯데칠성, 일화, 팽귄, 서라벌, 제주)이다. 이중 롯데칠성과 해태가 전체 가공용 수매량의 80%이상을 차지한다. 감귤을 원료(제주식품의 경우 소량의 파인애플을 원료로 사용)로 대부분 1차 가공하고 있으며, 전체 처리능력은 1일 820톤 정도이다.

○ 1990년 현재 제주도내 전분가공업체의 수는 29개소이며, 북제주군에 7개소, 남제주군에 22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고산과 대정단위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소와 비교적 규모가 큰 2개소 등 4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영세하고, 또한 공장폐수의 처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제주도내 당근, 양파 생산은 전국대비 비중이 높고, 그외 파, 양배추, 쪽파, 대파, 마늘등도 생산량이 많아 일부는 인스턴트 식품첨가물인 건조채소 가공원료로 이용된다. 제주지역에 이러한 채소류 가공업체의 수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가공업체의 수는 10개 업체 및 4개 단지(함덕, 신촌, 남원, 표선)이다.

□ 가공공장의 문제점

○ 금융지원상의 문제점

○ 생산량의 저조로 절대물량의 부족시 원료구입의 어려움

○ 가동시기가 감귤 및 월동채소류 수확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 산업폐기물과 폐수처리 문제

○ 지역생활권과의 연계성

○ 40여종의 인·허가 사항 등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규제가 심함

2) 농외소득원 사업 개발

가. 농공단지 육성 및 개발방안

○ 도와 해당 시·군의 주무부서에서 관장하여 입주업체의 분양계약시부터 입주후의 인력고용사항을 파악하고, 현지인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 연계시켜 주며, 부족한 인원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인력확보와 연계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홍보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또한 입주업체들의 경우 기술 및 숙련도가 높은 노동력을 수요하고 있어 현지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지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개선, 업체당 한도증액 등 지원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시설이 미비하여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공지구내 또는 주변에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 또한 농민들의 취업을 자극할 수 있는 취업장려금제도 등이 사업주측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의 설치가 요구된다. 농공지구내 정보통신망의 설치와 더불어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타 시·도지구의 농공지구업체들과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기술협력 문제, 문제점에 대한 상호대응 등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농민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 농공단지 조성예정지 및 입주신청업체들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개별적인 오염방지 시설 또는 공동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는 농·축·임·수산물 가공업체를 우선 입주시킨다. 특히 농협에서 농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할 경우 이를 위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단지라 할지라도 인근 농협에서 가공공장의 설치를 원할 경우는 확장을 검토해야 한다.

나.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및 개발방안

○ 중산간 지역 또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우선 지원함으로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용효과 창출

○ 추가적인 부업단지의 지정을 통한 판매제품의 다양화

- 몇 개의 제품에 대한 기술교육이 농촌진흥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 신제품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는 지방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결시켜 주어 개발을 위한 여건의 조성

○ 담보능력부족, 담보물 저평가 등의 이유로 정부에서 기확보한 융자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자조건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지원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진원이 주축이 되는 특산단지 지원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

○ 경영부실 업체만 지정취소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제품의 품질관리도 추가하여 저급의 품질을 생산하는 단지는 특산단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특산단지에서 생산한 특산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

○ 생산제품의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 가치와 지역 대표성이 있는 특산품 생산단지로 육성해야 한다.

○ 판매촉진 활동의 강화

- 띠제품의 경우 농협의 "우편주문지"광고를 통하여 타 시·도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전제품에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특산품 수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도내 공동판매장 개설

- 단지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자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판매장의 개설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우선 도·시·군청의 넓은 주차장을 일요일 하루쯤 개방하여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공항, 부두, 신제주, 중문단지 등에 공공단체에서 직영하는 판매장 개설
  - 오일시장에 직판장 개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망의 확충

- DACOM 분산체계를 이용한 P/C통신 가입회원에게 제품판매망 구축

○ 작업능률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참여호수가 30호 이상인 특산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작업장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

다. 가공산업 육성 및 개발방안

○ 각 지역별로 농업입지조건, 원료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 공동판매, 직거래의 도입

- 시장개척, 수급조정, 판매촉진면에서 공동판매 유도
- 정부 및 농협 등에서 시장 홍보활동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관광호텔, 슈퍼마켓, 농협 연쇄점의 판매망을 통한 대량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됨
-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부두대합실 내에 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직영하는 상설 판매장의 개설

○ 종합 가공연계시스템 운용

- 농협 및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감귤가공공장을 1단계로 추진해야 한다.
- 2단계로 생산자와 마을공동에 의한 채소류 반가공공장이 추진되어야 한다.
- 3단계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서 참여하는 특산물 가공공장이 추진되어야 한다.
- 이들 1, 2, 3단계의 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농산물 가공사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농산물의 원료공급, 생산, 가공, 운송, 보관, 판매 등 일련의 계열화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 신규공장 설립시 복잡한 인·허가절차가 용이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또한 시설기준의 완화로 농어민 참여확대를 유도한다.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개발함으로서 농어촌에 취업기회 확대, 관광상품의 다양화, 지역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채소류 및 전작물 가공공장의 설립
- 오미자차, 금감차, 감귤류를 이용한 여러가지 제품, 오매기술, 삼동주, 오미자술, 꿩만두, 자리젖, 오분제기젖, 당근즙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산물 가공단지 설립

○ 산지 가공공장 설립

- 건설 및 운영주체 : 소규모인 경우는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중규모 이상인 경우는 생산자단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 종합농산물 가공단지 건설

- 생산자단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3. 관광과 관련된 도·농통합형 농외소득사업

1) 농·축·수산업과 관광연계의 현황과 문제점

가. 농어촌휴양단지

(1) 현황

1993년말 현재 교래리에 1개 단지가 지정되어 조성중에 있으며, 농어촌휴양단지는 중문, 성산, 표선관광단지와는 그 규모면이나 사업내용에서 크게 다른 소규모 관광단지로 가족단위의 종합적 휴식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현지주민들의 소득창출의 장소이면서 국민휴식공간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공영개발후 지역농어민에게 부대시설을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나. 관광농원

(1) 현황

관광농원은 농업을 관광자원화시키기 위하여 농업지역에 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전시장, 식당등 편의시설과 일정 면적의 농원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사업이다. 관광농원 조성시 과수, 화훼, 채소 등의 작목입식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다. 자금 지원규모는 농원당 신규인 경우는 200백만원, 기성농원인 경우는 25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의 조건이다.

전국적으로 1993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관광농원의 수는 231개소였으나 중간에 사업의욕이 없어서 취소된 40개소를 제외하면 191개소이다.

제주지역에는 1992년까지 시·군에서 지원, 조성되어 현재 사업중인 관광농원이 모두 10개소이고, 1993년에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현재 조성중에 있다. 소재지별로 보면 북제주군에 5개, 남제주군에 4개, 서귀포시에 3개의 농원이 위치해 있다(표 1 참조).

관광농원의 주요시설현황을 보면 작목입식의 경우 양란, 버섯, 열대과수, 화훼, 재래가축, 분재, 산채류 등 다양한 편이고, 편의시설을 보면 휴게소, 판매장, 식당, 주차장 등 농원간 별 차이가 없다. 농원규모는 평균 약 3*ha*이다. 10개 농원의 총 자금지원 규모는 15억 6천 1백만원으로 농원당 평균 1억 5천 6백만원 수준이다.

(2) 문제점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 지정 관광농원의 참여호수를 보면 지정 최소자격기준인 5호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들 농원들이 외형적으로는 이 기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기 조성된 농원의 경우 개별농가의 자금조달능력과 경제능력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다수농가의 동시적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표자 1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는 이름을 빌려주거나 단순한 농업취업 또는 농지임대등의 형태로 농원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관광농원의 입식작목이 대부분 과실류로서 별 차이가 없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입식작목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 농원들이 식당, 휴게소 등 편의시설의 운영과 일반 관광상품의 판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색을 살린 농원조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농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상인을 통해서 조달된 물품이 대부분이며, 참여농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다시말해서 관광농원이 본래의 취지인 1차생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장소제공역할을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관광협회에서 지정한 관광농원에서 지불하는 음성수수료 문제이다. 도관광협회에서 지정된 관광농원의 수는 8개인데, 이들 농원의 경우는 회원 운수회사가 알선한 단체관광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농원에서는 안내한 댓가로 판매액의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음성수수료로 기사와 안내양에게 지불한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농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매우 높고, 또한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특히 관광농원에서 판매되는 특산물(예, 영지버섯 등)의 일부는 제주산이 아닌 타지방 제품들이어서 관광객들에게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표 14〉 도내 시군지정 관광농원현황

농 원 (소 재 지)	지정년도	참여호수	농원규모 (ha)	주 요 시 설 현 황		지 원 액 (융자)(백만원)
				작목입식	편의시설	
수 농 원 (남제주군)	1984	4	2.5	감귤, 바나나열대과수, 화훼(훼이조아)키위	하우스, 조직배양실, 주차장, 휴게소, 간이식당, 농가주택 등	19('85)
갈산농원 (서귀포시)	1986	5	2.5	시설감귤, 키위, 양란	하우스, 저온저장고, 직매장, 주차장등	50('86) 90('90)
한일농원 (북제주군)	1986	5	6.7	감귤, 버섯류, 키위, 단감, 화훼(훼이조아)	휴게소, 직매장, 저온저장고, 화훼하우스, 주차장등	50('86)
중문오렌지파크 (서귀포시)	1990	5	4.2	하우스감귤, 열대과수, 키위	음식판매장, 농산물판매장, 연못, 주차장등	185('90)
제주분재원 (북제주군)	1990	5	3	분재, 열대식물, 동서양란	휴게소, 토속음식점, 연못 및 소폭포, 주차장등	178('90) 190('92)
명진리조트 (북제주군)	1990	5	3.3	유자, 산채류, 재래가축, 도자기생산 등	판매장, 식당 휴게소, 훈제구이장, 주차장등	169('90) 128('91)
서원농장 (북제주군)	1991	5	2.9	재래가축, 감귤, 키위	향토음식점, 농산물판매장, 주차장등	150('91)
수산관광농원 (남제주군)	1991	5	2.9	감귤, 꿩사육	휴게실, 식당, 농산물판매장, 주차장등	92('91)
영보관광농원 (서귀포시)	1992	5	0.9	감귤, 열대과수, 재래귤, 화훼, 열대식물	농산물판매장, 음식점, 휴게소, 낚시터, 주차장등	130('92)
재광농원 (남제주군)	1992	5	1.0	감귤, 관상수, 재래가축	판매장, 음식점, 수상휴게실, 체육시설, 주차장등	130('92)

자료 : 제주도청, 농어촌개발과.

* 1992년 신규지정된 농원인 경우 사업계획임.

다. 관광어촌

(1) 현황

제주도는 해안지역을 따라서 수려한 경관과 함께 어촌지역들도 많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제주의 해안은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고급수산물의 생산과 훌륭한 낚시터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자원을 이용한 관광은 유람선업의 경우 현재 5개소에 39척이 영업이 되고 있으며 (이중 3척은 낚시전용선), 휴어기때 유람, 낚시를 위해 운영되고 있은 유어선은 12개 어촌계에 144척이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직영하거나 잠수들에 의해 협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직매장은 11개소이며, 현재 조성중에 있는 2개소를 합하면 모두 13개소이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수산물직매장과 활어횟집을 겸하고 있다.

현재의 어촌관광은 주로 낚시객 유치와 잠수작업관광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관광낚시선인 경우 홍보부족, 비수기(11월~4월)의 장기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미흡 등으로 낚시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낚시객 유치의 미흡도 있겠지만 과중한 인건비와 경영미숙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2) 문제점

농어촌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위해 관광어촌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어선 신청시의 어려움이다. 어촌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영세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어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어어선 등록시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7월 10일부터 수산청에 의해 전면 허용된 유어어선 자율운영지침에 의

하면 유어어선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선주는 통신장비, 구명장비, 비상구조용 예비어선, 인명구조용 예비어선, 인명구조요원 등을 갖추고 선주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갖춘 어선에 한해 시·군에 등록한 후 관광어선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광어선 등록시의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제주도내 10톤이하의 1,783척(1990년 현재)의 어선중에서 오직 8%인 144척만이 등록되어 있다.

둘째, 수산물 직매장과 유어선을 이용한 유람 및 낚시를 제외하고, 유람선업의 경우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어민들의 어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어 횟집 등 식당의 개설이 어렵다. 제주 해안가 여러곳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일시적인 형태의 좌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촌계에서는 활어횟집 등 식당업소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활어횟집 등은 식품위생법 등의 제약에 따라 소규모의 식당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 관광목장

(1) 현황

1992년 2월 26일 남제주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표선 성읍과 안덕 동광 2군데에 관광목장 조성을 착수하였으나,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 않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도 최근 1993년도 사업으로서 북군 납읍리와 남군 서광리 등 2군데에 마을 공동목장을 이용한 관광목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랑말 경마장의 개장등 조랑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이 방안 중의 하나인 관광승마장의 경우는 중산간 지대 주요 도로변 목장의 여러곳에서 조성·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관광승마장의 경우 일과성 관광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시설로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환경오염 또한 유발시키고 있다. 현재 조랑말을 이용한 관광목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관광승마장의 수는 남제주군에 8개소, 북제주군에 4개소, 서귀포시 3개소, 그리고 제주시 1개소 등 총 16개소이다.

최근 남제주군 연구단에 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마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수는 성수기인 봄, 가을에는 하루에 수백명이나, 비수기에는 그 수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즉 봄, 가을에 승마장 이용객 수가 전체의 80%가까이 되며, 여름, 겨울이 20%정도이다. 승마장 이용객들의 형태를 보면 신혼부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가족, 일반단체, 개인 등의 순으로 이용하지만 신혼부부 이용객들에 비해 극히 적은 수이다. 즉, 신혼부부 이용객들이 거의 80%가까이 되며, 나머지 이용객들이 20% 정도이다. 결국 승마장 성수기가 봄, 가을인 이유는 봄, 가을이 결혼시즌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조랑말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한 관광목장의 한 형태인 관광승마장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승마장의 경우 무계획적인 시설로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환경오염 또한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관광승마장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랑말 사육농가의 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관광산촌

(1) 현황

산촌의 정확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지 관용적으로 산속에

있는 촌락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산촌의 주민들은 농업생산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농촌이지만 낙후된 산간 농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산촌은 산림에 둘러싸인 산악지에 위치한 촌락으로 정의된다(이광원 외 2인, 산촌휴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 1991). 산촌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산속에 있는 마을"(교육도서, 국어대사전, 1991)이다.

제주지역에서 산촌에 해당하는 촌락은 몇개나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생각하는 산속에 있는 촌락의 개념만으로는 일반적인 농촌과 산촌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해발을 이용하여 산촌과 비산촌을 구분하였다. 물론 이렇게 산촌을 구분하는 방법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산간 지역을 해발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산촌의 개발도 중산간 지역의 개발과 맥락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산촌의 개념을 제2우회도로변 생활권역에서 제외되면서 해발 200고지 이상의 지역에 집단을 이루어 형성한 촌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은 해발 200~600m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이것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557㎢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31.5%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산촌의 범주에 들어가는 마을이 제주에는 조천읍 교래리, 거문오름, 안덕면 상천리·동광리·광평리, 애월읍 봉성리 등 6개가 있다.

현재 제주에는 관광산촌의 형태를 띤 휴양소는 존재하지 않고, 중산간 개발의 여부와 관련지어 이것의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문제점

관광산촌 개발이 중산간내에 계획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즉, 중산간내에 시설함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와 지하수의

오염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중산간에 휴양소를 조성할 경우 휴양에 알맞도록 자연경관을 조성하는 것 보다 휴양시설 조성에 비중을 더두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촌 휴양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립이 없이 일반관광지개발과 동일하게 개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사색하고, 재충전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보다 산촌에 여러가지 놀이시설과 대형호텔, 식당, 술집 등 위락시설 등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노는 곳으로 인식하는데서 오는 문제이다.

2) 도·농통합형 농외소득사업 육성 및 개발방안

가. 농어촌휴양단지의 개발방안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의 기본목표는 1)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으로 흡수하여 휴식공간제공, 그리고 2) 농어촌 소득증대 도모 등이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산간지역의 광활한 초지와 산림 그리고 해안지역에 그 지역의 농·축·수산업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개발을 한다. 이것의 개발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역주민 또는 농·수·축협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 휴게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식당, 농수산물직매장 등이다.

개발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후보지적격여부, 운영주체 적격여부, 관광객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격지를 선정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 그리고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 각 2개소를 동·서로 나누어 균형있게 배치한다.

나. 관광농원의 육성방안

관광농원 조성후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미진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 신규 조성하게 될 농원들에 대한 개발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희귀작목 등 농원 방문객들의 기호에 맞는 입식작목을 집중개발하고, 비수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작목간, 품종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관광자원에 대한 지방정책의 지도 및 감독을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농원 설립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조성하는 농원뿐만 아니라 기성농원에 대해서도 시장·군수로 하여금 분기별 1회씩 추진상황을 검토토록 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수시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 도관광협회 지정 관광농원의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도관광협회에서 지정한 농원은 영세하고,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력, 자본부족과 더불어 시설이 빈약한 나머지 과다경쟁, 운수업체와의 뒷거래로 인해 관광농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관광농원에 대한 난립을 막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관광협회에서 지정한 8개 농원 중 전반적인 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가능한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시·군 지정 관광농원화하여 농원확충시 우선 고려한다.

넷째, 시·군지정 관광농원을 정기관광 코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관광협회 지정 관광농원이 관광객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때문에 시·군 지정 관광농원인 경우 관광객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광농원 운영상에 애로가 많다.

다섯째, 식당영업시 대중음식점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광농원의 경우 농발법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비과세혜택을 입고 있다. 따라서 관광농원의 설립목적이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한 것인 만큼 동일법령에 의한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농원의 조성과 운영에 참여함으

로써 농업생산자의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성 관광농원의 경우 실제로는 1인의 자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다수농가의 농외소득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가 농원의 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경우 다수농가가 기존의 작물재배지를 공동출하 형식으로 농원부지용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농민들이 농원조성 및 운영, 작목입식,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면에 참여할 수 있어서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관광어촌의 육성방안 및 개발방향

도시소비자 및 관광객들과 농촌의 생산자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어가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촌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개발방식은 어촌계 또는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협업개발의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어촌의 개발방향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의 어촌은 해산물을 직접 어획하고 채취하는 현장이므로 수산물의 조달과 공급이 용이하고 또한 신선도가 높다. 따라서 어촌을 대상으로 신선도와 품질이 좋은 해산물로서 고유한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그 소득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현재 어촌주민의 관광수입은 민박시설, 선박대여, 낚시 미끼판매 등이 거의 전부라고 볼수 있으며, 어촌지역에서의 전반적인 관광객의 소비가 적다. 따라서 관광소비를 늘릴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어촌관광개발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해안가의 땅을 공동 출자의 형식으로 내놓거나, 국·공유지를 불하받든지,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지확보가 이루어졌을 경우 시행이 가능한 주요사업으로는 휴게소, 숙박시설, 위락시설, 직매장, 식당, 낚시터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촌관광의 경우 지금까지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탓으로 관광객이 즐기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조직적으로 이를 선전하는 역활을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여행사나 공항과 부두에 관광안내소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신문, 잡지, TV등 매스콤을 이용한 홍보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관광목장 개발방향

관광목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관광승마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16개소나 있지만, 실질적인 관광목장은 아직 없다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육성방안보다는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개발의 기본목표는 1) 관광지구와 연계한 중산간 마을공동목장 관광자원화로 농외소득 증대 및 2)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시함으로 국민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목장개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관광목장의 오·폐수로 인한 지하수자원의 오염문제이다. 따라서 지하수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관광목장 개발은 중산간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하되 운영은 부락민들 도는 공동목장 조합원들에 의한 협업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편의시설로는 1) 조랑말을 이용한 승마장, 2) 사슴, 노루, 꿩, 조랑말, 염소, 양, 소, 돼지, 닭 등을 관광객에게 관상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동물원, 3) 우유, 치즈, 꿀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축산품 판매장, 4) 주차장, 5) 토종닭, 토종돼지, 사슴, 노루, 꿩, 흑염소, 소등을 원료로한 다양한 향토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 6) 소규모 민박시설을 갖춘다.

마. 관광산촌의 개발방향

관광산촌의 개발사업은 산촌지역농업을 관광농업으로 전환시켜 관광객

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자는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주에는 본고에서 정의한 산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촌락은 6개이다. 현재 이들 촌락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촌의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촌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폐수로 인한 지하자원의 오염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산촌지역의 토양구조가 오염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환경파괴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이 섰을때, 관광산촌휴양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산촌휴양지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양촌과 그리고 산촌과 근접해 있으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쾌적한 휴양활동이 가능하도록 휴양활동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촌락민이 개발주체가 되어 민박시설, 식당, 위락시설, 주차장 등을 촌락에 설치하여 소득창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관이 수려한 휴양활동공간에는 산채따기를 위한 농장, 수렵장, 산책로, 화훼공원 등 휴양활동을 위한 보조시설을 갖추고 휴게소 등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이다.

관광산촌 개발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이고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바. 기타 연계 방안

1) 기존취락지구내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한 농업과 관광의 연계사업이다. 농어촌지역의 새마을회관이나 폐교된 학교시설을 청소년 캠프장, 숙박시설, 관광위락시설, 농산물판매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킨다.

2) 감귤과수원 현장방문상품의 개발이다. 감귤원을 사진촬영 장소, 감귤시식장소, 감귤상품판매 장소로 개발하는 것이다.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의

감귤원이나 관광지 또는 관광지구 주변에 위치한 감귤원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3) 관광딸기원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한 딸기농장을 딸기따기, 딸기시식 장소로 개발한다.

4) 여름철에 수박·참외밭에 원두막 또는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발한다.

5) 농·축 수산물의 관광상품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관광호텔 등 관광업소와의 직거래, 직판장 설치 등이 요구된다.

V. 결 론

수입개방이 되는 첫 해인 1995년에서 2001년까지 7개년동안 제주지역 농축산물 생산농가가 입을 피해액은 총 1조 4백 8억 4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전국의 1.3%밖에 안되는 제주도의 농업규모를 생각한다면 실로 엄청난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UR이후 농산물의 개방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모두 지혜를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제주도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중 1차산업 분야에 2조 2천 4백억원을 반영시켰다. 특히 동기간중에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총 9,664억원을 투자할 감귤수입개방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주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UR협상타결로 한층 넓어질 세계 농산물 시장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갖추어지는 품목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계획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시책중의 하나가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2, 3차산업을 유치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농어촌에 2, 3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과 현재 노출된 제주지역 2, 3차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좋은 대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농어촌 지역에 2, 3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고 농업과 농촌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대상지는 저소득 오지나 특별개발지구에 우선을 두고 사업과 운영주체는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농어민공동, 농어민개인등의 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UR이 타결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94년 한해는 95년부터 시작되는 수입개방을 보다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효과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첫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제 2 부

— 제 1 주제 발표 —

濟州觀光産業의 競爭力 強化 方案

許 香 珍

濟州大學校 觀光經營學科 敎授

Ⅰ. 머리말

Ⅱ. 濟州觀光의 實態 및 與件變化

1. 國際觀光의 現況

2. 우리 나라의 觀光動向

3. 濟州地域 觀光産業의 實態 및 與件變化

Ⅲ. 濟州觀光의 當面課題

1. 濟州觀光의 競爭力 檢討

2. 濟州觀光의 問題點

Ⅳ. 濟州觀光産業의 競爭力 強化方案

Ⅴ. 맺음말

參考文獻

Ⅰ. 머 리 말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특유의 민속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광진흥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감귤부문과 함께 제주지역 경제에 있어서 2대 주력사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관광개발이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개선책의 하나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도 각종 관광산업 진흥책을 시행 중에 있어 제주 관광산업의 미래를 다소 밝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주관광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 증가율이 매우 저조하여 1993년의 경우 전년대비 1.2% 증가에 불과하였고, 가족단위 등 개별여행은 증가하는데 반해 관광소비 지출수준이 비교적 높은 신혼여행객이나 일반단체 관광객은 약 14%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으로써 이제 관광목적지로서의 제주관광이 정체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성향이 점차 다양화되고 활동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이들 관광객들의 욕구충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광위락 및 편의시설의 부족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과거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발방식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것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민간사업부문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또한 주변 관광시장 여건도 제주도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지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과거의 제주도와 설악산 중심의 관광수요가 전국으로 분산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내국인 해외여행자수가 1993

년 242만여명에 이르러 전년대비 1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해외여행 선호 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내국인 관광수요가 주변의 외국관광지에 빼앗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시장인 일본인에 대한 NO-VISA제도의 전국 확대, 중국여행의 자유화 실시도 제주관광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관광성수기마다 발생하는 숙박난과 교통난에 관광부조리 여론에 따른 이미지 악화까지 겹쳐 관광객들이 점차 제주관광을 외면하고 발길을 다른 경쟁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마케팅 활동이 극히 부진하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이 미흡한 것도 제주관광을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광은 전환기를 맞고 있는 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광을 보는 도민의 시각이나 관광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주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濟州觀光의 實態 및 與件變化

1. 國際觀光의 現況

1) 國際觀光의 動向

세계의 관광산업은 지난 3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관광객의 규모에 있어서나 관광수입에 있어서 관광산업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세계의 관광산업은 1983년 이래 연평균 6%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세계 관광객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4억7천명을 넘어섰고 관광수입(운송수입 제외)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2천7백9십억불에 달한다. 이것은 세계 GNP의 12%, 무역거래량의 5%, 서비스부문 매출액의 15% 이상을 점하는 비중있는 산업으로

부상한 의미를 가지며, 그 파급효과로서 고용창출 효과,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촉진, 세금 수입원으로서의 역할, 관광 및 여가업체의 창업 유발을 통한 기업활동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관광산업은 석유산업,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세계 3대 산업이 되었다.

한편 국민관광객수는 통상 국제관광객수의 10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1988년의 경우 국제관광객수가 3억9천4백명인데 비해 국민관광객수는 41억명으로 시장의 저변이 얼마나 넓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관광산업은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관광객 송출의 80% 이상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구미주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전체의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지난 10여년 통계상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1970년 세계관광객의 3.0%를 점하였으나 1989년 11.0%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관찰해 보면 70% 이상이 역내관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유럽과 같은 지역은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향후 역내관광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 地域別 觀光動向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1980년대 세계시장 점유율 7%에서 1992년에는 12.3%로 증가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관광객 송출에 있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전체 국제관광객이 73%가 역내 국민의 관광객이며 그 중 일본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이 부상하는 관광송출국가는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이다.

(1) 일본

1992년도의 일본인 해외 여행자수는 1,180만명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다. 1990년 이래 3년 연속으로 1천만명을 초과하였으나 1992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일본 경제불황 등의 영향으로 출국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편 1992년 일본이 외래객 입국자수는 358만명으로 전년대비 1.4%의 증가를 나타냈다.

일본의 1991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에 의하면 출국자 1,063만명 가운데 남성이 649만명, 여성이 414만명으로 성별 비율은 61:39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남성은 20~50대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2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행목적지별 분류에 따르면 미국이 1위로서 332만명이며, 한국은 2위로서 146만명, 홍콩은 125만명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여행자층과 여행지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은 미국, 괌, 사이판, 오세아니아 방면으로 많이 여행하였고, 직장여성과 주부는 하와이, 괌, 사이판으로, 기혼남성과 고령층은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동남아 방면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하와이, 오세아니아가 주된 여행지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여행목적의 66%가 관광, 나머지가 업무 출장이었던 것에 비해 근년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70%는 관광여행이 목적이다.

여행기간은 7일 이내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남아 방면 여행자의 경우는 60%가 4일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여행동반자로서는 부부, 친구, 아는 사람과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대만

1987년 중국대륙 개방을 계기로 급격히 늘어난 대만인 국외여행은 1991년 336만명, 1992년에는 드디어 400만명을 돌파한 421만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25%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는 820억불이 넘는 외환보유고, 대만 국민의 높은 해외여행성향에 따른

것으로 해외여행자의 85%가 관광목적으로 여행을 나선다. 비용이 적게 드는 아시아지역 관광이 많으며 중국 대륙 방문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2년 중 대만을 방문한 외래객은 187만명으로 전년대비 1%의 근소한 증가를 보였다. 주시장별 입국자는 일본인 80만명, 미국인 26만명, 홍콩 19만3천명, 한국 15만7천명 순이다.

대만 국민의 한국방문은 한.대만 단교('92. 8. 24) 이전까지 전년대비 33.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 단교 및 항공편 단절('92. 9. 15)로 50% 이상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3) 홍콩

1992년도 홍콩인의 해외여행자수는 223만명으로 전년 동기 205만명에 비해 9.1% 증가하였다.

홍콩은 관광객 송출은 적지만 외래관광객 및 관광수입은 아시아 각각 2위로서 1992년 외래객 유치 698만명(전년대비 15.8%)을 기록하였다.

주관광객은 대만 및 일본인으로 이들 두 나라가 전체 외래관광객수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인은 전년대비 26.3%가 증가한 164만명으로 홍콩을 통한 중국 대륙 방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3위는 미국이며, 우리 나라의 홍콩 입국자수는 약 20만명으로 점유율 2.8%를 보이고 있다.

홍콩의 해외여행 관광지는 태국, 일본, 대만의 순으로 1992년에 방문한 홍콩인은 12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태국을 여행한 관광객수는 6.9%가 감소하였다.

(4) 중국

1978년 문호개방 정책과 더불어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중국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1992년 중국을 방문한 총 외래객 수는 약 3천7백만명으로 전년대비 11%가 성장하였으며 이 중 단체관광객수는 620만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도 중국의 관광외화수입은 39억불로 이는 전년대비 38.7%가 증가하였는데 1990년 22억불을 돌파하여 불과 2년만에 177%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은 "92년 중국방문의 해"를 중국관광 도약의 해로 정하고 관광진흥홍보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1993년 관광수입 획득목표를 40억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광당국은 관광산업구조 개선, 외국인의 중국내 관광개발자본 유치, 시장수요에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5) 싱가포르

1992년에 싱가포르 전체인구 276만명의 67%에 해당하는 186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나 전년대비 1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싱가포르 국민의 해외여행은 단거리, 단기체재형으로 아세안(ASEAN) 중심의 역내관광이 활발하다. 또한 가족단위여행, 젊은 계층 및 여성들의 해외여행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1992년도 해외관광객 입국은 599만명으로 10.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외래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아세안이 30.2%를 점유하였으며 일본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백만명을 초과하여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대만 관광객이 39만명에 달해 3위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수는 전년도에 비해 12.1% 증가한 410만명이며 이는 전체 입국자의 68.9%에 해당된다. 1991년 중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120%의 증가를 나타냈다.

(6) 태국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태국은 관광이 최대 외화획득원으로 1991년에 509만명, 1992년에는 514만명이 입국, 0.97% 증가에 그쳐 예년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1992년 5월에 발생한 5월 데모사태 등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데는 관광이미지 회복을 위해 태국 여왕 60주년 탄생일('90. 8. 12)을 맞아 대대적인 관광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태국인 해외여행객수는 1992년도 사상 처음으로 1백만명을 돌파한 125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해외여행객의 증가요인을 보면 항공사들간의 경쟁으로 인한 국제항공요금 하락, 외국 NTO 등 관광 관련기구들의 효과적인 광고 및 캠페인 실시, 주요 백화점 등의 저렴한 해외패키지관광 제공 등을 통한 신용카드 판촉활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2년의 관광외화수입은 41억불을 달성하였으며 관광객 평균 체재일수는 7.4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점유율이 56%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7) 호주

1992년 호주의 해외여행동향을 살펴보면 228만명이 출국, 전년대비 8.4% 증가를 보였으며 주요 대상 관광지인 뉴질랜드의 점유율이 15%, 미국 14.7%, 영국 10.6%, 인도네시아 8.1%, 홍콩 6.2% 순이다.

1992년 중 호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수는 260만명으로 전년대비 19%의 증가를 보였으며 주요 관광객은 63만명이 입국한 일본, 뉴질랜드(44만8천명), 영국(29만명), 미국(26만3천명), 싱가포르(11만7천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국 관광객이 전체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은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여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아세아지역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및 한국관광객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83%, 42%를 보이고 있다.

관광업계가 1992년도에 외래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수입은 82억불로 단일 분야로는 관광업이 최대 수출산업으로 재확인되었다.

2. 우리 나라의 觀光動向

1) 外來觀光 動向

우리 나라의 관광산업은 70년대 전반에 걸쳐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커다란 발전을 하였다. 특히 1975년도에 정부가 국제관광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획기적인 관광산업 지원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매년 꾸준한 신장을 이룩하면서 '80년대의 대량관광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9년에 두 번째 오일쇼크의 파고와 국내외의 정세혼란이 가세한 '80년대 초에는 관광산업도 심각한 불황속에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1988년에 200만명을 넘어섰고 1991년에 약 320만명에 이르는 외래관광객이 입국함으로써 1986~1993년의 연평균 성장율은 11.1%를 나타냈다.

그러나 근래 버블경제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해외여행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일본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둔화로 지난 해의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국적별로 유치실적을 보면 1992년 우리 나라 관광시장은 일본, 미국, 대만 등이 전체시장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은 최대의 관광시장으로 1973년 한때는 시장점유율이 69.9%까지 이른 적이 있었으나, '80년대에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5년간의 평균점유율은 47%로 나타났다.

근래 일본시장은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 해 역시 입국자수가 3.9% 감소하여 시장점유율 또한 1991년의 45.5%에서 43.3%로 떨어졌다. 그러나 일본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위치는 여전히 변함없다.

한편 제2의 관광시장인 미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33만 3천여명으로 전년대비 5.7%의 성장율을 기록하여 10.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만에서의 입국자수는 1989~1991년 기간 중 평균 31.5%가 넘는 괄목할 성장을 보였으나 1992년에는 지난해 8월 중국과의 수교에 따라 대만과의 외교단절을 선언한 9월 이후에는 입국자가 격감해 5.2%에 머물렀다.

이외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던 나라는 태국(48.4%), 홍콩(29.7%), 호주(24.1%) 등으로 이들 국가의 시장은 비록 작으나 앞으로 잠재력을 지닌 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를 포함한 대양주를 잇는 항공노선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입국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외화수입은 1980년대 말까지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을 고비로 하여 우리 나라의 주요 시장인 일본, 미국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그간의 계속적인 입국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1993년 관광외화수입은 1989년 수준으로 떨어진 3,502백만불에 그쳤고 589백만불의 여행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1〉 우리 나라 관광동향(실적 및 목표)

구 분	'91	'92	'93	'94 목표
외래관광객(만명)	320	323	333	400
국민해외여행(만명)	186	204	242	280
여행수입(백만불)	3,246	3,271	3,502	4,200
여행지출(백만불)	3,784	3,794	4,091	4,200
여행수지(백만불)	△358	△523	△589	-

자료 : 교통부, 1994.

2) 國民觀光 動向

(1) 국내여행

오늘날 국가경제의 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일련의 국민관광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이 주어진 시간을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 그에 알맞은 시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여가활동을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여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폭증하는 주말여행, 인구의 도시 집중에 의해 휴가철의 도시탈출여행 및 명절 무렵의 귀향여행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행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수용능력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전국민 여행동태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국민의 37.8%가 지난 1년간 숙박관광여행을 하였으며, 당일관광여행 경험자의 비율은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숙박을 구분치 않은 총관광여행 경험비율은 72.7%로서 우리 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지난 1990년에 적어도 1회 이상 숙박 또는 당일 관광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2) 국민의 해외여행

정부는 1980년대에 이르러 국민을 위한 해외여행 개방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1983년부터 5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외여행을 허용하였다. 이후 1987년 9월부터는 해외여행 허용연령층을 점차 낮추어 단계적인 해외여행 확대 조치를 취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무렵에 와서는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함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정부는 1989년 1월 1일을 기하여 그 동안 취해왔던 해외여행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1989년의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수는 전년대비 67.3%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높은 신장세를 줄곧 유지해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난 1993년에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242만명이 해외여행을 하였다.

목적지별로는 엔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여행은 전년대비 6.0% 증가하여 전체 출국자의 39.5%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일본으로 여행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17.4%), 태국(7.3%), 홍콩(7.0%), 대만(3.5%)의 순이며, 아시아 지역 국가로 떠난 사람이 전체의 70.7%를 차지해 지역관광의 성향이 뚜렷하였다.

관광목적 여행비율이 높은 방문국으로는 태국과 싱가포르로 그 비율은 각각 79.5%, 62.0%이며,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대만 37.6%, 필리핀 47.0%, 미국 37.0%, 일본 26.2% 등이다. 이 중 태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지는 최근 신혼여행자들에게 각광받는 목적지로 부상되어 관광목적 여행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항공노선의 개발로 인해 대양주로의 관광목적 여행자수의 성장률은 60.2%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기간별로 1년 중 휴가 및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7, 8월과 1월에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떠났는데 1992년 8월에는 21만2천여명이 출국하여 연중 전체 출국자의 10.4%를 차지하였다.

한편 1993년 한 해 우리 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4,091백만불로 589백만불의 여행수지 적자를 보게 되었다.

3. 濟州地域 觀光産業의 實態 및 與件變化

1) 濟州經濟에 있어서의 觀光産業의 意義

농림어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산업구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제주경제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관광수입은 1961년의 2천3백만원에서 1993년에는 8,516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39.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지역총생산 연평균증가율 25.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총생산에 대한 관광수입의 비율도 1961년의 0.9%에서 1993년에는 43.3%로 높아졌다.

이를 국내 타지역의 관광수입과 비교해 보면 관광수입을 추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제주지역의 관광수입이 절대규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총생산에 대한 지역별 관광수입의 비율이 1991년 기준 강원지역 3.4%, 충남지역 2.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1.0%를 하회하고 있어 지역경제내에서 관광수입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도 제주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주요 관광지인 하와이와 싱가포르의 관광수입을 살펴보면, 하와이의 경우에는 1991년 관광수입이 9.921백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총생산의 34.7%에 달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총관광수입이 2,929백만달러에 달하여 GNP대비 7.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주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인 하와이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제주지역에 있어서 지역총생산의 관광수입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수입 10% 증가시에 제주지역 GRP는 6.6%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1993년말 현재 제주지역의 관광 관련산업에 약 5만5천여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광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제주도 전체 취업인구 25만명의 약 34%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은 고용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관광업체의 주민 고용실태는 1986년대 영업부문 76.4%, 관리부문 7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87% 수준까지 주민 고용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관광사업체의 경우 도내에 고급의 관광전문인력(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 등)의 부족으로 아직도 상위직급은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취업되고 있는 실정이다.

2) 觀光客 動向의 比較分析

(1) 관광객수 변동 분석

제주도는 지속적인 관광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제주방문 관광객이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다.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수는 1971년도 30만7천명에 불과하였으나, 1981년 72만4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는 3백46만4천명에 달하였다. 관광수입도 1971년도 23억원에서 1981년 4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는 8,516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1990년 이후 내도 관광객 증가율은 4.9%로 1980년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특히 1993년의 경우 전체관광객 증가율은 전년대비 1%에 불과하였고, 가족단위 등 개별여행은 증가하는데 반해 관광소비 지출수준이 비교적 높은 신혼여행객이나 일반단체 관광객은 약 14%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올해에도 이처럼 관광객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관광객 수용시설이 미비하여 관광목적지로서 제주의 관광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있고, 1993년에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대전 EXPO, 신혼여행객의 해외여행 선호, UR 등의 여파까지 겹쳐 제주관광객의 수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내도관광객 증가율

연 도 별	'71~'81	'81~'86	'86~'90	'90~'93
증 가 율	8.5%	14.5%	19.25%	4.9%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대만과의 단교 및 일본 국내의 경기 불황 등에 따라 방문객수가 급격히 감소했던 1992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인 관광객 비율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관광객의 계절별 비중을 보면 1976년의 경우 가을철(9~11월) 관광객의 비중이 34.3%로 가장 높고 겨울철(12~2월)의 비중은 19.1%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계절별 차이가 평준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관광객의 월별 변동폭을 나타내는 변이계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76년 월평균 관광객수는 30,765명인데 반해 표준편차는 10,652명에 달함으로써 0.3462로 매우 높았던 변이계수가 1992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0.1776으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제주지역 관광객 수요의 계절적 불안정성이 많이 완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제주지역 연도별 관광객수 및 월별 변이계수 추이 (단위 : 명)

월별 / 연도	관광객수 (연간)	월별관광객수 표준편차(A)	월평균 관광객수(B)	변이계수[1] (A/B)
1976	369,182	10,652	30,765	0.3462
1981	724,240	18,551	60,353	3.3074
1986	1,492,308	31,403	124,359	0.2525
1990	2,992,096	47,182	249,341	0.1892
1991	3,204,613	55,702	267,051	0.2086
1992	3,421,708	50,633	285,142	0.1776

주 : 1)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는 관광객의 월별 진동폭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 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이와 관련하여 하와이, 괌, 싱가포르 등 주변의 외국관광지 관광객의 변이계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와이의 경우에는 1991년에 월평균 관광객이 57만3천명, 표준편차는 7만1천명을 나타냄으로써 변이계수는 0.1244에 불과하였다. 괌은 1992년 월평균 관광객이 7만3천명, 표준편차는 1만2천명으로 변이계수가 하와이보다 조금 높고 제주도보다 다소 낮은 0.1625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회의 유치면에서 아시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1992년의 관광객 변이계수가 0.0613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을 이들 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제주지역의 관광객 변이계수는 하와이의 1.4배, 괌의 1.1배, 싱가포르의 2.9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에 있어 제주지역 관광수요의 계절적 불안정성이 외국 선진관광지에 비해서는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관광행태 분석

① 제주관광에 대한 선호도

한국관광공사가 1991년 실시한「전국민 여행동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숙박여행을 할 경우 꼭 가고 싶은 곳으로 제주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31.1%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설악산 20.2%, 울릉도 5.5%, 지리산 3.2%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비추어 국내여행지로서는 제주도가 우리 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인상깊은 관광매력물로는 전체적으로 자연관광자원을 높게 지적한 반면「특색있는 문화」나「레저활동」을 인상적인 매력물로 지적한 응답자는 매우 낮게 나타남으로써, 아직도 제주도 관광이「즐기는 관광」이라 아니라 자연경관 감상위주의「보는 관광」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관광객의 인상깊은 관광매력물

(단위 : %)

구 분	해 변	자연경관	깨끗한 물, 공기	특색있는 문 화	한라산	기 타[1]	합 계
여름철관광객	31.1	26.8	20.0	10.8	6.5	3.2	100.0
가을철관광객	25.6	23.1	20.9	13.6	9.3	6.8	100.0
평 균	28.4	25.0	20.4	12.2	7.9	5.0	100.0

주 : 1) 레저활동, 토속음식, 쇼핑, 기타

자료 : 제주도 · 제주도관광협회, 「1993년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 1993.12.

또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방문회수를 보면 처음 방문이 전체적으로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2회 방문객의 비중이 평균 83.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와이의 경우 2회 이상 방문객의 비중이 54.8%, 싱가포르의 55.5%에 비하면 제주도의 41.3%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 관광산업이 아직도 「보는 관광」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기인하므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형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여행형태는 가족단위 등 개별여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혼여행 및 일반단체여행은 차츰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행경비 지출형태를 보면 내국인은 숙박(29.3%), 식음료(19.2%), 육상교통(16.7%), 기타(17.0%), 쇼핑(16.7%)의 순으로 지출하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흥오락비 등 기타 경비의 지출이 가장 높고(35.5%), 이어서 숙박, 식음료, 육상교통,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의 유명관광지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경우 교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쇼핑비 지출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방문회수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처 음	2 회	3~4회	5회 이상
'91	50.8	24.4	10.7	14.1
'92	60.7	21.8	4.7	12.8
'93	58.7	24.9	4.5	11.9

자료 : 제주도 · 제주도관광협회, 「1993년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 1993. 12.

〈표 6〉 여행형태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일반단체	23.6	23.8	21.0	22.3	22.8	19.3
수학여행	5.9	6.6	7.5	7.8	3.9	6.7
신혼부부	16.7	16.6	17.2	18.3	17.2	14.6
가족기타	51.8	53.0	54.3	51.6	56.1	59.4

자료 : 제주도 · 제주도관광협회, 「1993년도 관광객 만족도 조사」, 1993. 12.

〈표 7〉 관광객의 관광경비 지출구조

(단위 : %)

구 분	제주(1991)		전국[1]	Hawaii	Singapore	태 국
	내 국 인	외 국 인	(1991)	(1991)	(1991)	(1989)
숙 박	29.3	26.1	38.8(22.0)	36.8	20.2	24.1
음 식 료	19.2	24.5	17.7(14.9)	14.8	13.4	15.9
교 통	17.8	10.4	7.1(8.5)[2]	9.0	4.7	13.1
쇼 핑	16.7	3.5	26.8(31.8)	20.6	54.5	38.5
(기 념 품)	(-)	(-)	(-)(-)	(11.9)	(-)	(-)
(의 복)	(-)	(-)	(-)(-)	(8.7)	(-)	(-)
기 타[3]	17.0	35.5	17.6(22.8)	18.8	7.2	8.4
합 계	100.0	100.0	100.0(100.0)	100.0	100.0	100.0

주 : 1) 방한객의 경비 지출 구조, 단 ( )내는 관광목적 방한객의 관광경비 지출 구조

2) 관광교통비

3) 관광지 입장료, 유흥오락비, 주차료 등

자료 :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 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7.

② 체재기간 및 숙박형태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서 1993년에 조사한 제주도 관광객의 체재기간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에 1박 2일이 1.6%, 2박 3일~3박 4일이 76.6%, 4박 이상이 20.8%로 대부분의 관광객이 2박3일 또는 3박 4일간 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 나라 전체 숙박여행객의 체재기간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 1박 2일에 그치고 있는 전국의 경우와는 달리 3박 이상 관광객 비중(40.0%)이 전국 수준(25.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제주도가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 국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평균 숙박일수가 8.37일인 하와이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고,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체재기간별 관광객 구성비

(단위 : %)

구 분	제 주 (1993)	전 국 (1991)	Hawaii (1991)	Singapore (1991)
1박 2일	1.6	42.6		35.5 ┐평균
2박 3일	29.6	32.0		23.6 │3.30일
3박 4일	47.0	15.2	평균 8.37일	16.4 │
4박 5일	9.4	3.5		7.1 │
5박이상	12.5	6.7		17.4 ┘
계	100.0	100.0	-	100.0

자료 : 제주도 · 제주도관광협회, 「관광객 만족도 조사」, 1993. 12.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 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7.

한편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행태는 호텔이용이 전체의 5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여관(16.8%), 기타(12.3%), 민박(9.0%), 친구·친척집(5.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 나라 전체 내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행태와 비교해 보면, 전국의 경우에는 여관이용이 27.9%, 기타(야영 등)이 2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호텔이용의 비중이 56.8%로 전국의 12.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와이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호텔 및 콘도 이용이 각각 94.8%, 72.7%로 상당히 높아 고급휴양지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③ 관광서비스의 만족도

관광서비스에 대한 제주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는 여행사 및 교통수단 이용 등은 비교적 높은 만족 수준을 보여 주었으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의 경우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관광객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의 1993년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따라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수단의 경우 친절한 서비스가 만족 이유인데 반해 비싼 요금, 불필요한 곳 안내, 차량 노후 등이 불만스러운 이유로 들고 있다.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 이유는 기본적 물품 미비, 객실 및 침구류 불결, 노후한 시설 등의 물적 서비스를 주로 제시하고 있고 숙박업 종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과 기념품 판매업소에 대한 불만 이유로는 모두 높은 가격과 특색없는 음식 및 기념품을 지적하고 있다. 관광안내원의 설명 등 서비스와 운전기사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 만족 수준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으로는 바가지 요금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고 안내표지판 부족 및 관광정보의 부족, 비싼 요금, 주변 환경의 불결 및 위락시설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에 제주관광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관광부조리라는 지적이 많다. 관광부조리는 업체간의 덤핑경쟁, 바가지 요금, 강매행위, 호객행위, 음성수수료 수수행위 등으로 모두 관광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이다.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 1992년 조사한 관광객 성향분석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가 관광부조리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경험했던 부조리 형태는 바가지 요금이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매행위 22.5%, 호객행위 16.6% 그리고 계약위반행위 6.8% 등의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토산품 구입시가 29.1%로 가장 높고, 사진.비디오 등(18.9%), 음식점(17.6%), 관광농원(11.5%), 교통수단(11.5%), 숙박업소(6.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광객들이 모든 부문에서 관광부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인과정은 관광안내원(31.6%)과 운전기사(29.0%)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기념품 판매업소 종사자(17.0%), 사진.비디오 기사(8.9%), 숙박업 종사자(5.2%)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관광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는 언어소통(35%), 상품.음식점 등 미비(33%), 관광정보의 입수 곤란(9%) 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3) 主要 觀光施設의 現況

(1) 숙박시설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1993년말 현재 총 662개업소에 15,819실의 객실을 갖추고 있다(민박 제외). 이 중 관광숙박업시설이 4,840실로 전체의 30.5%이고, 일반호텔이 2,998실로 19%, 여관과 여인숙이 7,981실로 50.5%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고급과 하급 숙박시설간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 숙박시설은 1980년 이후 관광호텔, 일반호텔 등 중.고급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하여 숙박시설이 고급화 내지는 다양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숙박시설의 위치는 대체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숙박시설의 이용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간에 그 격차가 심해 성수기와 주말에는 객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비수기와 주중에는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수익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이용률은 1987년의 56%에서 1991년 69.3%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그 후 1992년 67%, 1993년 63%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골프장

1993년말 현재 제주도내에는 3개 골프장이 총 72홀을 운영 중에 있으며, 1개 골프장 27홀이 개장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골프장 3개소 72홀이 시설 중에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1990년 190,333명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 246,507명으로 연평균 10.3%씩의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행태를 내.외국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내국인이 78.8%, 외국인 21.2%로 외국인 관광객 이용률이 전국 수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내국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예약불편 등으로 외국인 이용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운동, 오락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제주도와 같은 휴양관광지로서는 체재기간의 연장과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주도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체는 어느 정도 다양해졌다고는 하지만 제주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제수준의 휴양관광지 조성 및 보는 관광에서 4계절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패턴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표 9〉 참조).

〈표 9〉 관광객 이용시설업 현황

구 분	개소	내 용
계	193	-
전문휴양업	6	수렵장 1, 수족관 1, 민속촌 1, 식물원 1, 관광어촌 1, 분재예술원 1
관광음식점	5	제주시 3, 서귀포시 2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16	종합판매점 6, 전문판재점 10
카지노	7	제주시 4, 서귀포시 3
면세점	4	제주시 3, 서귀포시 1
골프장	3	오라CC(36홀), 제주CC(18홀), 중문CC(18홀)
승마장	17	제주시 1, 서귀포시 3, 북제주군 5, 남제주군 8
경마장	1	주로 1,600m, 관람대 5,000석 규모
유람선	101척	유선 12, 잠수선 1, 보트 80, 낚시선 8
농원	33	서귀포시 23, 북제주군 8, 남제주군 2

자료 : 제주도, 「1994년도 제주도관광진흥계획」, 1994.

(4) 관광지

제주도내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관광지는 총 11개소로서 폭포, 동굴, 천연림, 계곡 등 주로 경관 위주이며, 이 곳에 1993년 연간 입장한 관광객수는 총 92만명으로 입장수입이 약 41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설관광지는 총 10개소로서 경관과 인공미가 가미된 관광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1993년 연간 입장한 관광객수는 64만명에 불과하나 입장수입은 약 94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문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여미지식물원 1개소의 입장수입은 연간 47억원 수준에 달하여 도.시.군이 관리 운영하는 11개소 관광지의 수입 총계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4) 觀光産業의 實態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1993년 제주도내 250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관광사업체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업체현황

조사업체의 대부분이 제주시(69.6%)와 서귀포시(16.1%)에 소재하고 있고 제1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이 시작된 '85년 이후 설립된 업체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업체 중 62.5%는 법인기업, 37.5%는 개인기업이며 자체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66.1%에 불과하다.

종업원 규모, 근속년수 및 학력별 분포에 있어서는 종업원 50인 이하 규모의 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2년 이하 경력의 종업원이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년 초과 경력 종업원은 5.3%에 불과하다. 또한 고졸 이하 종업원이 6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 종업원은 12.7%에 불과하다.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면에 있어서는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54.7%로 나타난 반면 50억원 이상의 업체는 9.3%에 불과하다. 또한 1992년 중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조사업체의 59.3%를 차지한 반면 100억원 이상 업체는 6.6%에 불과하다.

(2) 영업실태

'92년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절별 매출액 구성을 보면, 겨울철이 21.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봄철이 2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 중 매출전망에 관해서는 조사업체의 대부분이 전년보다 감소(52.7%)하거나 전년과 동일할 것(27.7%)으로 전망하였으며, 매출부진이 전망되는 이유로는 조사업체의 대부분(67.0%)이 관광객수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지사정과 관련해서도 조사업체의 대부분이 전년보다 악화(62.5%)되거나 전년과 비슷할 것(21.4%)으로 전망한 업체가 조사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유도 대부분(78.6%) 관광수요의 감소로 지적하고 있다.

관광사업의 홍보와 관련해서는 조사업체의 대부분(82.9%)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홍보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 매체는 주로 비용이 저렴한 홍보 인쇄물(47.8%)이나 신문·잡지의 토막광고란(18.5%) 등을 이용하고 있다. 단, 대규모 숙박업체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광고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5백만원 미만의 홍보활동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업체가 조사업체의 52.1%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편 관광기념품 제조 및 판매현황은 공예품 원자재와 관광기념품의 경우 역내 조달업체 비중이 각각 45.5%, 55.6%에 그쳤다. 또한 완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한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도 도내 생산품은 27.8%, 육지부 생산품은 5.6%로 나타나 생산자와의 연계도 극히 저조하다. 관광기념품의 향토색 반영정도의 경우에는 공예품 제조업체는 대부분(81.8%)이 향토색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기념품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동 비중이 38.9%로 낮은 수준이다.

III. 濟州觀光의 當面課題

1. 濟州觀光의 競爭力 檢討

제주도는 최근 하와이, 괌, 호주, 동남아 등 주변 해외관광지에 비해 관광비용과 관광매력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불건전한 관광이미지 때문에 주요 시장인 내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이 제주관광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常夏의 관광휴양지로서 환경정비가 잘되어 있고, 레져.스포츠, 쇼핑 등 관광선택의 폭이 넓은데다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시설이 전반적으로 충실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들은 친근감, 친절도, 치안상태 및 향후 선호 방문지 부분에서도 제주도에 비해 단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주요 관광지들은 보는 관광지 및 즐기는 관광지로서 모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쇼핑 등「할거리」가 없으며 물가가 비싸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또한 좋지 않은데다 가족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레져.스포츠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숙박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관광산업이 아직도「보는 관광」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므로 내도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형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여행형태는 가족단위 등 개별여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혼여행 및 일반단체여행은 차츰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 전략수립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일본의 여행업체들은 여행알선 수수료 마진이 적어 제주관광 알선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비용 및 관광매력면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은 숙박시설 및 골프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한.일간 직항노선이 적어 접근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가 주변의 다른 경쟁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은 비수기가 길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관광비수기는 연간 약 180일 정도로서 관광수요의 계절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 겨울철의 경우에 제주도의 관광유인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체재기간은 대부분 2박3일 또는 3박 4일간 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우리 나라 전체 숙박여행객의 체재기간과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 1박 2일에 그치고 있는 전국의 경우와는 달리 3박 이상 관광객의 비중(40.0%)이 전국 수준(25.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제주도가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 국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평균 숙박일수가 8.37일인 하와이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고, 싱가포르의 3.3일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행경비 지출형태를 보면 내국인은 숙박(29.3%), 식음료(19.2%), 육상교통(16.7%), 기타(17.0%), 쇼핑(16.7%)의 순으로 지출하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흥오락비 등

기타 경비의 지출이 가장 높고(35.5%), 이어서 숙박, 식음료, 육상교통,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의 유명관광지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경우 교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쇼핑비 지출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행태는 제주도의 경우 호텔이용의 비중이 56.8%로 전국의 12.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와이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호텔 및 콘도 이용이 각각 94.8%, 72.7%로 제주도보다도 더 높아 고급휴양지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밖에 제주도와 하와이, 괌, 동남아지역, 중국 등 주변 관광지간의 경제외적인 관광여건 및 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그 동안 관광자원 개발 및 투자의 부진으로 제주관광의 대외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방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92년 중국방문의 해"를 중국관광 도약의 해로 정해 관광진흥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1993년 관광수입 획득목표를 40억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광당국은 관광산업 구조 개선, 외국인의 중국내 관광개발 자본 유치, 시장수요에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추진해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인접시장에서 한국을 주요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의 중국여행 규제 완화를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방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관광도 자원성 면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경쟁관계에 있는 국제관광지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국내와 일본, 동남아지역은 물론 장차 중국까지 포함해서 제주도 주변에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제주관광의 미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주변 여타 관광지와 경쟁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민, 업계, 당국 등의 단합된 노력과 중·장기적인 관광진흥 전략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2. 濟州觀光의 問題點

1)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競爭力 상실

그 동안 제주도는 국내에서 관광목적지로서의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이러한 독점권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는 주변여건이 보다 많은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바, 과거와 같은 관광부문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관광여건을 불리하게 하는 주변환경의 변화로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선호 추세, 주요 해외시장인 일본인에 대한 NO－VISA의 한국 전역으로 확대 및 중국여행 자유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UR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축을 타개하고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수요가 전국적으로 분산되고 있다. 이들 여러 지역의 관광단지는 자원성에 있어서는 제주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성이나 접근성에 있어서는 제주도보다 경쟁력이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관광개발이 자원보다는 시장위주로 가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 관광개발 방향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觀光開發에 대한 부정적인 認識

제주도의 관광은 상품생명주기(product life cycle)관점에서 보면 정체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없는 한 관광목적지로서의 생명이 서서히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관광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결여되어 있고, 상품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도민의 단합된 노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주도적 관광발전전략이 미흡하였다. 즉 기존의 제주도 관광개발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적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이었던 만큼 제주도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관광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특히 외래자본이 중심이 되어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해만 남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물론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주경제의 현실은 도민이 참여하는 내발적 관광개발의 장애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과거의 외발적 관광개발전략과 미숙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관광개발이 곧 환경파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장차 제주도는 보전적 관광개발의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민들도 제주관광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합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탈피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선진각국이 환경, 첨단사업과 함께 21C의 3대 주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광홍보에 나서고 있을 정도로 투자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하지만 관광은 손쉬운 사업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치밀한 전문성에 바탕을 둔 치밀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자본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도민자본이 영세하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준비부족으로 도내 자본만으로의 투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관광기술의 축적 및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외부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때문에 도내에서는 아직도 외부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투자유치 등에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觀光事業體의 영세성과 과당경쟁

제주지역 관광사업체들이 전국 수준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그리 뒤지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4.7%인 반면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9.3%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여행업체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거 자본금 5천만원이면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예품제조업은 물론 관광기념품 판매업체도 면세점 3개 업소를 제외하고는 그리 내세울만한 대형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주도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은 자금능력 부족을 가져오고 규모의 경제 및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 등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행업과 차량임대업의 경우에는 1985~1991년 중 사업체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수준의 배에 달하였다. 그에 따라 업체당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여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도 결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업종에 있어서 사업체의 수가 과다하게 난립함으로써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4) 觀光商品開發의 미흡

이미 오래 전부터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패턴이 다양해지고, 과거의 피동적인 관광에서 자연속에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능동적인 참여형 관광을 추구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몇 년 동안 이러한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투자유치가 부진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에 미흡해 관광매력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고 있고 점차 소멸단계에 전입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에 정기관광코스가 개설된 1976년 이후 지금까지 관광상품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과는 거리가 멀다. 아직도 자연경관 감상 위주의 "보는 관광"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관광시설의 이용의 편중은 주말에 시설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주중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등 그 격차가 심해 관광업계의 영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레저.스포츠 관광자원에 대해 자연관광자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는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유명관광지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짧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관광기념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 중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비중은 20~30% 정도에 불과하고 도외에서 생산 반입된 기념품이 70~8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관광기념품은 향토성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을 안내한 여행사 안내원 또는 운전기사 등에게 지불되는 높은 비율의 알선수수료와 유통구조의 복잡성은 가격인상요인이 되거나 기념품 판매업체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제주지역에서 쇼핑할만한 상품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며, 포장이 조잡하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 고유의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생산시설의 부족은 물론 브랜드 상품의 쇼핑시설의 부족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쇼핑비 지출 비중이 3.5%에 불과하여 전국, 하와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관광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제약요인은 악천후 때나 야간에 갈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야간관광상품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관광이 유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 고유의 민속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시급하고, 숙박시설 및 골프장, 낚시, 사냥 등 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쇼핑 등 다양한 선택 폭을 넓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요시장으로부터의 접근 교통망의 부족도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능력 확충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이 양을 지배하는 고급관광지로의 방향전환도 필연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觀光客 誘致를 위한 弘報 등 마케팅 活動의 미흡

제주관광에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주도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매력이 세계 관광시장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 지역과 같은 주변의 주요 시장에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관광 홍보의 구심적인 제주도 당국과 제주도 관광협회는 관광객 유치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여전히 이국적인 풍물과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만을 기다리는 자세이다. 이들의 연간 관광홍보활동에 따른 예산이 일개 특등급호텔의 마케팅비용보다 적다는 점만 보더라도 능히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형편에서는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해외시장의 개척은 물론이고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관광에 대한 수요의 계절적 불안정성과 주중.주말의 격차는 물론 연차적으로 관광객의 계절별 비중이 평준화되면서 관광수요의 계절적 불안정성이 많이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관광지에 비해서는 불안정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관광이 국내 수요기반을 확고히 하며, 또한 사계절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객 수용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관광업계나 공공단체의 개별적인 홍보활동은 재원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및 한국관광공사 제주개발본부 등이 공동 시스템을 구성하여 전문화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만성적인 관광부조리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주요 산업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부조리의 증폭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먹이사슬처럼 구조화된 관광부조리 문제는 제주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의 국제관광지에도 관

광부조리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전체가 대규모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부조리의 대명사처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동안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크게 해쳐온 관광부조리의 행태는 바가지요금, 강매 및 호객행위, 그리고 과다한 송객수수료 수수 등이다. 이러한 관광부조리 행위가 완전 척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제주 관광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다.

제주땅에 발 딛자마자 호객꾼의 호객대상이 되거나 농원이나 토산품점 등에서 물건을 살 것을 강요당하고, 식사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반면 내용이 형편없다면 관광객들의 제주관광에 대한 꿈과 이미지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시설이 좋더라도 관광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없다.

요즘들어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관광부조리 척결을 위한 자정노력이 확산되고 있고, 도당국에서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부조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자율정화나 대책 등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실제 도내 여행업체가 총 132개나 되는 등 여행사의 난립은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발생시키고 있고, 육지부 여행사에 과다한 송객수수료 제공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현행 37만원 내지 60만원 정도의 생활급에 못미치는 월급구조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체로부터 부당금품을 수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광부조리 문제는 제주도가 지향하여야 할 정직, 근면에 바탕을 둔 도민성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화합, 미래의 제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다소 관광경기가 침체된다 할지라도 관광부조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7) 觀光서비스 質의 저하

국제수준의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부조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관광지는 그 수준에 걸맞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제주도가 아무리 국제수준의 관광객 수용시설과 뛰어난 관광매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관광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면 훌륭한 관광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다.

특히 관광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는 제주관광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관련된 마찰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정상의 문제 등 제주관광과 관련된 부정적 기사가 타지역 언론에서 보도됨에 따라 제주도의 관광서비스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인지시켜 제주도 방문의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극복되고 관광에 대한 고마움 및 자긍심이 고취되지 않고서는 외국에서 찾아온 관광객에 대한 친절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각종 조사에서도 제주도내 관광종사원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실시한 관광사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업체 종업원의 52.8%가 근무기간 2년 미만이고 대졸 이상 종업원이 12.7%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요하는 관광호텔 및 여행업의 경우 1992년말 현재 자격증소지자의 비율이 평균 6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문성의 결여는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관광시설이 국제수준에 충분히 도달해 있어도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는 관광지들이 있다. 그 원인은 대부분 관광지의 위치와 관광자원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대정신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낙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관광지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친절과 관광종사원들의 서비스 질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상품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지향하는 국제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Ⅳ. 濟州觀光産業의 競爭力 强化方案

제주도에 따르면 1993년 제주도의 관광수입이 8,516억원에 달해, 이는 지역총생산(GRP)의 43.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제주도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변화도 있었지만 이에 대응할 적절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이 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제주관광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 시설확충, 인적 자원의 양성, 주민갈등 해소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착실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준비해 갈 때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주관광의 자원성이 국내에서는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경쟁관계에 있는 국제관광지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특히 국내와 일본, 동남아 지역은 물론 장차 중국까지 포함해서 제주도 주변에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제주관광의 미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손님을 모셔오기 전에 손님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막대하지만, 국제수준의 관광지로서의 수용능력과 여건은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제주관광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민자유치와 관광부조리 여론에 따라 악화된 제주관광의 이미지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1. 과감한 民間資本의 유치

그 동안 제주도는 국내에서 관광목적지로서의 독점권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이러한 독점권을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즉 제주도는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많은 경쟁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관광부문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관광부문의 총 투자액은 2001년까지 1조7천195억원이고, 이 중 97%인 1조6천741억원이 민간자본 유치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당국에서는 제주도관광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민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민자유치 홍보 및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상담실을 설치, 관광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등이다.

이 중에서도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어루어져야만 투자마인드가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본다. 즉, 관광산업에 대한 장기자금의 융자 확대, 일정기간 동안의 각종 조세감면, 대기업의 부동산 취득금지 완화 및 관광시설 투자제한 폐지, 행정처분의 일괄 의제처리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투자가들에게 제시될 때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대상은 도내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현실에서는 가급적 국내 유망기업체, 본도 출신 재일교포, 외국기업체 등 외부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외부자본 및 기술의 도입은 외부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한정된 이윤의 배분차원이 아닌 이윤을 확대시킨다는 차원(Positive－Sum－Game)에서 제주관광 발전에 편익이 더 많다. 이 때 외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정당한 이윤획득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유망한 업체를 유치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 자본력과 공익성이 부족할 경우 사업 인.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한 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부동산 투기성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유치시에는 실질적인 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복지를 고려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의 유치와 더불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형화 및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장개척능력과 경영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철폐와 함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UR 타결과 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붐이 조성될 것이므로 차제에 제주관광 진흥을 위하여 외국자본 및 기술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제주관광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는 도민자본 형성과 외부기업과의 협력 등을 동시에 추진하되, 초기에는 국내 유망기업이나 외국자본이 관광객을 유인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제주관광이 활성화되면 제주지역에서 형성된 자본과 기술력으로 참여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觀光認識의 提高

관광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환대정신인데, 만약 지역주민의 친절이 없는 경우에 관광객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해당지역 관광을 기피하거나 적대심마저 가질 수 있다. 제주도민들이 불친절한 요인은 대부분 개발이익에 대한 소외감에서 오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원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장차 제주도는 관광지 개발을 공원조성 개념을 도입하는 보전적 내지는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도 관광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개발은 무조건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외부자본의 도입은 위험하다는 일방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즉 도민들에게 관광산업이 미치는 제반 영향 및 유통구조, 개발실태 등을 적극 이해시켜 자발적인 관광요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광인식제고는 즉흥적인 처방에 의해서는 달성되기가 어렵고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인식강화의 추진은 인식강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작성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관광인식 제고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관광서비스 수준이 제주도민이 관광에 대하여 느끼는 고마움이나 중요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즉 관

광진흥을 통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때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에 대한 환대(Hospitality)가 가능하게 된다.

3. 觀光서비스의 質 향상

국제수준의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부조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관광지는 그 수준에 걸맞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제주도가 아무리 국제수준의 관광객 수용시설과 뛰어난 관광매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관광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면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없다.

간혹 관광시설이 국제수준에 충분히 도달해 있어도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는 관광지들이 있다. 그 원인은 대부분 관광지의 위치와 관광자원 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대정신 부족에 따른 서비스 질 낙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관광지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친절과 관광종사원들의 서비스 수준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제주도 관광종사원들의 불친절 문제는 제주관광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즉 관광객들은 제주도에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제주관광이 그들에게 부조리의 온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예컨데 아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인 싱가포르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나 대단한 자연관광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싱가포르 전국민과 전 관광관련 종사자들이 자기 자신이 곧 싱가포르를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 몸에 밴 친절과 질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관광목적지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인적 서비스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재방문 욕구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매력있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제주관광이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광종사원들의 인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켜 나가는 길이다.

관광과 관련된 종사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관련업체 사업자와 경영자들이 관심을 갖고 단계적인 보수의 현실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해외 연수기회 부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고질적인 관광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여행업의 등록기준 강화, 모범택시의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관광협회 등이 분야별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종사자들을 포상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4. 觀光客 受容施設의 확충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는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보는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리조트형 각종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국제회의, 골프, 해양스포츠, 패러글라이딩, 수렵, 낚시, 민속공연 등에 필요한 다양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 국제적인 휴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 단지, 10개 지구 관광지 중에 환경훼손이 민감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해양 및 제주도의 전통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Theme Park) 조성, 수중도시 및 해중 전망탑, 사파리 등의 시설을 과감히 유치한다. 그리고 동남아 관광객 유인을 통해 관광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키장(실내 돔 스키장 포함), 눈썰매장 등의 동계 관광시설의 개발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관광행태의 변화에 따라 신혼부부나 일반단체가 감소하는 반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이들을 위한 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 등의 확충과 탑동이나 용두암

지역과 같은 해변에서의 해상 레이져 쇼 등 첨단과학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에 악천후나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미비는 제주관광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속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과 향토야시장 정도는 개설되어야 하고, 악천후에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실내 스포츠센타 등 실내 위락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위락시설의 확충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관광객 1인당 지출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므로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되더라고 제주도의 관광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쇼핑 등「할거리」가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제주 고유의 관광기념품 개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부터라도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공예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공예품 디자인 개발공모전을 통한 우수공예품 발굴 및 상품화, 기술인력 양성 및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제주의 혼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의 확충과 관광단지와 같은 일정 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여 쇼핑관광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주관광의 매력을 창출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주요 관광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의 강화는 제주관광 발전의 중요한 요건이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더욱이 대만과의 단교로 인한 직항노선 폐쇄로 대만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한 것만 보더라도 접근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도쿄 및 대만과의 제주직항노선이 조속히 개설되어야 하며 상해, 홍콩 등 주변 주요 시장과의 직항노선 개설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항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의 여건조성은 제주도민의 관광진흥에 대한 의지 표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 새로운 觀光商品의 開發

제주도의 관광상품은 자연경관 등을 대상으로 한「보는 관광」위주의 단조로운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골프, 등산, 낚시, 수렵 등 소수의 레져·스포츠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광상품 조차도 여행사간의 과당경쟁 및 바가지요금 등으로 고급의 관광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주관광의 매력이 감소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지만 그 중 제주도의 관광업계가 독자적인 신상품 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관광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관광상품을 목적별, 시장별, 대상별로 다양하게 개발·관리하고 국제관광환경의 변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및 국내 관광시장에서 기존의 박리다매 방식 또는 패키지 투어 중심의 판매로는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의 수준높은 관광상품과 동남아 등에서 개발되는 생태관광의 틈바구니에서 제주도의 경쟁력 있는 고유 관광상품이 없고, 국내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관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관광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장래의 관광은 단지 관광지를 주유 관람하는「정적 관광」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에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여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중시하는「동적 관광」이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여행사들이 기획·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람형 패키지 투어 상품은 이제 거의 대중화되어 차별성과 신선미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여행업체들은 특수소재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이라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수소재관광(SIT)이란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적 관광으로서, 관광의 질과 그 학습효과를 중시한다. 즉 관광객들은 SIT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보람, 모험심,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SIT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전문집단으로서의 행동규범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중관광형태에서 나타나는 일탈행동이나 관광지 주민과의 충돌을 야기할 염려가 적다. 또한 SIT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SIT의 대표적인 유형은 연수여행(Educational Tourism)과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이다. 이 중 모험관광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생태관광의 한 형태이다. 모험관광은 주로 미개발된 자연환경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자연에 도전하거나 희귀 동식물 등을 탐사하는 동적 관광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관광에 있어서도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제주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주요 상품으로는 식물·노루·철새관찰, 테우타기, 크로스컨트리, 하이킹, 패러글라이딩, 기구타기, 요트세일링,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동굴탐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모험관광 상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험에 내포된 위험을 최소화하여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를 선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SIT 상품으로서의 연수여행은 특정분야(언어, 문화, 민속 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최근들어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답사여행 등에 대한 참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도 관광업계 등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제주의 역사와 민속, 한란재배법, 제주의 원예 등 수준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SIT 이외에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체재형 실버관광상품, 경마장관광, 가정방문관광 등도 제주관광에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6. 旅行業의 구조 조정

UR협상에 따른 여행업 시장의 개방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대형 여행업체들이 우리 나라에 대거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여행업 시장의 개방은 국내

여행업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인바운드(Inbound)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여행업체들이 자금, 전문인력,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도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여행업체는 물론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여행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과당경쟁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낙후된 형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여행업체가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여행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차 지금과 같은 영세한 여행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전문화 및 대형화된 여행업체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외국 여행업체와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자율조정도 필요하지만, 여행업 등록기준의 강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방정부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또한 여행업체는 정보집약적인 사업인 만큼 신속한 정보의 확보는 경쟁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행자의 수요가 점점 다양한 관광상품을 요구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의 낙후로 인해 관광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관광상품의 제공은 곧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및 해외영업망의 확충과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의 이용은 신속·정확한 정보의 입수와 제공으로 관광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非需期 觀光客 유치 활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는 하와이나 동남아 등 경쟁 국제관광지에 비해 비수기가 길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제주관광에 있어서 기존의 비수기 타개 대책은 주로 홍보활동의 강화, 산발적인 소규모 이벤트행사 및 이용가격 인하 등 소극적이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혀나가기 위해서는 주중과 비수기에 대형 관광이벤트 사업(회의산업 포함)을 유치하여 제주도를 전천후 4계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관광이벤트 사업의 효과는 크고 다양하다. 우선 이벤트는 지역 공동체의 자부심을 높이고 이해집단을 결합시켜 유대감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벤트는 정적인 관광자원에 활력을 주어 관광목적지의 강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적절히 운영되었을 경우 비용에 비해 높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벤트의 산발적 개최는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고 관광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게 된다. 이벤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이벤트의 주제, 소재, 표적, 목적, 효과의 수혜계층,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및 회의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관광협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국내.국제회의나 기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 국제회의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복합 컨벤션센터의 건립도 추진하여야 한다.

8. 弘報 등 마케팅 강화

제주도가 국내 수요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제 수준의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시설 확충 등과 더불어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 마케팅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관광시장 다변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략개발은 국내외 잠재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조사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그간 제주도는 방문객수, 관광수입, 국적 등 일반적인 시장정보에 의해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장차 제주도는 마케팅 전략개발에 앞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관광업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홍보활동은 재원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한계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과 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등이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주도 당국과 업계는 "9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제주관광의 서비스 제고노력을 외부에 알리는 등 잠재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기 부각할 수 있는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道民이 參與하는 觀光事業

상차 제주관광의 진흥전략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개발이 지역 주도적 발전전략의 미흡으로 도민들이 개발이익이 모두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관광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관광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못함으로써 민간자본의 투자유인력이 떨어지고 관광개발이 지연되어 오늘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내 관광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 자금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유망한 분야에 융자 지원하여 관광사업에 참여케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도민들이 갖고 있는 자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합작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자본과의 제휴시에는 사업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의 이전보다는 지상권만을 분양하거나, 지배인(店長) 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지배인 제도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자금력, 운영능력, 정보수집 능력 등의 측면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자본과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사업가와 합작 투자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경영한 후 토지주에게 기부체납케 하는 형태이다. 이 때 외부사업가는 계약에 따라 토지주가 추천하는 사람을(토지주의 자녀, 친인척 등)을 지배인으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업운영에 관한 노 하우(know how)를 축적시켜주어야 한다. 토지주는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체를 인수받아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관광개발과 관광산업 진흥은 그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도민의 관광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키고,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훼손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V. 맺 음 말

제주도의 관광은 지역발전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의 부양차원에서도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관광산업 전반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도 등 국내 주요 관광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행정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관광진흥정책이 제주관광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 당국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절실하다.

제주도민들도 관광업계의 부조리 척결과 적절한 수용시설 확충, 체계적인 관광진흥 전략 수립 등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제주관광의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개방화.국제화.지방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행동도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제주도민 모두가 "변혁의 시대에는 항상 위기와 함께 기회가 오며 그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는 점을 새삼 되새겨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차 제주관광 진흥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제주도가 특색있는 레저시설을 갖춘 전천후 문화관광지, 단기체류 위주의 국내관광지에서 장기체류 위주의 국제관광지, 그리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휴양관광지로 탈바꿈하여 관광객들을 완벽히 만족시켜주는 관광지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1. 교통부, 「관광진흥종합대책(안)」, 1993.
2. 교통부 · 한국관광공사, 「'93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3.
3. 김태보 외, "제주도 관광소득의 경제효과 분석", 제주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제3집, 1991.
4. 김한욱,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과제",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공」 6월호, 1994. 6.
5. 대한항공 교통산업연구원, 「제주도 방문 일본인 관광객 감소원인과 대책」, 1993.
6. 이주형, "여행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집」 제10집, 경기 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 1993, pp.223－243.
7. 제주도, 「제주도 관광진흥계획」, 1994.
8. 제주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 1994.
9. 제주도, 「주요행정현황」, 1994.
10. 제주도 · 제주도관광협회, 「관광객 만족도조사」, 1993.
11. 최승담, 「전환기의 제주관광－문제점 및 발전방향 모색」, 1994.
12. 한국개발연구소,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1989.
13.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5 · 6월호 , 1994.
14.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관광산업의 구조분석」, 1993.
15. 허향진 외,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교연구",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15호, 1991, pp.233－255.
16. Echtner, C. M. and J. R. Brent Ritchie, "The Measurement of Destination Image :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Spring 1993, pp.3－13.

◎ 제 2 부

— 제 2 주제 발표 —

서비스産業의 市場開放과 競爭力向上方案

— 濟州道를 中心으로 —

金 泰 保

濟州大學校 經濟學科 敎授

Ⅰ. 序

Ⅱ.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1. 서비스産業의 定義와 分類

2.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Ⅲ. 서비스産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1. UR타결에 따른 서비스産業의 市場開放計劃

2. 主要 서비스産業別 市場開放과 그 影響

Ⅳ. 서비스産業의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1. 國際化 開放化時代下의 濟州經濟의 發展方向과 戰略的 課題

2. 主要 서비스産業別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Ⅴ. 結

Ⅰ. 序

우루과이 라운드(UR)가 지난해 12월 15일 극적으로 타결되고, 지난 4월15일 마라케쉬에서 그 최종의정서가 서명됨으로써 내년 1월부터는 GATT를 대신하여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UR타결과 함께 전후 약 50년간 세계무역을 주도해 왔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95년부터 WTO 체제의 신국제질서가 대두하게 되었다. GATT체제는 주로 공산품교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WTO체제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금융 및 자본·기타 서비스 등 모든 산업 모든 형태의 교역 및 투자활동을 포괄하게 된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産業의 국제적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산업 및 기업간의 국제경쟁은 그야말로 범세계적인 무한경쟁체제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産業의 경우 금융 건설 유통 운송 등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과 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등의 광범위한 분야가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ATT 11개 분야중 교육보건, 사회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78개 업종을 양허키로 약속했는데, 협상때마다 자유화 대상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 유통, 운수업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UR협상타결에 따른 우리경제의 國際化 開放化는 그 영향파급이 국민경제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곧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경제의 하위단위인 지역경제도 예외가 안된다.

濟州道는 1970년대 초부터 觀光主導型 지역개발을 목표로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이 추진되었으며, 1985년 이후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을 추진한 결과, 제주도에 관광지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觀光産業을 기본산업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결과, 제주경제는 1970~1992년의 기간동안에 年平均 13.6%의 괄목할 만한 경장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특히 관광수입은 336배, 감귤수입은 183배 각각

중대하여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UR협상타결 이후 급속한 국제화 개방화에 의하여 제주경제는 適應危機를 맞고 있다. 제주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는 제주도내 全산업의 시장개방을 의미하는데, 모든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제주도내 전산업은 새로운 환경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글은 UR협상타결 이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나타나는 국제화 개방화의 對外的 環境變化가 제주경제, 특히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주경제의 발전가능성을 타진함은 물론, 나아가 국제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1. 서비스産業의 定義와 分類

서비스産業에 대한 定義와 그 포괄범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國際的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한 統計作成과 分類方式에도 일치된 기준이 없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 財貨와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나 대표적인 정의라 할 수 있는 TP Hill의 정의에 의하면 서비스는 "經濟主體의 經濟活動에 의하여 他經濟主體 및 所有物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行爲"로 규정하고 있다. 재화와 구분되는 서비스의 특징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無形性(intangibility), 異質性(heterogeneity), 消滅性(non-storability), 同時性(simultaneity) 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의 分類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産業分類方式에는 C Clark의 3分類法(제1차, 2차, 3차산업), HB Chenery의 4分類法(1차산업, 공업, 공익사업, 서비스업), 世界銀行의 3分類方法(농업부문, 공업부문(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포함), 서비스부문) 등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韓國標準産業分類方式(KSIC)에 의해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방식은 UN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國際標準産業分類方式(ISIC)을 기초로 우리나라산업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표준산업분류(KSIC)의 大分類에 따르면 산업은 ① 농림수산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⑤ 건설업, ⑥ 도소매 숙박업, ⑦ 운수창고 및 통신업, ⑧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1차, 2차, 3차산업으로 구분하는 C Clark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3次産業은 ① 농림수산업, ② 광업, ③ 제조업을 제외한 부문, ④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⑥ 건설업을 포함하여 ⑥ 도소매 음식 숙박업, ⑦ 운수창고 통신업, ⑧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⑨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망라하게 되는데, GATT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 산업 가운데 농업부문과 광공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3차산업 범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전통적인 3차산업 범주로 확대하여 접근토록 한다.

2.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濟州道는 면적이 적국의 1.8%인 1,825㎢이고 인구는 1992년말 현재 521천명이며 1인당 도민총생산이 1991년말 현재 409만원으로 주로 농업 외에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이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제주지역경제의 경우 附加價値 및 취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地域總生産(GRP)에 대한 비중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년의 33.5%에서 1971년의 경우 42.7%, 1981년 54.8%, 1991년 58.5%로 나타나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 취업구조면에서 보더라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1961년의 경우 12.7%에서 1971년의 경우 15.0%, 1981년의 경우 25.1%, 1991년의 경우 58.4%로 증가하여 제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 이하에서는 제주도 서비스산업의 주요 업종별로 그 위치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제주도 서비스산업의 지역총생산(GRP)을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사회 개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의 비중의 경우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제주도 서비스산업 비중의 추이

(단위 : %)

구분 \ 연도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GRP중 서비스 산업 비중	33.5	30.4	42.7	47.2	59.8	53.6	58.5
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12.7	13.7	15.6	16.2	25.1	38.7	58.4

자료 : 지역통계연보, 도내총생산

〈표 2〉 전국과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의 GRP 비중

(단위 : %) (1991년 기준)

	제주도	전국
비서비스산업	41.5	42.2
서비스산업	58.5	57.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2	2.1
건설업	14.4	12.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1.6	10.4
운수창고및통신업	8.1	7.2
금융보험및부동산	11.2	15.4
사회개인서비스및기타	12.0	10.0

자료 : 통계청, 도내총생산(1993)

〈표 3〉 제주도 서비스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 연도	1980	1985	1991
비 서 비 스 산 업	39.6	45.7	41.5
서 비 스 산 업	60.4	54.3	58.5
전기가스및수도사업	1.1	1.6	1.2
건 설 업	12.4	8.5	14.4
도소매및음식숙박업	8.1	12.4	11.6
운수창고및통신업	11.5	8.8	8.1
금융보험및부동산	12.2	10.9	11.2
사회·개인서비스및기타	15.1	12.9	12.0

자료 : 지역통계연보

제주도 서비스산업의 지역총생산(GRP)에 대한 주요 업종별 비중의 추이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잇는 반면,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 및 기타의 경우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서비스업종의 경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기본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본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 왔다. 관광산업의 성장추이를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제주방문 관광객이 1961년 1만1천명과 불과하던 것이 1971년 30만, 1981년 72만, 1992년 342만에 달하였다. 그 성장추이를 보면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1980년을 전후한일련의 국내사태와 제2차 오일쇼크 등에 의한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그리하여 관광수입도 감

귤수입을 상회하여 1992년말 현재 7,470억원에 달하여 관광객 기준 311배, 관광수입 기준은 34,653배의 증가를 가져와 서비스산업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다.

제주경제내 서비스産業의 經濟的 位相은 성장잠재력과 취약성을 중심으로 産業構造分析을 통해 알 수 있다. 地域의 경제성장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先導産業(leading sector)으로 선정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중심과제가 된다. 여기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의 선정기준은 수요측면에서 선도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높고,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율이 높다는 점과, 이외에 산업의 상호의존관계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즉 소득탄력성이 높고 생산성 향상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간 상호의존 효과가 높은 산업일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제주경제의 성장잠재력은 産業別 成長要因分析, 生産性分析, 産業關聯效果分析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산업부문별 성장요인은 Chenery-Shishiso-Watanabe 모형에 의하여 분석하여 보면 〈표 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1991년간의 지역산출 성장요인은 地域內 需要增加(37.0%) 보다 輸出增加(80.4%)의 효과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제주경제의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농업과 관광산업 및 기타 서비스업이 수출증대 효과에 의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생산성분석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2차산업이, 2차산업보다 3차산업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상호간연관효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은 건설업, 사회서비스 및 기타, 관광산업 등이고 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은 금융 보험 및 부동산, 운수 보관 및 통신, 사회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산업부문별 성장잠재력을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제주경제의 기반산업인 농업은 산업연관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예견되면서 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관광산업은 후방연관효과가 지역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선도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선도산업으로 하여 지역내 서비스산업인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통신 및 창고업, 금융 보험 및 부동산업 등에의 산업연관파급효과를 증가시켜 나갈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표 4〉 濟州訪問 觀光客數 및 觀光收入

(단위 : 천명, 백만원)

구분 / 연도	관광객 (명)			관광수입
	내국인	외국인	계	
1961	11	(190)	11	23
1966	106	2	108	227
1971	294	13	308	2366
1976	349	20	369	6753
1981	682	42	724	42825
1986	1492	115	1842	143755
1991	2929	275	3204	513200
1992	3179	243	3422	797024

자료 : 지역경제지표

〈표 5〉 濟州地域의 産出成長要因

(단위 : %)

區分 / 期間別	地域內需要增加	輸出增加	輸入代替	技術變化	地域總生産增加 (백만원)
1980~1986	35.6	60.3	-14.8	0.9	556767
1986~1991	21.7	93.4	-12.2	-3.6	519438
1980~1991	37.0	80.4	-15.8	-1.9	1076206

資料 : 濟州經濟의 構造的 特徵과 成長展望, 中央大 經濟學博士學位論文, 金泰保, 1990.

〈표 6〉 제주경제 산업별 산출성장요인(1980～1991)

(單位 : %, 백만원)

要因 / 産業別 / 期間別	地域內需要增大			輸出增大			輸入代替			技術變化			地域産出增加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80～86	86～91	80～91
농업	4.9	31.8	2.1	114.7	147.2	108.7	-1.1	-21.2	-4.5	-8.7	-57.8	-6.2	89280	36696	125877
임업	-20.3	-38.7	-13.3	54.6	60.9	49.7	91.7	61.4	96.6	25.9	16.4	-32.9	21992	-4491	17510
어업	0.1	5.3	2.5	100.2	96.9	98.1	-0.2	-0.9	-0.5	-0.2	-1.3	-0.1	72865	64556	137422
광업	166.3	-12.2	156.4	-88.6	13.9	-77.0	-69.8	-2.1	-71.8	92.0	100.4	92.3	-343	-79	-423
식·음료품및연초	99.0	-870.8	131.2	9.3	-100.2	13.0	-8.8	960.7	-44.7	0.5	110.4	0.5	63173	-2678	60494
섬유및가죽	-12.8	-6.7	-10.2	61.5	-7.6	24.0	13.7	101.8	68.5	37.6	12.5	17.5	-9265	-13999	-23264
제재및목제품	30.8	-63.1	12.9	36.8	-32.4	24.2	11.1	176.1	45.0	21.3	19.5	17.8	-13380	-4576	-17956
종이·인쇄및출판	129.7	119.0	208.1	23.4	39.0	48.8	-81.3	-159.9	-185.4	28.2	101.9	28.5	-1381	-4547	-5929
섬유화학제품	90.5	-21.4	5.1	-44.5	-10.7	-70.0	-92.3	27.9	-43.9	146.2	104.2	158.5	-1168	-6490	-7578
비금속광물제품	-172.5	-105.9	-189.3	231.9	171.6	235.7	48.1	10.9	64.7	-7.4	23.5	-11.0	13051	-5303	7748
금속1차·금속및기계	67.3	-51.4	-30.7	-111.3	-25.3	-59.2	-2.5	146.4	145.3	146.4	30.3	44.7	-2917	-29657	-32575
전력·가스·수도	60.7	5.1	10.6	21.2	92.6	88.9	-0.8	-1.3	-1.3	18.9	3.7	1.8	11656	25146	36802
건설업	220.8	35.9	451.6	-114.3	54.4	-345.6	0.2	5.8	9.3	-6.7	15.5	-15.3	-55167	20041	-35126
도·소매업	79.4	79.8	84.0	16.7	18.6	18.6	-0.6	-8.9	-5.0	4.4	10.5	2.3	32385	32018	64404
관광	37.8	3.2	15.0	65.6	96.5	85.5	-2.0	-0.9	-0.1	-1.4	-0.6	-0.4	185623	96223	281846
운수·보관및통신	31.6	46.0	43.6	58.7	42.5	54.4	-0.7	-4.2	-2.9	10.4	15.7	5.0	33106	45817	78923
금융·보험및부동산	67.6	38.2	63.7	20.8	20.4	25.0	-14.4	6.9	-4.1	26.1	34.4	15.3	68630	66267	134898
사회서비스및기타	75.9	351.3	163.6	10.7	17.7	17.7	-1.6	-397.8	-97.0	14.9	119.2	15.6	48625	-21800	26826

註 : 模形에 의해 推計

資料 : 金泰保「上揭論文」

〈표 7〉 産業別 生産性 分析

(단위 : 천 $)

산업 / 연도	1 차 산 업	2 차 산 업	3 차 산 업
1961	0.09	2.04	0.39
1971	0.33	1.51	1.53
1991	1.76	6.08	8.63
1991	8.01	8.31	12.08

〈표 8〉 産業關聯效果(1986年)

區分 / 産業別	後方關聯效果	前方關聯效果
전 력 · 가 스 · 수 도	0.8542	0.9450
건 설 업	1.1845	0.8545
도 · 소 매 업	0.9740	0.9841
관 광	1.0180	0.9011
운 소 · 보 관 및 통 신	0.9526	1.1032
금 융 · 보 험 및 부 동 산	1.0506	1.4962
사 회 서 비 스 및 기 타	1.1749	1.2353

資料 : 濟州經濟의 構造的 特徵과 成長展望, 中央大 經濟學博士學位論文, 金泰保, 1990.

III. 서비스産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1. UR타결에 따른 서비스産業의 市場開放計劃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에 대한 개방압력은 산업별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1985년 2월 韓美貿易實務會談을 시발로 1985년중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雙務協商을 통해 광고, 해운, 통신서비스 영화 등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개방압력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시장은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을 계기로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UR 협상의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상의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고 양허계획에 따라 향후 개방의 범위와 실질적 내용을 확대해야만 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GATT 사무국의 분류에 따라 사업서비스(전문직서비스, 컴퓨터관련, 연구개발, 임대부동산, 광고 및 컨설팅 등 기타서비스), 통신,(시청각서비스 포함),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사회, 관광, 문화, 체육, 운송 등 11개 서비스 분야의 155개 업종을 자유화협상 대상으로 하였는데,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통해 최혜국대우 등 회원국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확정하였다. 첫째, 모든 회원국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둘째, 단순히 재화가 국경을 이동하는 무역과 달리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국경거래에 추가하여 서비스의 공급주체 즉 외국인 직접투자, 인력이동 등 광범위한 분야를 자유화 협상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 대상은 ① 국경간 서비스 공급으로 외국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위성을 통한 뉴스공급 등(서비스의 이동)이고, ② 海外消費로 해외관광, 해외유학, 환자의 해외치료 등(소비자의 이동)이다. ③ 商業的 駐在로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의 설립(자본의 이동)이고, ④ 自然人의 駐在로

서비스 공급인력과 현지주재(노동의 이동)등이다.

셋째, 자유화 추진방식은 모든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시장개방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약 5년주기)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TT사무국 서비스업중 분류표의 11개 분야 155개 업종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즉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분야에 걸쳐 78개 업종이 양허에 포함되었다. 이들 양허업종 가운데 73개의 업종은 이에 개방되어 있는 업종으로서 市場接近이나 內國民待遇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이 다소 완화되는 내용이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1995년 1월까지 자유화되는 업종은 2개 업종(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 사진서비스)이고, 1996년 1월까지 자유화되는 업종은 3개 업종(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 건설기계장비 임대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개 이상을 양허한 미국, EC,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음과 같이 예견된다.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타결에 따라 모든 서비스 부문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양허협상에서 자유화약속을 한 범위내에서 자유화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사항 외에는 아무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거에 명목상으로 자유화를 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각종 국내규제나 절차 등을 통하여 외국인의 시장진출을 어렵게 해왔던 관행이 철폐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셋째,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화 약속대상업종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점차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표 9〉 UR 서비스분야 최종양허업종(15개 분야 78개 업종)

구 분		업종수	양 허 업 종
1. 사업 서비스 (31개 업종)	전문직 서비스	6	공인회계, 세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5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터 처리,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인문·사회·과학부문 R&D서비스
	임대서비스		선박임대서비스, 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
	기타 사업 서비스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기술적 진단, 농축산업관련자문, 과학기술자문, 국제회의 용역 기타 서비스, 어업관련자문, 광업관련자문, 장비유지 및 수선, 사진, 포장, 인쇄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 (9개업종)	통신서비스	7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 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
	시청각서비스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제작·배급서비스
3. 건설		5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공사 기타 서비스
4. 유통		4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서비스
5. 환경		3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 서비스
6. 금융		15	예금 및 관련 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금융중개, 투자신탁, 금융결제, 투자자문,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
7. 관광		3	호텔, 여행 알선, 관광안내서비스
8. 운송 (8개 업종)	해운	3	외항여객운송, 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도로운송	1	화물트럭킹서비스
	운송보조서비스	4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 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자료 : 대한민국 정부, 〈UR/서비스 최종양허표(안)〉, 1993. 12.

〈표 10〉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 수 비교

(단위 : 개)

구 분	한 국	미 국	E C	일 본	캐나다	중 국	태 국
1.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2.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3. 건설(5)	5	5	5	5	5	5	3
4. 유통(5)	4	4	4	4	5	–	1
5. 교육(5)	–	2	4	4	–	–	–
6. 환경(4)	3	4	3	4	4	–	–
7. 금융(17)	15	16	16	16	16	12	13
8. 보건 · 사회서비스(4)	–	4	2	2	–	–	–
9. 관광(4)	3	4	2	3	2	1	2
10. 문화 · 오락 · 스포츠(5)	–	4	3	4	–	–	1
11. 운송(35)	8	15	17	16	20	7	11
12. 기타(1)	–	–	–	–	–	–	–
합계(155개 업종)	78	107	110	105	95	46	55

자료 : 경제기획원, 〈분야별 UR협정과 대응과제〉, 1993. 12.

2. 主要 서비스産業別 市場開放과 그 影響

1) 建設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1) 建設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우리나라 건설업은 60년대 이후 국민경제 고도성장에 의한 건설수요의 증가 및 70년대 중반이후 해외건설수출의 급신장에 의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국내건설은 1987년 이후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부동산경기회복, 그리고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주택호황으로 건설업의 과열현상을 보였으나 1991년 중에 취해진 건

설경기 과열진정책에 의하여 진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내건설시장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년, 1990년에는 국내건설수주액 성장율이 62.4%, 63.7%를 기록하여 과열현상을 보이다가 1992년이후 진정되어 있다. 해외건설수주로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 13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발전하여 1993년 51.2억달러를 수주하였다.

국내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수준을 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이나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생산단위당 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필리핀, 태국보다 3~4배 높은 수준인데, 필리핀, 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생산단위당 임금이 한국의 25~5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업체의 차입금 의존도도 51.9%로 대만, 미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아 자금조달구조의 경우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금융비용부담률도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대만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 다만, 국내건설업체들의 기술수준의 경우 시공분야에서 단순부문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고급부문은 선진국에 약간 영세이고 첨단부문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건설업체의 경우 1965년 이후 해외건설시장에서 3,000여건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2,200여건을 완공함으로써 다양한 공사경험을 보유함으로써 비가격 경쟁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업은 70년대 및 80년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주택공급 등을 통하여 제주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성장하여 왔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 사업체수는 1976년 67개에서 1991년 302개에 달하여 전국 건설업체수에서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면에서 보면 1976년 2.0%에서 1990년 1.7%로 낮아졌다. 그러나 건설수주액 면에서는 전국수주액에서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6년 0.3%에서 1990년 1.3%로 크게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체당 수주액은 1976년 9천만원에서 1990년 16억 9천만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업체당 수주액에 대한 비율 면에서 보면 아직도 79.3%에 불과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표 10〉 한국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추이

(단위 : 억원, %)

연 도	총계약금액(A)	민간공사계약(B)	민간건축공사금액(C)	구성비(B/A)	구성비(C/B)
1980	29,728	12,280	11,075	41.3	90.2
1985	65,558	27,062	24,254	41.3	89.6
1986	75,317	35,988	32,993	47.8	91.7
1987	87,658	41,880	37,603	47.8	89.8
1988	99,217	58,627	53,649	59.1	91.5
1989	161,097	100,161	89,687	62.2	89.5
1990	263,765	157,952	139,007	59.9	88.0
1991	313,294	176,305	162,970	56.3	92.4
1992	348,511	188,282	178,979	54.0	95.1

자료 : 대한건설협회.

〈표 11〉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65~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전 체	84,162	2,412	6,770	3,038	2,751	5,117
중 동	75,544	1,442	5,812	869	548	1,810
(사 우 디)	(48,373)	(293)	(253)	(308)	(279)	(192)
(리 비 아)	(12,388)	(772)	(4,754)	(177)	(91)	(1,431)
(기 타)	(14.78)	(377)	(805)	(384)	(178)	(187)
아 시 아	7,541	766	712	1,887	2,112	2,582
태 평 양	450	164	122	236	26	626
중 남 미	52	—	—	—	32	58
아프리카	575	40	106	37	33	40
유 럽	—	—	18	9	—	—

자료 : 해외건설업.

〈표 12〉 한국과 개발도상국 건설노동자의 임금대비 생산성 비교

(단위 : 달러/월, %)

구 분	한 국	태 국	인 도	방글라데시	필 리 핀
(A) 임금(1992. 4/4)	1,629	480	308	225	513
(B) 대비	100	30	19	14	32
(C) 생산성	100	70~80	60~70	60~70	80~90
(D) 생산단위당 임금(B/C)	100	43~38	32~27	32~27	40~36

주 : B와 D는 100으로 한 각국의 상대지수임.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

〈표 13〉 한국 · 일본 · 대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부담율, 매출액영업이익율과 경상이익율의 추이

(단위 : %)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89	1990	1989	1990
금융비용부담률	4.9	4.6	4.6	5.1	5.1	5.7	1.7	2.1	1.7	2.5
매출액영업이익률	7.9	7.2	6.8	6.0	6.5	6.6	5.0	4.8	13.0	7.0
매출액경상이익율	3.6	3.6	4.1	2.5	2.3	4.7	4.7	4.3	18.4	4.5

자료 : 한국은행.

〈표 14〉 건설업 사업체 및 수주액 추이

(단위 : 개, 백만원)

	사 업 체 수 (X)			수 주 액 (Y)			업체당수주액 (Y/X)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1976	67	3,376	0.0198	6,060	2,237,956	0.0027	90.5	662.9	0.1364
1981	112	5,494	0.0204	8,221	2,269,910	0.0036	73.4	413.2	0.1777
1986	174	12,858	0.135	129,076	31,425,496	0.0041	741.8	2,440.0	0.3035
1990	302	18,073	0.0167	510,250	38,486,398	0.0133	1,689.6	2,129.5	0.7934
1990/1976(배)	4.51	5.35		84.2	17.2		18.68	3.21	
평균증가율	10.56	11.83		34.39	20.88		21.55	8.09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각연도

(2) 建設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UR협상타결에 따라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정부조달가입에 의해 외국업체등의 민간건설시장 및 공공건설시장에의 입찰참여가 현행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건설시장에서는 일부 공사에 있어서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건설업부문에서의 외국건설업체의 국내 진출현황을 보면 1983년 이후 합작투자가 총 16건으로 1983~1985년에 4건, 1990~1993년 중 12건이 이루어졌다. 투자규모 면에서 보면 1983~1985년 119만$, 1990~1993년 1,885만$ 등 총 2,005만$이 투자되었으며, 그 투자 비율은 24.5%에서 100%까지이다. 이들 외국인 합작사는 주로 전문공사업체, 건축설계 및 전문건설 용역업체로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특수공법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이 대부분이라 도급한도액이 적어 현재까지는 국내건설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편이다.

UR타결에 따른 건설업의 시장개방은 민간건설시장의 경우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건설이 1994년 부터 100% 직접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외국인

투자 개방 5개년계획에 근거) 그러나 실제면허는 UR발효시점인 1995년 부터 100% 국내 단독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건설업도 1996년과 1988년에 각각 단독투자와 지사가 허용될 계획이다.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의 8개 분야 중 운전자 딸린 장비임대를 제외하고 정지작업, 건축 토목 조립건축 전문건설 설비공사 마감공사 등 총 7개 분야를 양허하기로 하였는데, 양허대상은 중앙정부의 48개 기관중 43개 기관의 총 50억원이상 발주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160억원 이상 발주공사, 그리고 주택공사를 포함한 43개 정부투자기관의 160억원 이상 공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시기는 1997년 부터 예정되어 있다. 또한 설계용역의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발주공사는 약 1.4억원, 중앙정부기관 발조공사의 경우는 2.2억원 이상의 설계용역에만 외국업체에 허용되고 있다. 특히, 외국건설업체에 대해 내국민대우가 보장됨으로써 단순기능공을 제외한 인력 이동이 가능해 선진업체의 국내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은 외국업체의 진출에 따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건설업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건설업계의 시공분야 경쟁력은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대량으로 이루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첨단공업이 필요한 특수분야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데, 이의 분양의 경쟁력 제고가 주요과제이다. 컨설팅,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 기술용역 부문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기술열세로 선진건설업체들의 시장잠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UR협상타결에 의해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정부조달가입에 의해 외국업체들의 민간건설시장 및 공공건설시장에의 입찰참여가 현행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건설시장에서의 외국업체의 진입에 의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지방영세 건설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표 15〉 한국 민간건설시장 개방안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안	내국민우대에 대한 제한
일반건설(토목·건축·토건) 1)	-국내 기존면허업체와의 합작투자만 허용 1994년부터 100% 단독투자 허용 1996년 1월부터 지사설립 허용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의 기업 내 필수인력은 일시적 이동 허용	*제한없음
전문건설(특수·전문·전기·전기통신·소방시설) 1)	-국내의 면허업체와의 합작의무 있음 1996년 1월 1일부터 100% 단독투자 허용 1998년 1월 1일부터 지사설립 허용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의 기업 내 필수인력은 일시적 이동 허용	*제한없음
건축설계서비스 2)	1996년부터 국내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참여	*제한없음
토지취득	-외국인토지법을 개정 외국인의 토지취득 확대 외국인의 취득가능한 실수요범위의 확대 직접 서비스 영위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직원용 택지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 부지	

주 : 1) - 면허는 3년마다(1994년부터 1년마다로 바뀜) 발급됨.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표 16〉 한국의 건설부문 정부조달시장 개방안

구 분	양 허 기 관	양 허 하 한 액
중앙정부기관	- 42개 기관 동자부 체육부 폐지 철도청 포함	- 물품(13만 SDR) - 서비스(13만 SDR) - 건설(7개 업종, 500만 SDR)
지방정부기관	- 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 및 9개도 (산하 사업본부 등 포함)	- 물품(20만 SDR) - 서비스(20만 SDR) - 건설(1,500만 SDR)
기타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 43개 정부투자기관	- 물품(45만 SDR) - 서비스(해당사항 없음) - 건설(1,500만 SDR)

주 : SDR(특별인출권)은 약 1,100원선, ( )안은 개방하한선.

2) 流通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1) 流通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국내유통산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도소매업체가 과밀하게 소규모 사업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유통산업의 사업체수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말 현재 85만개이며 이중에서 소매업이 11만3천개, 소매업이 73만 7천개이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사업체의 증가수는 연평균 3.8%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1992년말 현재 195만명인데, 이중 도매업이 53만명, 소매업이 142만명이고, 또한 판매액은 1992년말 현재 109조원, 이중에서 도매업이 56조원, 소매업이 53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18)에서 보면 인구 1만명당 소매업체수는 163개로 일본보다 훨씬 많고 미국과 독일의 2.5배 수준이다. 국내도소매업체의 업체당 평균매장면적은 41㎡, 종사자수는 2.3명, 판매액은 1.3억원

으로 일본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업체당 매장면적이 30㎡이하인 도매업은 53.2%, 소매업은 67.9%, 종사자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도매업 74.1%, 소매업 96.0%에 달한다. 사업체당 연간판매액의 경우 국내도매업은 1989년 67.4만 달러로 일본의 13% 수준(1985년), 미국의 20% 수준(1982년)에 불과하며, 국내소매업은 7.3만달러로 일본의 21%(1985년), 미국의 13% 수준(1982년)에 불과하다. 이와같이 사업체당 종사자 규모의 영세성을 갖고 있고, 특히 소매업체는 대부분 생계형으로서 존립기반이 취약하게 유통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도소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1991년중 연평균 4.7%, 5.2%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전국 도소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제주지역의 비중은 1.1~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판매액을 보면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620억원에서 1991년 7,920억원으로 연평균 17.3%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1976년 1.1%에서 0.9%로 감소하였다. 특히 업체당 및 종사자 1인당 판매액의 전국 대비비율이 계속 낮아져 1991년에는 70.3%, 76.2%에 불과하여 제주지역 도소매업체는 규모가 극히 영세하다고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본구조의 취약, 저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의 미비등 산업구조 면에서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2) 流通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정부는 그동안 유통시장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개방계획에 따라 유통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8년 도소매업진출 5개년계획에 따라 3단계 대외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유통시장을 개방하였다.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업종은 1993년 3월 도매업 총 89개 업종중 76개 업종, 소매업 총 68개 업종중 55개 업종으로 확대 허용되었다. 정부가 도소매업의 개방을 시작한 1982년부터 1992년말까지 외국인의 투자실적은 48건, 6,652만 달러였다.(표21 참조) 국가별 진출건수는 미국 일본이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등이 각각 2~3건이었다.(표 22

참조),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을 업종별로 보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용품, 기계장비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의료 스포츠용품이 9건, 농축산물 음료식품과 음향기기 가전제품이 각각 5건을 차지하고 있다.

UR협상타결에 따라 유통업의 시장개방은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에 따라 1995년까지 개방할 계획인 도매업 3개 업종(과실, 채소, 서적 및 기타 인쇄물 농약), 소매업 8개 업종(채소, 과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화장품 및 화장비누 서적 및 신문 중고서적 액체연료 가스연료)은 자유업종으로 포함시켰다. 그리도 도매업에서는 기존제한업종인 무역업, 규모제한을 받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도매시장과 대형점, 자유업종에 포함되었던 중고자동차도매업, 가스 및 관련 제품도매업, 그리고 도매센터 등에 대한 상업적 주재를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소매업에서는 매장의 규모와 수에 대한 규제가 1996년 1월부터 완전폐지되고 투자자유업종인 중고자동차매매업, 1995년 자유화대상인 가스연료소매업 등에 대한 상업적 주재를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백화점과 쇼핑센터 개설을 위한 외국인투자는 일체 금지되었다.

제주도 유통산업의 특징은 도소매업체가 과밀하게 소규모 사업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업체당 종사자수, 연간판매액, 매장면적 면에서 보더라도 규모가 영세하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가진 국내유통업 분야에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은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UR타결에 따른 수입 자유화와 실질적인 수입규제의 철폐와 맞물려 해외상품수입을 크게 유발하여 국내제조업체의 유통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사항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거 명목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국내규제나 절차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였던 관행들이 철폐될 전망으로 있어 일부품목에 대하여 시장잠식이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표 17〉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각 규모별 추이

구 분		1982	1986	1989	1990	1992	연평균증가율(%) (1982~1992)
사업체수 (천개)	도매업	46	69	85	91	113	9.5
	소매업	542	638	692	710	738	3.1
	합 계	588	707	777	801	851	3.8
종사자수 (천명)	도매업	173	343	464	502	529	11.8
	소매업	946	1,221	1,323	1,360	1,422	4.2
	합 계	1,119	1,564	1,787	1,862	1,951	5.7
판 매 액 (십억원)	도매업	7,086	21,844	41,227	49,816	56,025	23.0
	소매업	12,655	21,674	34,207	41,108	53,625	15.5
	합 계	19,741	43,518	75,434	90,924	109,650	18.7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 12.

〈표 18〉 도·소매업의 국제비교

구 분		한국(1989)	일본(1985)	미국(1982)	서독(1985)
도·소매업					
-취업자/총취업자비율(%)		10.2	18.6	20.8(1985)	12.4
-GNP대비 국내소득비중(%)		11.7	14.4	15.4(1985)	15.5
1㎢당 업체수(개)	소 매 업	6.97	4.25	0.06	-
인구 1만명당 업체수(개)	도 매 업	20.0	36(1988)	16.0	19.0
	소 매 업	163.0	132(1988)	65.0	67.0
업체당 종사자수(명)	도 매 업	5.5	9.4	12.6	9.6
	소 매 업	1.9	3.9	8.1	5.8
업체당 연간판매액	도 매 업	673.8	5,240.1	3,430.6	2,870.8
(1,000달러)	소 매 업	72.7	349.3	554.2	465.8
평당매장면적(㎡)	도 매 업	72.4(1991)	-	-	-
	소 매 업	36.2(1991)	58.0	-	167.9
W/R비율	판 매 수	1.21	3.44	1.09	1.80(1984)
(도매거래액/소매거래액)	사업체수	0.12	0.23	0.72	0.29(1984)
종사자 1인당 연간판매액	도 매 업	130.9	448.7	272.4	299.8
(1,000달러)	소 매 업	38.2	72.4	68.5	80.3

주 : 1달러=680원(1989)과 200엔(1985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

자료 : 남일총, 〈한국의 유통산업〉, 1992. 2.

〈표 19〉 전국 및 제주도 도소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구 분	사 업 체 수(개)			종 사 자 수(명)		
	제 주(A)	전 국(B)	A／B	제 주(A)	전 국(B)	A／B
1 9 7 6	4,785	413,911	0.0116	9,428	787,138	0.0120
1 9 7 9	5,965	445,847	0.0134	11,218	881,789	0.0127
1 9 8 2	7,543	588,026	0.0128	13,972	1,189,934	0.0117
1 9 8 6	8,820	706,522	0.0125	18,732	1,563,811	0.0120
1 9 9 0	9,355	753,237	0.0124	20,110	1,716,533	0.0117
1 9 9 1	9,923	800,509	0.0124	21,316	1,862,352	0.0114
1991／1976(배)	2.07	1.93		2.26	2.37	
평균증가율(%)	4.65	4.20		5.23	5.54	

자료 :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표 20〉 제주도 도소매업 판매액 추이

구 분	판 매 액(십억원)			업체당판매액(십억원)			종사자 1인당 판매액(백만원)		
1 9 7 6	61.5	5758.9	0.0107	12.9	13.9	0.9281	6.5	7.3	0.8904
1 9 7 9	96.2	11038.4	0.0087	16.1	24.8	0.6492	8.6	12.5	0.6880
1 9 8 1	202.0	19741.5	0.0102	26.8	33.6	0.7976	14.5	16.6	0.8735
1 9 8 6	422.5	43517.8	0.0097	47.9	61.6	0.7776	22.6	27.8	0.8129
1 9 9 0	563.9	63245.1	0.0089	60.3	84.0	0.7179	28.0	36.8	0.7609
1 9 9 1	792.2	90924.2	0.0087	79.8	113.6	0.7025	37.2	48.8	0.7623
1991／1976(배)	12.88	15.79		6.19	8.17		5.72	6.68	
평균증가율(%)	17.32	18.82		12.07	14.03		11.52	12.60	

자료 : 도소매업 통계조사 보고서(통계청)

〈표 21〉 외국유통업체의 연도별 국내진출 현황

(단위 : 건, 만 달러)

구 분	1982~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합 계
투자건 수	16	8	1	3	14	6	48
투자 금액	1,771	1,519	84	97	3,973	575	6,652

자료 : 재무부, 〈외국인투자동향〉

〈표 22〉 외국유통업체의 국가별 국내진출 현황(1982~1992년)

(단위 : 건, 만 달러)

구 분	미 국	일 본	네덜란드	스 위 스	독 일	기 타	합 계
투자건 수	15	15	3	2	3	10	48
투자 금액	2,900	335	2,599	280	114	425	6,652

자료 : 재무부, 〈외국인투자동향〉

〈표 23〉 외국유통업체의 업종별 국내진출 현황(1982~1992년)

(단위 : 건, 만 달러)

구 분	종 합 도·소매업	산업용품 기계장비	농축산물 음식료품	의류·스 포츠용품	음향기기 가전제품	기 타	합 계
투자건 수	3	18	5	9	5	8	48
투자 금액	2,502	2,209	503	326	112	1,000	6,652

자료 : 재무부, 〈외국인투자동향〉

2) 金融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1) 金融서비스業의 現況과 構造的 特性

현재 우리나라는 근대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비교적 정교한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도면에서 근대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여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나 금융산업 자체는 상대적으로 회생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져 있다.

우선,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경우 생산성을 보면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은행원 1인당의 자산 대출금 예금액 당기순이익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산대출예금의 경우에 일본은행은 우리나라보다 대략 14.3, 14.0 19.2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은행은 1.5, 1.8, 1.9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과 국내은행과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은행은 외은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에 의론하는 비중이 크며, 총자산 순이익률 및 자기자본수이익률도 외은지점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은지점은 국내은행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떨어지나 비용측면에서 크게 우위를 보여 결국 수익성에는 국내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증권업의 경우도 경쟁력면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데, 그 생산성이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에 비해 노동 및 자본생산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본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총자산수익률이 미국 일본에 비해 각각 1/2.5, 1/3.5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한국·미국·일본의 은행간 생산성의 비교(1990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명)

구 분	한 국(A)	미 국(B)	일 본(C)	B/A	C/A
행당 은행원 수	5,863	35,687	12,692	6.1	2.2
1인당 자산	1,680.4	2,587.0	24,018.5	1.5	14.3
1인당 대출	929.6	1,633.3	12,996.2	1.8	14.0
1인당 예금	896.1	1,714.6	17,273.7	1.9	19.2
1인당 당기순이익	11.4	12.8	43.3	1.1	3.8

주 : 한국 시중은행 11개, 미국 10대 은행, 일본 12개 도시은행 기준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1.

일본전국은행협회, 〈전국은행재무제표분석〉, 1991

구 분	일 반 은 행		외 은 지 점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수 익	3,598.5	100.0	339.9	100.0
이 자	2,099.0	58.3	180.4	53.1
비 이 자	1,499.5	41.7	159.6	46.9
총 경 비	2,016.8	56.0	163.3	48.0
세 전 경 비	1,581.7	44.0	176.6	52.0
당기순이익	750.9	20.9	116.1	34.2
ROA(%)	0.6		1.6	
ROE(%)	7.1		14.5	

주 : 비중은 총수익에 대한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표 26〉 한국 · 미국 · 일본 증권업의 생산성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1989	1990	1987	1990	1987	1990
노동생산상(백만달러)						
1인당 위탁매매금	7.7	8.0	–	–	25.7	24.6
1인당 영업수익	0.11	0.13	0.53	0.60	0.34	0.28
1인당 당기순이익	0.03	0.04	0.007	0.03	0.07	0.06
자본생산성(%)						
ROA	5.0	4.7	12.5	11.1	20.2	14.9
ROE	9.0	7.7	1.8	4.5	24.3	14.6

주 : 미국과 일본은 각각 뉴욕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회원기준임.

자료 : KIEP, 〈UR 금융서비스협상과 증권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재작성, 1991.

보험업의 경우도 (표 27)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산수익률 면에서 외국 생명보험 및 손보사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국내외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효율 비교

(단위 : %)

구 분		신계약률	효력상실 해약률	보험비 지급률	자산수익률	
					총자산	운용자산
1989	국내업계	102.8	27.0	60.9	13.0	13.5
	외국업계	88.8	35.1	30.9	13.6	18.4
1990	국내업계	88.5	29.2	56.7	12.4	12.9
	외국업계	144.2	22.9	25.3	17.1	23.9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호.

〈표 28〉 국내외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

(단위 : %)

구 분		원수손해율	경과손해율	합산비율	자산수익률	
					총 자 산	운용자산
1989	국내업계	57.2	79.6	105.0	11.9	14.6
	외국업계	33.1.	42.3	89.8	19.0	25.7
1990	국내업계	58.1	79.8	103.8	9.0	11.0
	외국업계	37.6	51.7	95.8	17.0	27.7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 호.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경쟁력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기업성은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즉 저축목표의 할당과 여신운용의 제약 등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의 가격인 이자율 및 재수수료 등은 인위적으로 통제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둘째 금융기관의 낙후된 금융기법도 그 한 요인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간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금융기관이 여수신 면에서 질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셋째, 정책금융의 존재에 있다. 우리나라 일반상업은행들까지 정책금융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기관들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체조달한 자금의 운용을 제약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의 과다 등에 따른 부실채권의 보유는 은행의 수익기반 확충에 가장 큰 애로 요인이 되었다.

제주도의 금융산업의 현황을 보면 1991년말 현재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

기관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포수가 314개에 달하고 있는데 예금은행 금융기관은 62개로 전국대비 1.6%이며, 비통화금융기관은 252개로 전국 비중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 0.7%에 불과하여 지역금융기관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으로서 제주은행의 자본규모는 1991년말 현재 265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시중은행의 평균자본금 6,500억원, 지방은행의 평균자본금 1,057억원에 비하여 극히 영세하다. 이외에도 제주지역금융은 지역금융의 地重低位,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실물경제와의 괴리등의 構造的 취약성을 갖고 있다.

〈표 29〉 全國 및 濟州道의 金融機關 店鋪數 現況

(單位 : 個, %)

區 分	全 國(A)	濟 州(B)	構 成 費(A/B)
預 金 銀 行	3,890(20.4)	62(19.7)	1.6
非通貨金融機關	15,160(79.6)	252(80.3)	1.7
短 期 金 融	38	–	–
投 資 信 託	113	2	1.8
相互信用金庫	334	7	2.1
信用協同組合	1,315	27	2.1
相 互 金 融	1,838	40	2.2
새 마 을 金 庫	3,245	59	1.8
開 發 保 險	61	–	–
生 命 保 險	8,216	117	1.4
合 計	19,050(100.0)	314(100.0)	1.6

註 : ( )내는 金融機關 全體에 對한 構成比

資料 : 地域金融統計 韓國銀行

(3) 金融서비스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은 높은 경제성장과 대외거래의 확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배경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은 1986년 이후 본격화된 이후 1993년 말까지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개국 72개 지점 및 23개의 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국별로는 미국계 은행이 지점 26개, 사무소 2개로 가장 많고 일본계 은행이 지점 15개, 사무소 9개로 그 다음이다.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은 자본시장의 국제화계획을 토대로 추진되었으며 초기에는 사무소설치만 허용되다 점자 국내증권사에 대한 자본참여 및 지점설치 등 그 진출형태가 다양화되었는데,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말까지 총 8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었다.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은 1993년말까지 3개의 합자회사와 3개의 현지법인이 영업중에 있으며,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국내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표 30〉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사무소 설치현황

(단위 : 계)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프 랑 스	독 일	기 타	합 계
지 점	26	15	3	8	2	18	72
사 무 소	2	9	1	1	2	8	23

자료 : 은행감독원, 〈은행정보〉

지난해 UR협상타결에 따른 금융서비스부분의 주요 양허내용을 보면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관련 양허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신금융상품의 도입, CD발행의 한도 및 만기확대, 외국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신설시 경제적 필요성 심사 삭제, 신탁의 통안채 인수비율인하, 현물환의 매각초과포지션 한도확대 등이다. 종전관련 주요 양허내용은 외국인주식투자 한도의 확대, 국내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인대우, 증권저축과 신용공여 등 2개 업무 추가허용, 증권관련 투신사 및 투자자문업과 관련해서는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 사무소 설립시 경제적 필요성 심사폐지,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자분참여범위 확대 등이다. 그리고, 보험관련 분

야에서는 생명보험에 대한 전속대리점업의 허용,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험대리점업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시 경제적 수요인사 등이다.

이같은 UR협상타결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서비스부분의 양허계획은 우리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부문,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등의 내용범위 내에서 작성 제출되었고, 자유화조치의 시행시기 및 폭의 구체화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수행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이번 UR금융서비스협상으로 새로운 추가개방요구가 생기거나 당장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1~2년간 우리의 개방계획을 후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국내경제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자유화일정을 늦출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 금융산업의 경우 지역금융의 비중지위, 지역조성자금의 역외유출, 실물경제와의 괴리, 소규모 저생산성, 경영효율의 낙후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금융시장 개방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표 31〉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 현황

(단위 : 개)

구 분	1980~1985	1986~1990	1991~1993.9	합 계
지 점	-	-	8	8
자본참여	3	-	1	4
사 무 소	6	18	3	27
(신 설)	6	18	11	35
(지점전환)	-	-	8	8

자료 : 증권감독원, 〈증권조사월보〉

(4) 運送業의 市場開放과 그 影響

제주지역 운송산업의 현황을 보면 운수업 사업체수는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1431개로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976년 2,517명에서 1990년 8,693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8.4%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국 및 제주도의 운수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추이 1)

(단위 : 개, 명)

	사 업 체 수 2)			종 업 원 수		
	제 주(A)	전 국(B)	A／B	제 주(A)	전 국(B)	A／B
1 9 7 6	50	2,129	0.0235	2,417	222,344	0.0112
1 9 8 1	87	5,698	0.0153	5,134	432,219	0.0119
1 9 8 6	111	7,984	0.0139	5,978	552,369	0.0108
1 9 9 0	1,431	135,537	0.0106	8,493	655,901	0.0129
1990／1976(배)	－	－		3.37	2.92	
평균증가율(%)	－	－		8.44	7.41	

주 : 1)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포함

2) '87년까지는 개인택시, 개인용달(1톤미만), 개별화물업체(1톤－4.5톤 미만)의 경우 시도 단위조합을 1개 업체로 집계, '88년 이후는 사업체 단위로 집계

자료 : 운수업 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각연도

운수업의 운수수입은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56억원에서 1990년 10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부가가치면에서도 1976년 26억원에서 1990년 7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율은 각각 68%,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면에서 전국대비 60.9%에 불과하여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운수업 운수수입 및 부가가치 추이

	운수수입(십억원)			부가가치(십억원)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1 9 7 6	5.6	927.0	0.0060	2.4	454.0	0.0053	1.0	2.0	0.5000
1 9 8 1	35.5	6,075.8	0.0058	18.9	2,644.0	0.0071	3.7	6.1	0.6066
1 9 8 6	53.4	9,715.0	0.0055	30.7	4,973.4	0.0062	5.1	9.0	0.5667
1 9 9 0	106.5	15,623.5	0.0068	71.2	9,063.9	0.0079	8.4	13.8	0.6087
1990／1976(배)	19.02	16.85		29.67	19.96		8.4	6.9	
평균증가율(%)	21.70	20.72		25.36	22.09		15.24	13.74	

운송산업의 시장개방 현황을 보면 1987년 韓美通商會談 이후 육운분야에 창고업, 철도수운송업 등 7개 업종, 해운분야 외항여객 수상화물취급업 등 8개업종, 컴퓨터 예약업 등 2개 업종이 이미 개방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내운송서비스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수도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말 현재 해운분야 29개사, 육운분야 10개사 총 39사에 이르고 있다.

〈표 35〉 운송서비스분야의 외국업체 참여 수 현황(한국)

구 분	세 분 업 종	참여업체 수
해 운	－외항여객운송업	1개사
	－해상화물운송주선업	15개사
	－해운대리점업	8개사
	－해운중개업	5개사
육 운	－창고업	8개사
	－철도소운송업	2개사

자료 : 상공자원부, 〈UR／서비스협상 교통 · 관광부문〉, 1993. 12

정부는 1993년 6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997년까지 추가 개방되는 업종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운분야에 기타 전기노선여객운송 등 14개 업종, 해운분야에 기타내륙수상운송업 등 5개 업종, 항공분야에 항공터미널시설운영업 등 5개 업종 총 24개 업종을 개방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GATT에 제출한 운송산업 분야의 최종 양허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의 개방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해운서비스 육운(컨테이너 화물운송서비스), 항공(컴퓨터예약서비스 항공서비스판매), 운송부수서비스(농축산물을 제외한 항만구역 이외의 창고업), 기타 운송서비스(철도소운송업)등 5개 분야이다.

그러나 1997년까지 개방이 유보되는 업종은 16개 업종으로 해운 3개 업종 육운 8개 업종 항공 3개 업종인데, 제주도내 운수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운분야 시내의 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정기노선화물운송업, 특수화물운송업, 여객 자동화시설운영업과 해운분야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등은 개방유보되기 때문에 UR/운송서비의 타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36〉 운송산업의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

구 분		해운(보조)	육 운	항 공
기 존 개방업종		외항여객, 수상화물취급업, 해운대리점, 컨테이너스테이션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선박유지·수선업, 선박임대업, 항만시설접근 및 이용(도선, 예선, 급유, 긴급, 선박수리, 정박 등) (8개업종)	창고업, 철도소운송업(부산부곡 개방), 중고차매매업, 육상트럭킹(부산, 경남, 경북), 기타 운수장비임대업(승용차 등), 기타 비노선여객운송업(인력견인차량등), 기타 운수관련대리서비스업(7개업종)	컴퓨터예약업(공중전화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공급허용, 외자지분 50% 미만 허용), 항공기임대업 (2개업종)
	1994	기타 내륙수상운송업(내륙수상유람선 임대 등)	기타 전기노선여객운송(케이블카 시내여객운송 등),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인력견인차량 운영 등), 철도운수유지서비스업, 유료도로운영업, 주차장운영업, 기타 육상운수유지서비스업(도로운수유지서비스업 등)	
	1995	기타 해상운송업(행상유람선임대업 등), 수로안내(도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점업	항공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대행업 중 항공분야(항공운송주선업)
	1996	—	화물운송대행업 중 육운분야(자동차운송주선업)	—
		상업서류송달업		
	1997	내륙·수상여객운송업 내륙·수상화물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일반전국화물자동차운송업,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업, 화물차터미널시설운영업	항공기임대사업(조종사포함), 항공기지상관리서비스업
	업종수 합 계	5개 업종	14개 업종 * 상업서류송달업 포함	5개 업종
개 방 유보업종		내항여객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3개업종)	도시간철도운송업, 구역내철도운송업, 시내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정기노선도로화물운송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운영업(8개 업종)	정기·부정기항공운송업, 기타 항공운수유지서비스업(비행관제서비스 등) (3개업종)

Ⅳ. 서비스産業의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1. 國際化 開放化時代下의 濟州經濟의 發展方向과 戰略的 課題

UR협상타결 이후 제주경제는 급속한 對外的 環境變化에 직면해 있다. UR타결로 인한 WTO의 출범은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제주경제는 國際化 開放化時代를 맞아 全 산업의 시장개방을 요구받고 있는데, 제주경제내 전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경쟁력은 세계 여러나라 상품들과 비교하여 어느 만큼 값싸고 질 좋게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경제는 그 구조분석을 통해 볼때, 성장 잠재력은 관광산업과 농업에서 나타나 제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 제주농업은 1960년 유채, 고구마, 부업 축산에서, 1970년대 감귤 겨울채소 등, 1980년대에 와서 감귤외에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생산이 확대되어 제주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1991년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수입개방 되면서 폐농화돼 버렸다. 제주경제의 주력산업인 감귤은 95년부터 개방되어 그 성장의 한계에 이르를 전망이다. 또한, 제주도의 광공업은 극히 영세한데, 불리한 공업입지조건에 의하여 그 발전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여 왔다.

관광산업은 제주경제의 기본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본도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왔는데,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높아 앞으로 상당기간 제주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이 대서양권에서 태평양권으로 옮겨옴에 따라 태평양권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제주경제의 産業發展 전망을 해보면, 제주경제권에 커다란 구조적 변환이 없는 한 1차산업은 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2차산업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육지부로 부터의 수입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이 제주경제의 기반산업(basic industry)으로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제주경제의 발전방향은 관광산업을

先導産業(leading sector)으로 하여 지역기존산업인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과의 연계성(linkage effect)을 강화시켜 나가는 경우 제3차산업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여, 나아가 농수산업 및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갈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서 모색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여 제주도의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과 농수산업 제조업이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 지역의 經濟基盤(economic base)을 강화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케 하며 관광의 다양성을 가져다 주고, 나아가 제주경제의 內發的 開發을 가능케 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성장은 물론, 도민소득증대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제주경제내 서비스산업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도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첫째, 社會間接資本(SOC)의 확충·정비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이른바 外部環境의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의 요체를 이루는 도로 항만 공항 상하수도 전력통신 등의 확충은 모든 생산활동의 여건을 강화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순환과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는 정보시대, 시간절약형 경제임으로 infrastructure를 통한 정보적, 물류적 흐름을 고속화하여야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만이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2001년까지 목표연도로 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도 총 1조 6,77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통진시설 및 수자원개발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정비할 것으로 되어 있어 이의 효율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인허가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한다. 94년에 와서 정부는 經濟行政規制緩和 推進計劃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를 기능별 업종별로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야 하겠다.

우리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제1차적인 과제는 규제완화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규제완화를 단순히 규제절차란 단순히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의 개념을 탈피하여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아닌 시장경쟁원리를 국민경제의 새로운 기틀로 정착하는데 있음을 확인토록 한다. 최소한민간이 지니고 있는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셋째,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케 하기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교역상대국으로 부터의 개방요구에 응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서 서비스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지역내 서비스산업의 실태를 보면 규모의 영세성, 저생산성, 자본구조의 취약 및 경영효율성의 미비 등 산업구조면에서 극히 취약한 상태인데, 이의 육성을 위해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체제하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지원제도, 투자촉진 및 산업합리화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중점 지원토록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한다. 서비스산업이 수행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역할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 낙후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서비스산업의 경우 지역주민이 상당한 부분이 (58.5%) 중소서비스업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은 생업 또는 고용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단순한 서비스생산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주경제의 발전, 지역주민의 생활수준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단기적이고 환상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 단편적인 것보다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서비스효율의 증대를 염두에 두고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主要 서비서産業別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1) 建設業의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UR협상타결에 의하여 건설서비스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외국업체들의 민간건설시장 및 공공건설시장에의 입찰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건설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질 것으로 보이므로 건설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서 내역심사제 도입, 책임시공풍토 및 시공능력위주의 수주풍토조성을 통해 국내시공업체의 시공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연금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비의 연구재원에 의한 정부 기업 연구소 공동의 기술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제고.

③ 프로젝트의 개발 시공 유지관리 전분야에 대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의 종합건설화(EC)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건설어음을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에 포함하고 회사채 발행허용확대,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등 국내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강화.

④ 일정규모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도내업체와 공급도급조건을 부과하여 공동도급을 통해 도내건설업체등이 기술 경영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⑤ 건설업체 자체로서도 건설관련기술의 개발, 건설인력양성과 관리, 장비현대화 및 경영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건설기술 개발은 현장에서 적용되는 공법이나 자재의 시공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생산시스템의 효율화,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작업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설장비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영관리능력을 제고시킴.

2) 流通業의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제주지역 유통산업은 규모나 시설,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볼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유통정책도 소극적이어서 유통산업의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통산업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제주지역에 진출할 경우 경영의 악화 내지 경쟁력의 상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유통산업은 유통시장의 대외개방하에서 선진유통업체들의 국내진출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에서 찾아야 한다.

① 중소 소매업의 협업화, 조직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규모의 경제를 확보토록 함. 기존 연쇄화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연쇄화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주류중심의 한정된 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상품구색의 다양화를 기하고 가맹점에 대한 머천다이징기법의 지도, 점포설계지도, 경영지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POS시스템 도입, 본부와 가맹점간의 자동수발주시스템의 확립,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구입체제, 공동집배송단지의 설립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약 등을 도모함.

② 유통산업의 생산성 및 대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머천다이징 및 판매관리, 물적유통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POS시스템, 자동수발주시스템, 유통VAN등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③ 현재 제주지역의 유통물량은 지역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물적유통의 기반시설인 항만 및 하역터미널, 공항, 도로, 트럭터미널 등의 미비, 창고운송업체 등 전문업체의 미발달, 자동화 기계화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시설의 확충과 개선, 물류시설의 공동이용체제 확립, 물류정보시스템의 확립 등 물적유통의 합리화를 기함.

④ 유통산업은 지역산업 내지 지역생활 밀착형 산업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주먹구구식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소비자의 구매패턴, 유통환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나 업태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경영체제를 확립.

⑤ 제주지역 유통산업은 업태가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각 업태의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전개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주요 문제로 대두됨. 이를 위해 전문대학내 유통 관련학과의 신설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통전문요원의 자격제도, 연

수제도를 강화시켜 유통 전문인력의 양성.

⑥ 영세점포의 규모확대,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선, POS EOS등의 유통정보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영세한 중소 유통업체들은 자본력의 미약, 담보능력의 부족, 상업어음 할인의 제한 등 때문에 독자적으로 상기의 사업들을 전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 유통산업에 대한 금융·재정상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⑦ 제주지역의 유통산업은 생활권의 위계에 따라 상권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별로 그 기능, 규모, 품질, 취급품목 등의 차원에서 계층화, 전문화가 되어 있지 못함. 즉 유통업의 지나친 도심집중현상으로 인해 도심의 무질서, 교통혼잡, 주차난 등을 가중시킴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생활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생활권의 위계에 따른 상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집행이 필요함

3) 金融業의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UR협상타결에 따른 금융시장개방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외국금융기관들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금융기관 자체의 체질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금융은 지역금융의 比重低位,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실물경제와의 괴리 등의 당면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지역금융은 지역의 각 부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금융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조치가 선결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인사, 자금운용의 자율성 확대, 금융자유화,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신상품개발등의 실질적 금융자율화를 도모토록 한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금융권별 특성, 시장경쟁상황, 대외개방 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신설수요 등을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함.

② **地域金融圈** 형성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지역금융정책의 수립과 통화관리기능의 확보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통화 금융정책을 허용하는데는 한계가 없지 않으나 제한된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한국은행제주지점이 금융자금의 배분권한을 갖도록 할 수 있음. 또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미 「제주도·금융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켜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지역조성자금의 **域內還流度**를 제고시켜야 함. 제주지역금융의 실태를 보면 비통화금융기관이 금융부문 자금유출의 주 원천이 되고 있는데 비통화금융기관의 자금이 역내환류될 수 있도록 동기관의 지방운용지도 비율을 상향조정토록함. 특히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지방투신「펀드」의 지방채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식, 공채, 통화안정증권 매입자금을 역내운용토록 의무화함. 상호신용금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주민의 금융편의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예금 및 부금등의 최급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

④ 취약한 지역금융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금융기관을 지역금융센터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배양토록 함. 우선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키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토록 함. 현재 도금고, 교육금고, 법원공탁금 등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의 취급 전담기관을 지역금융기관이 맡게끔 하여 지역중추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함. 금융자율화 및 국제화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는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금융기관의 신상품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경영이 요구되는데, 전산용역회사, 경영「컨설팅」회사, 경영경제연구소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영다각화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함.

4) 運送業의 國際競爭力 向上方案

우리나라는 운송업 가운데 육운분야의 시내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등 8개 업종, 해운분야의 내항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 등 3개 업종, 정기 부정기항공운송업 등 3개 업종등은 개방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육상 및 해상, 그리고 항공운송업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여행알선업 전세버스운송업, 내륙수상여객운송업 등 관광교통분야는 이미 개방되었거나 개방예정되어 있어 제주도의 경우도 관광교통분야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운송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① 육상 및 해상운송관련 각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개선하여 업계내 자율화 및 경쟁원리를 도입 경쟁력을 강화시킴. 이를 위해 사업구역제도의 개선, 시장참여제도의 개선, 화물자동차 및 선박공급 기준의 자율화, 업종구분제도의 단순화, 운임과 요금제도의 현실화, 과적제도의 개선 등이 필수적임.

② 육상 및 해상운송업은 자본이 영세하고, 인력부족 및 경쟁미숙, 항만 및 하역시설미비 등의 교통기반시설의 미비등에 의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 따라서 운송장비의 현대화, 기계화를 촉진하고 운송시스템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도모하여 경쟁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이에 덧붙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작업조건의 개선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송업의 정보화를 추진함.

V. 結

지금까지 UR협상타결 이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나타나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는 제주경제를 대상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제주도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비스산업의 발전가능성과 국제경쟁력 향상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요약하면, 제주도내 서비스산업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그 성장을 유지하여 제주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다. 제주경제는 그 구조분석을 통해 볼때 성장 원천은 농업과 관광산업인데, 농업은 1995년부터 개방되면서 성장의 한계에 이르를 전망에 있어 관광산업만이 기본산업으로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시대하에 있어서 제주경제의 발전방향은 관광산업을 선도 산업으로 하여 지역내 기존 서비스산업, 농업 및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은 GATT 사무국 서비스업종 분류표의 11개 분야 155개 업종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78개 업종을 대상으로 양허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및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주요 서비스산업별로 시장개방계획과 그 영향을 파악하면, 제주도내 경제적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UR협상타결에 의한 건설서비스시장과 정부조달가입에 의해 외국업체들이 민간건설시장 및 공공건설시장에의 입찰참여가 현행보다 많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아가 제주도내에서도 국내외건설업체와의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제주지방영세건설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유통업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자본구조의 취약, 자생산성 및 경영효율성의 미비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UR협상타결에 의한 시장개방은 도매업 3개 업종 소매업 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내 유통업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금융업의 시장개방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의 확대, 금융신상품 도입의 허용 신탁의 통화채 인수비율 단계적 축소, CD발행의 한도 만기 확대, 은행의 지점 사무소 투신사 등의 사무소설립시 경제적 필요성심사의 폐지 등인데, 제주지역 금융산업의 경우 지역금융기관의 소규모 저생산성, 경영효율의 낙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실

물경제와의 괴리, 지역금융의 비중저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데 금융시장 개방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끝으로 운송업의 경우 육상 및 해상의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의 운송업은 개방에서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운송업 개방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내 전세버스업 등 관광교통분야가 개방예정되고 있어 이의 경쟁력강화가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제주도내 서비스산업의 육성방향은 선도산업인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그 전략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정비, 경쟁력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강화,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추진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여 주요 업종별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시공능력의 국제화, 기술경쟁력 제고, 종합건설화를 위한 세제지원, 도급제도의 보완, 장비현대화 및 인력양성등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업의 경우 중소 도소매업의 협업화 조직화,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유통기반시설의 확충, 지역밀착형 경영체제의 확립, 전문인력의 양성, 유통산업발전계획의 수립, 집행 등의 육성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금융업의 경우 국제화를 각종 규제 완화, 지역금융권의 형성, 지역조성자금의 역내환류도 제고, 지역금융기관의 육성 등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운송업의 경우 국제화,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장비의 현대화 및 경영관리능력의 제고 등의 육성전략이 필요하다.